

고성군지



제 12편 종교

천주교 | 불교 | 개신교 | 유교·홀기



제 12편 종교

제 1장 천주교

제 1절 천주교의 유래(由來)

1. 천주교 탄생

천주교는 1세기 초 당시 로마제국의 영토였던 팔레스티나 지방의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창시된 기독교의 원류이다. 천주교 원래교명은 가톨릭인데, 이 명칭은 라틴어와 희랍어로서(Catholic; Catholicus; Καθολικός) ‘보편적, 일반적’ 이란 의미로 ‘만민이 믿는 종교’ 또는 “누구라도 믿을 수 있는 종교”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참조 갈라 3,28). 천주교의 한자표기는 예수회신부 마테오 릿치(Matteo ricci)가 중국에서 선교하면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천주교의 창시연대는 서기 33년경으로 성서에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출생한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 부활했다. 이것을 인간의 대속(代贖)으로 보고 유일신인 천주와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선종(善終) 후에는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간다고 믿는다.

천주교가 처음 전교될 때는 무수한 탄압과 박해를 겪어야 했다. 초기 300년간은 수많은 순교자가 피를 흘렸다. 312년에 비로소 로마황제 콘스탄티누스의 공인을 받았으며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교명이 가톨릭으로 정해졌고 380년부터는 로마의 국교가 되었다. 그 뒤 가톨릭교회는 로마제국이 동서로 나누이면서 함께 동서로 나누어졌는데 로마를 중심으로, 지리적으로 서쪽에 있는 교회를 “서방교회” 라 했는데, 이를 “로만 가톨릭” (Roman Catholic) 또는 그냥 “가톨릭교회” 라 하고, 동쪽에 위치한 콘스탄티노플(현재의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한 교회를 “동방교회” 라 했는데, 우리에게는 “동방정교회” (Orthodox) 로 알려져 있다. 동방정교회는 다시 희랍정교회와 러시아정교회로 갈라지고, 로만 가톨릭은 1517년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천주교(Catholic Church)와 개신교(Protestant)로 갈라지게 되었다. 천주교를 구교개신교를 신교라고 부르는 것은 개신교측의 입장이고, 흔히들 성당과 예배당으로 구별 짓기도 하지만, 현대의 교회일치 차원에서 서로 존중해 주는 용어를 찾는 추세이다.

2. 천주교 교리

가톨릭교회의 4대 교리는 천주존재(天主存在), 삼위일체(三位一體), 상선벌악(賞善罰惡), 강생구속(降生救贖)이다. 천주존재는 우주를 창조하고 다스리는 창조주, 즉 하느님(천주)이 존재함을 믿는 것이며,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三位)가 한 하느님이라는 뜻으로, 세 위격(位格)이 서로 구별됨과 동시에 하나의 신성(神性)을 이룬다는 교리로 제1차 니케아 공의회에서 확정되었다. 상선벌악은 하느님은 선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지만, 악한 사람에게는 벌을 내린다고 믿는 것이며, 강생구속은 인간이 죄를 지어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으나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됨(강생)으로써 인간의 죄를 대신 보속했으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교리이다.

3. 우리나라 천주교의 전래(傳來)

한국에 천주교가 창설된 배경으로 대외적인 것과 대내적인 것 2가지를 살펴 볼 수 있다. 첫째, 대외적으로 서세동점(西勢東漸)의 결과 선교사들이 중국에 들어온 것을 계기로 조선의 학자들이 천주교를 서학의 일부로서 접하게 되었다. 북경에 왕래하는 조선 사신들은 서양문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식을 얻는 한편, 한역서학서(漢譯西學書)를 조선에 가지고 돌아왔다. 이수광(李睟光)의 <지봉유설 芝峰類說>에는 예수회 신부 마테오 리치의 <천주실의 天主實義>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천주실의는 중국학자와 서양인 학자가 대담하는 형식으로, 유학(儒學)의 입장에서 불교와 도학을 논하면 서양학자는 중국고전을 인용해 기독교를 해설한 책이다. 조선의 학자들이 이 서학 책을 통해 신앙에 눈을 떴다. 1631년 진주사(陳奏使)로 베이징(北京)에 갔던 정두원(鄭斗源)과 1644년 소현세자(昭顯世子) 일행은 귀국하면서 아담 샬(Adam Schall) 신부가 준 서양의 과학기구와 서적을 가져왔고, 이익(李瀾)과 그의 제자인 안정복(安鼎福) 등은 천주교에 대한 회의적 태도를 갖고 학문적 차원에서 연구를 했다. 이리하여 이미 17세기 초엽부터 조선의 지식인들 특히 남인(南人) 학자들을 중심으로 천주교를 지식의 차원에서 탐구하게 되었다. 둘째, 대내적으로 볼 때 조선 후기에 사회변동과 문화변동이 크게 일어남으로 인해 전통적 가치관에 대한 반발과 아울러 새로운 사회를 모색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었다. 계속되는 기근과 전염병 등 자연재해와 세도정치의 부패로 백성들의 생활이 극히 어려워졌다. 이에 기존의 성리학적 사상체계에 대한 반발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천주교 서적에 대한 탐구가 활발해져 실학운동에 자극을 주는 동시에 ‘서학’이라는 새로운 학풍을 낳게 되었다. 그 결과 조선 후기 사회는 자발적으로 천주교 신앙을 수용할 기반을 마련하였다.

천주교에 대한 관심은 서학에 대한 관심과 연구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으나, 차차 지식의

차원을 넘어 실천의 차원으로 발전하였다. 서학을 신앙운동으로 발전시킨 사람들은 권철신(權哲身)·이벽(李檟)·이승훈(李承薰)·이가환(李家煥)·정약전(丁若銓) 등으로 경기도 광주군 천진암(天真庵) 주어사(走魚寺)에서 교리연구회를 갖는 등 천주교 교리를 연구·실천했다. 이벽은 북경에 가게 된 이승훈에게 교리를 배우고 세례를 받으라고 권고했고, 이에 남인 이승훈(李承薰)은 1783년(정조 7) 동지사(東使)로 가는 부친을 따라 북경에 갔다가 예수회의 포르투갈인 신부 그라몽(Grammont)을 만나 1784년 2월 27세 때 세례를 받았다. 그는 성서와 성상(聖像)을 갖고 귀국하여 복음을 전파하며 이벽·권일신(權日身)·김범우(金範禹) 등 자신의 동료들에게 세례를 주었다. 이들은 함께 명례방(明禮坊: 지금의 명동성당 부근)에서 종교집회를 열어 최초의 천주교 신앙공동체가 탄생했다. 이것이 한국 천주교 교회의 창설이다. 서양신부의 전교(傳敎) 없이 자발적으로 교회를 이룩한 것은 세계 천주교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이승훈의 세례를 기점으로 1984년에 천주교 전래 200주년 기념행사를 했다.

제 2절 천주교의 박해

1785년 봄, 명례방 김범우 집에서 가진 집회가 발각되어 이른바 ‘을사추조적발사건’(乙巳秋曹摘發事件)이 일어났다. 양반들은 석방되고, 중인 출신인 김범우는 곤장을 쳐 귀향 보내졌고 귀양지에서 죽음으로써 한국 천주교회사에 나타나는 첫 순교자가 되었다. 풀려난 양반들은 신앙생활을 계속하여 1786년에는 신부들을 선임해서 고해성사도 듣고 미사도 집전하는 등 가성직(假聖職)제도를 실천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교리서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조상제사도 교리에 어긋나는 일임을 발견하고, 1789년에 북경의 주교에게 편지로 문의한 결과 천주교인들은 가성직 제도와 조상제사를 폐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조상제사의 거부는 전통적 유교사회에 대한 거역으로 인정되어 1791년 권상연(權尙然)과 윤지충(尹持忠)의 순교를 초래한 ‘진산사건’(珍山事件)을 일으켰다.(辛亥迫害)

1794년 중국인 주문모(周文謨) 신부가 첫 선교사로 한국에 파견되었다. 1795년 체포령이 내린 주문모 신부를 보호하기 위해 윤유일·최인길·지황 등이 순교했다.(乙卯迫害). 주 신부의 입국 당시 약 4,000명에 불과하던 입교자 수가 주 신부와 신자들의 노력으로 1800년에는 1만 명으로 늘었고, 정약중(丁若鍾)은 우리말로 된 교리서 <주교요지>를 펴내기도 했다.

조상제사를 거부하고 기존의 신분제에 도전을 가하는 천주교의 비약적 발전은 집권양반층을 자극하여 1801년 오가작통법(五家作統法)이 실시되고, 신유박해(辛酉迫害)가 일어났다. 교회는 거의 폐허화되었고 주문모 신부를 비롯한 교회 지도자 대부분이 순교하였다. 황사영

의 백서(帛書)사건도 이때 일어난 일이다. 죽음을 면한 신자들은 북경 주교와 로마 교황에게 선교사의 지속적 파견을 호소하면서 교회 재건에 힘썼다. 그 결과 1831년에는 조선교구가 설정되었고, 조선교구를 위임받은 파리 외방 선교회(Société des Missions Etrangères de Paris) 소속 선교사들이 1836년부터는 조선에 입국할 수 있었다. 그러나 1839년 다시 기해박해(己亥迫害)가 일어나 당시 선교사인 모방·샤스탕·앵베르 모두 희생되었고 교회 지도자들도 상당수 순교했다. 1846년 병오박해(丙午迫害)때는 한국 최초의 신부인 김대건(金大建) 신부와 신도 9명이 순교했다. 1860년에 일어난 경신박해(庚申迫害)에도 불구하고 다시 천주교가 성행하자 1866년 흥선대원군은 대규모의 박해를 단행하였고, 이 병인박해(丙寅迫害)에서 선교사 9명을 비롯하여 모두 8,000여명의 신자들이 순교하기에 이른다.

한국교회는 창설 직후부터 100여 년간 박해를 받았다. 그중 가장 큰 박해는 다음 네 차례에 걸쳐 일어났다.

- 1) 1801년 신유박해 - 순조1년
- 2) 1839년 기해박해 - 헌종5년
- 3) 1846년 병오박해 - 헌종12년
- 4) 1866년 병인박해 - 고종3년

제 3절 천주교의 발전

[천주교의 성장] 개항 이후 조선은 구미 열강들과의 조약을 체결하면서 격동기를 맞이한다. 천주교는 이러한 격동기 속에서 신앙의 자유를 얻는다. 첫 단계는 신앙의 자유가 묵인된 단계로서 대략 1882년부터로 추정된다. 1882년 서울에 한한(漢韓)학교를 세운데 이어 1885년에는 지방에도 학교를 세우고 고아원·양로원·시약소(施藥所) 등 사회복지시설도 설치하였다. 또한 이때를 전후하여 서울의 종현(지금의 명동) 본당을 비롯해서 여러 지역에 본당이 건설되었다. 1886년 한불수호통상조약을 통해서 선교사들의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기에 이르렀다. 2번째 단계는 신앙의 자유가 공인된 단계로서 1895년부터로 추정할 수 있다. 1895년 고종은 조선 교구장 뮈텔(閔德孝:1854-1933) 주교에게 병인박해 이래 많은 천주교인들이 희생된 일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앞으로 교회와 국가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것을 제의했다. 같은 해 대규모의 사면령을 통해 1866년에 순교한 양반들의 복권도 이루어졌다. 그 후 1899년 뮈텔 주교와 내부(內部)지방국 사이에 체결한 교민조약(敎民條約)은 한국인의 신앙의 자유를 법률적으로 보장했으며, 1904년 프랑스 공사와 외부대신 사이에 체결한 선교조약은 교민조약의 내용을 더욱 보강했다.

개화기의 천주교는 교육과 언론을 통해 애국계몽운동을 전개했다. 이러한 운동의 일환으로 1906년 경향신문의 발간을 들 수 있다. 교육운동에 있어서는 초기에 초등교육 분야에 치중하다가 일제강점기에 들어와서 중등교육기관도 운영했다. 일제의 침략에 반대하며 독립운동에도 참여했으나 선교사들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범 교회적이지는 못했다. 일제의 종교 탄압은 갈수록 심해져서 경향신문이 폐간되고 사범교육기관인 숭신(崇信)학교도 폐교되었다. 그 후 소위 ‘포교규칙’은 교회가 운영하는 학교의 종교교육까지 금지시켰고, 1920년대에 와서는 신사참배를 강요했다. 이러한 일제의 탄압 아래서도 교회는 발전을 계속하여 교구의 수가 9개로 증가했고 새로운 선교단체가 들어오기도 했다. 1942년에는 노기남(盧基南) 주교(1902~84)가 서울 교구장을 맡게 되어 한국인으로는 첫 교구장이 되었다.

[해방 후의 천주교] 8·15해방은 천주교의 발전에도 밝은 전망을 가져다주었으나, 남북 분단은 북한교회의 전멸을 초래했다. 남한에서는 일제강점기에 폐간되었던 경향신문·가톨릭청년·경향잡지 등이 속간되고, 여러 가톨릭 교육기관이 개편되고 활성화되었다. 분단 이후 남한의 천주교는 비약적인 발전을 보여 신자 수가 1962년에는 약 53만 명으로 증가했다. 1962년 한국 천주교는 교계제도 면에서 선교지역의 교구였던 것이 독립된 정식교구로 승격되었고, 1968년에 서울 대교구의 김수환(金壽煥) 대주교(1922~2009)가 추기경으로 서임됨으로써 한국 천주교는 제도적인 발전을 해나갔다. 추기경의 서임으로 한국 천주교는 전 세계 천주교의 주요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참여의 폭이 넓어졌다. 그 후 정진석 추기경, 염수정 대주교가 한국인으로서 세 번째로 추기경에 서임됐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65)이후 한국 천주교는 고조된 사회참여 의식 속에서 교회 쇄신운동에 힘써 1970년대에 시작된 정의구현운동이 일기도 했다.

한국천주교는 창설 및 선교 200주년을 맞은 1984년 교황 요한 바오로2세가 직접 내한하여 참석한 가운데 한국순교복자 103위의 시성식을 거행했다. 1989년에도 요한 바오로2세가 제44차 세계성체대회 참석차 방문했으며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이 윤지중 바오로 등 순교자 124위를 천주교 복자로 선포하는 시복미사 집전과 아시아청년대회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였다.

2015년 현재 한국에는 오백여만 명의 신자와 오천여 명의 신부, 이만여 명의 수도자, 이십여 명의 주교와 두 분의 추기경이 있다. 일천사백여 개의 성당과 일천오백여 개의 공소가 있다.

제 4절 고성의 천주교 전래

1. 최초 전파자

1801년 신유박해와 그 후에 일어났던 1839년 기해박해, 1846년 병오박해, 1866년 병인박

해 등을 피해 신자들이 경상도 북부지방으로 피난을 왔고 전라도지방에서 인접지인 경남 함안, 진주, 고성 등지로 옮겨와 살았다.

고성지역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기 시작한 것은 혹독했던 병인교난(1866)이 있은지 3년 후인 1869년 오회장이라는 분이 고성읍 기월리 양산골에서 은둔생활을 하면서부터이다. 또 다른 한 사람은 함안 조씨 중시조(中始祖)인 조정(趙鼎) 대장군 제23대손인 조관운이라는 사람이 1750년경 함안에서 고성읍 기월리 양산골로 이주해 와서 살았다. 그의 증손자 조형규(1854)가 과거에 응시하기 위해 수차에 걸쳐 서울을 왕래하게 되면서 영세(다윗)를 받고 입교 후 관직에 있다가 천주교인으로 발각 돼 낙향하여 고성지방에 복음을 전파했다고 한다.

그 후 이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인해 1889년에는 공소를 운영할 정도로 신자 수가 늘어나게 되었다.

2. 공소시절

공소란 가톨릭에서 특정 본당(本堂)에 속하는 공식적 교회단위로 주임신부가 상주하지 않는 지역신자들의 모임체로 교우들의 모임장소인 강당(講堂)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 신부가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미사는 집전되지 못하고 공소회장을 중심으로 예비자 교육, 공소 교우들의 교리 교육, 교적정리, 공소재산 관리, 냉담자 권면, 전교 이외에 공소예절이 행해지며, 정기적인 신부의 방문을 통해서만 성사가 집행된다. 우리나라 천주교회의 첫 모습은 공소였고 초기 천주교회 100여 년은 ‘공소시대’ 였다. 즉 우리나라에서 공소는 교회의 모태였으므로 공소의 역사가 바로 교회의 역사라 할 수 있다.

1) 부산본당 관할시절(1889~1900)

1889년 신자 수가 늘어나 고성에 이러한 공소가 생겨나자 고성엔 부산영도본당의 관할이 된다. 1892년 조득하(조수)모세신부가 대평리 장동 허만노(필립보)집에서 처음으로 교우들의 판공성사가 이루어졌다. 3년 후인 1895년 제8대 조선교구장 민덕효(유텔, 아우구스티노)주교가 고성을 방문해 견진성사를 집전했다. 이 때의 신자들의 대표는 오회장과 조재권(다윗)회장이었다.

2) 마산완월본당 관할시절(1901~1904)

경남에 두 번째로 마산에 본당이 들어서자 고성공소는 완월본당으로 이관이 된다. 초대 신부는 엠택기(Emilius Joseph Taquet)로 공소는 기월리 양산골에 소재했고 신자대표로는

허근중(다태오)이었다.

3) 문산본당 관할시절(1905~1925)

1905년 문산공소가 본당으로 승격이 되자 고성공소도 문산으로 이관이 된다. 초대 담임으로는 프랑스인 권유량(Marius Julien)신부였고 후임으로 한국인 김명제 베드로, 김양홍 스테파노 신부였다. 당시 공소는 서재골에 있었으며 신자대표로는 조용형(베드로), 류장수(요한)회장이었다.

이 때 특이할 것은 처음으로 고성공소건물을 건립했다는 사실이다. 그동안 교우들의 집에서 집으로 전전하며 공동체를 운영해 왔던 것을 1920년 당시 회장 조용형이 부지 1,200평을 봉헌하자 뒤따라 1921년 회장 류장수(요한)가 600여 평, 김상재(예로니모)가 270여 평을 봉헌했다. 또한 목재 등 자재조달은 당시 고성객사건물을 불하받은 어느 교우가 객사의 자재를 몽땅 회사해 공소의 기둥과 대들보가 되고 지붕의 기와가 되었다. 당시 동아일보는 이러한 공소건립을 상세히 보도하고 있다.

『동아일보 1925년 4월 30일

천주교당건축(天主教堂建築) 고성교도(固城教徒)들이

경남 고성군에서는 천주교신도가 약 70명이 있다는데 금반(今般)에 모든 교도가 회합하여 성당을 건축하기로 협의하고 그 기지(基地)를 고성면 기월리(基月里) 제곡(祭谷) 뒷산에다 북(卜)하고 그 공사를 월전(月前)부터 시작하였는데 건축비는 대략 1천원을 예산하였다하며 경비는 신도 70여인이 각자 분담하리라고.(고성)』

4) 옥포본당 관할시절(1926~1928)

1926년 거제 국산공소가 본당으로 승격이 되자 고성공소는 문산에서 옥포로 이관이 된다. 옥포본당 담임신부는 한국인 김후상 바오로였고 고성공소는 조용형(베드로)이 회장이었다.

5) 통영신정본당 관할시절(1929~1934)

1929년 통영에 신정본당이 신설되자 고성공소는 다시 거제에서 통영으로 이관이 된다. 초대신부는 송남호 요셉이었고 이민두 다두가 2대 신부였다.

6) 황리본당 관할시절(1935~1938)

고성공소에 비해 당시 황리공소의 교세가 월등하여 황리에 본당을 건립하게 됨으로 고성

공소는 통영신정보당에서 황리본당으로 또 다시 이관이 된다. 황리 본당 초대주임신부로는 신순균 바오로였고 2대 주임신부로는 고군삼 베네딕또였다. 당시 고성공소회장은 허종수(라우렌시오)였다.

3. 고성본당승격

고성지방 교세가 날로 성장함에 따라 1939년 5월14일 기월리 공소가 고성본당으로 승격이 된다. 고성 땅에 천주교가 전파된 1869년 이래 70년 동안 6곳을 전전하며 다른 본당에 소속해 있다가 실로 반세기가 훨씬 지난 후 거둔 성과였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황리본당 2대 주임이던 고군삼 베네딕또신부가 전임이 되고 후임이 발령 나지 않음으로 황리본당은 자연스럽게 고성본당의 공소로 격하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고성본당 초대주임신부로 서정도 베르나르도 신부가 부임을 하고 당시 공소회장이던 허종수(라우렌시오)가 평신도 회장이 된다. 1939년 11월21일, 2대 교구장이었던 뮤세주교가 부임하자마자 고성본당승격이후 처음으로 73명에게 견진성사를 했으며 당시 신자는 약 500여 명이었다.

1) 1차 성당 이전(기월리→무학동)

고성공소가 본당으로 승격을 하였으나 날로 늘어난 신자를 수용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공간과 변두리에 위치해 있어 거리상으로 불편이 많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1940년 고성읍 송학동(무학) 475-1 손상조 소유의 양잠학교(현 고성박물관 터에 있었음)를 대대적으로 보수하여 이전을 했다.

2) 2차 성당 이전(무학동→동외동)

무학동 본당시절에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고 1950년 6.25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공산군이 성당으로 난입해 오기 전 본당 청년들은 성당의 성물들을 미리 수거하여 기월리 허화영(안드레아) 집 뒷산에 급히 매몰을 하는 한편 미군의 공중폭격을 예방하고자 청년들이 흰 페인트로 성당지붕에다 영어로 천주교회라 표기하여 위험에서 벗어나기도 한다.

제4대 주임신부로 3년간 활동하던 정도평(프랑스, 에밀리오)신부가 1948년에 떠난 후 6년간 주임신부 없이 평신도를 중심으로 운영해 오던 고성본당에 1954년 이중현 요한신부가 부임을 해 오자 아연 활기를 띠며 고성읍내 중심지인 동외동 299번지 손상조 소유의 대지

와 건물(현 봉황반점 일대)을 매입해 이전함으로써 무학동 본당을 마감하게 된다.

3) 3차 성당 이전(동외동→성내동)

이전을 해 간 동외동 본당은 일제 때 일본인이 경영하던 병원자리였다. 매입 후 1층은 나환자진료소인 성모병원을 운영했고, 2층은 본당으로 사용했다. 하지만 나환자로 인해 신자들의 거부감이 날로 팽배해지자 새로운 성전을 짓기로 하고 이중현신부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성전벽돌을 30만장이나 손수 찍어놓고 성전 터를 물색을 하게 된다.

새 성당건축예정부지인 성내동176-1(현 성당)도 역시 손상조 씨의 소유였다. 이곳은 손상조의 저택과 목재소, 정미소 등이 있었으나 625로 전소되어 빈터로 남아있었다. 문제는 부지대금 조달이었다. 625전쟁 후 먹고 살기에 허덕이던 시절이라 신자들의 헌금으로는 거의 불가능이었다. 급기야 이재민들을 위해 배당된 구호물자를 팔아 충당을 하기에 이르자 일부 신자들의 오해와 무지로 ‘구호물자를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다’는 기사가 ‘평화신문’에 보도가 된다. 이로 인해 본당신부가 관계기관에 불러 다니는 사태에 이르게 되나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짐으로 오히려 본당건립에 탄력을 받아 1957년 6월16일 건평 109평의 성당과 92평의 사제관을 완공해 오늘의 고성성당을 완성하기에 이른다. 당시 이중현 본당신부는 결핵으로 각혈을 하는 중에도 성전 건립을 무사히 마쳐 주님의 사도로서 모범을 보였으니 그의 공로는 하느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2015년 현재 제 24대 고성본당 주임신부는 황봉철 베드로 신부이다. 그는 오스트리아 인스브룩에서 성서를 10년 동안 공부를 하여 성서 신학박사학위를 받았는데, 한국천주교회에서 2005년에 출판한 새 번역 성서의 번역위원이기도 하다.

제 5절 고성천주교의 성장

1. 고성출신 성직자 수도자 배출

1) 성직자

고성 땅에 천주교가 처음 전파된 것이 1896년이고 본당이 처음 고성 땅에 개설된 것은 1939년이다. 그 후 2015년 지금까지 천주교 전래 119년, 본당개설 76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다. 이 76년 동안 고성천주교회는 양적 질적으로 엄청난 발전을 보였다.

1963년 12월20일 허정식 마태오를 첫 신부를 배출한 이후 지금까지 9명의 신부와 20명의 수도자를 배출하였다.

<성직자>

성명	본명	소속교구또는 수도회	사제서품일	현임지(비고)
허정식	마태오		1962. 12. 20	은퇴
김영식	알로이시오	마산교구	1977. 7. 5	은퇴
허성학	아브라함	"	1977. 12. 28	
허성규	베드로	"	1979. 1. 5	
배진구	베드로	"	1979. 12. 29	
허철수	미카엘	"	1983. 1. 29	
채동호	루도비꼬	"	1988. 6. 29	
이재영	바실리오	"	1992. 8. 19	
장성근	에단	"	2014. 12.30	

<수녀>

성명	본명(수도명)	수도회	입회년월일	현임지	비고(직책)
고박자	눗부르카	베네딕도수도회	1956.12.6		
정인순	이레나	"	"		
김선자	힐라리아	동정성모회			
탁정자	미리암	예수성심시녀회	1959.11.23	포항본원	총장
김성자	그라시아	"	1963.11.16	"	부총장
김숙희	미리암	"	1965.3.25		
임수옥	테레사	"	1981.3.19		
장현남	아벨리나	"	1982.3.16		
강유순	에스텔	"	1984.3.15		
이둘자	안젤라	"	1984.3.15		
최은설	럿다	부산마리아회			
김은숙	럿다	전교자의프란치스코	1979.3.31		
강정숙	베로니카	예수성심시녀회	1988.3.7		
이미경	막달레나	"	1989.3.24		
강명순	라우렌시아	"	1990.10.1		
허영숙	안젤라	"	1990.10.1		
정연오	아갈다	마리아중	1990.3.19		
이연주	마리아	꽃동네	2004.3.25		
이경숙	엘리사	프란치스코	1992.3.25		

<수사>

성명	본명(수도명)	수도회	입회년월일	현임지	비고(직책)
임용년	바실리오	프란치스코회		프린치스코본원	
조동일	요셉				

2. 신자 수

1925년 고성공소건립 당시 신자수가 약 70여 명이었다. 고성본당이 건립된 1939년에는 약500명이었고 본당 건립50주년인 1989년에는 남자866명, 여자 1,163명 합계 2,029명이었다. 2015년 현재 1241세대 2,673명으로 본당 1,143세대 2,399명, 공소 98세대 274명

상리 공소 : 20세대 67명

배둔 공소 : 24세대 81명

황리 공소 : 54세대 126명

3. 각종 심신단체 현황

번호	단체명	구성원	회원수	활동내용
1	사목평의회	11개 분과 15 명	25명	주임사제의 사목활동 보필
2	양业协会	만 65세 이상(남)	25명	본당 협조와 친목
3	대건회	만 55세 이상(남)	26명	전례, 본당행사협조와 친목
4	하상바로회	만 30세 이상(남)	13명	전례, 본당행사협조와 친목
5	성모회	75세 이상 (여)	36명	본당 협조와 친목
6	테레사회	75세 까지 (여)	28명	성소후원, 전례, 본당행사협조와 친목
7	성심회	65세 까지(여)	25명	제대후원, 전례, 본당행사협조와 친목
8	자모회	자녀를 둔 어머니(여)	20명	주일학교 후원과 친목
9	성가대		20명	전례 협조
10	위령회		180명	연도, 입관, 출관, 장례미사 예절돕기
11	군중후원회		158명	군인 후원과 미사참례지도
12	성소후원회		180명	신학생 후원
13	레지오 마리아	1개의 꾸리아와 24개의 뿌리시디움	187명	봉사, 기도, 공부

4. 역대 본당주임신부

〈역대 본당 주임 신부〉

역대순	성명	본명	재임기간	비고
초대	서정도	벨라도	1939. 5-1940. 6	선종
2대	장병용	요한	1942. 6-1943. 8	
3대	최민순	요한	1943. 8-1945. 2	선종
4대	정도평	에밀리오	1945. 5-1948. 4	프랑스 신부
5대	이중현	요한	1954. 5-1959. 3	선종
6대	배휴벨트		1959. 7-1960. 12	미국 신부
7대	김두호	알로이시오	1961. 4-1970. 11	선종
8대	박재근	아우구스티노	1970.11-1972. 12	
9대	이윤호	필립보	1972.12-1976. 1	
10대	박두환	베네딕토	1976. 1-1976. 12	
11대	정영규	마르꼬	1976.12-1977. 9	
12대	김민수	유스티노	1977. 9-1980. 1	
13대	황창건	다두	1980. 1-1984. 1	
14대	김석좌	베드로	1984. 1-1985. 2	은퇴
15대	이강해	스테파노	1985. 2-1988. 10	
16대	김용백	요한	1988.10-1989.7	
17대	조규성	베드로	1989.7-1992.8	
18대	이청준	프란치스코	1992.8-1995.7	
19대	남영철	루도비꼬	1995.7-1999.2	
20대	이재열	안드레아	1999.2-2001.8	
21대	조정제	오딜론	2001.8-2005.1	
22대	임상엽	마르코	2005.1-2008.1	
23대	조영희	아나니아	2008.1-2011.1	
24대	황봉철	베드로	2011.1-현재	

제 2장 기독교

제 1절 기독교의 유래

1) 종교개혁과 프로테스탄트

기독교는 천지 만물을 창조한 유일신인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구약성경(타나크)과 신약성경을 경전으로 삼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종교이다.

구약시대 왕, 제사장, 선지자는 기름 부음을 받은 구별된 직분이다. 히브리어로 메시아(messiah)의 본래 뜻이 바로 기름 부은 자이다. 여기서 메시아는 세상을 구제해주는 주님, 구세주를 뜻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통치 하에서 여호와가 메시아를 보내어 구원해줄 것이라는 믿음을 지녔다.

히브리어 messiah의 그리스어 번역어는 크리스토스(kristos)인바, 여기서 크리스트(christ)가 나왔다.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kristos)를 우리나라 발음에 맞게 음역한 것이고, 기독교(基督)은 복음이 들어올 당시 우리나라는 한자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크리스토스(kristos)를 중국어 음역한 기리사독(基利斯督)의 줄임말이다.

기독교는 크게 가톨릭교회, 그리스 정교회, 개신교로 나뉘어져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개신교를 기독교라 한다.

기독교의 뿌리는 유대교를 모체로 하고 있다. 유대교는 유대인의 유일신 여호와를 믿고 모세의 율법을 기초로 메시아의 도래와 지상 천국 건설을 믿으며 특유의 선민의식을 지니는 유대인의 민족종교이다.

유대교는 구약성경만을 정경으로 믿으며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지만, 기독교는 유대교와는 달리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며 구약성경과 함께 신약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따라서 기독교는 유대교를 뿌리로 하지만, 유대교와는 다른 새로운 종교이다.

기독교의 원류인 가톨릭은 1세기 초 당시 로마제국의 영토였던 팔레스티나 지방의 베들레헬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서기 33년경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삼일 만에 부활함으로써 예수는 세상의 구주가 되었다.

가톨릭은 초기 로마교회를 중심으로 안티오키아, 알렉산드리아,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다.

가톨릭이 사도들에 의해서 처음 전교될 때로부터 300년간 수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흘렸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하고,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 순교하고, 바울로도

로마에서 순교했다. 초기에 많은 신자들은 엄청난 박해와 고난을 받았다.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로마 황제가 되고 313년도에는 로마제국 안에서 가톨릭에 대한 신앙의 자유를 공식으로 인정해 주었고, 380년부터 로마의 국교가 되었다.

그런데 콘스탄티누스가 로마제국의 수도를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로 옮김에 따라 새로운 수도 교회인 콘스탄티노플 교회가 로마 황제의 보호를 받으면서 로마교회에 이어 교회 서열 2위라는 칭호를 듣게 된다. 가톨릭은 결국 로마제국이 동서로 서로 나뉘지면서 로마를 중심으로 서쪽에 있는 교회를 서방교회라고 하며 로마 가톨릭 혹은 가톨릭 교회라고 하고, 동쪽의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는 동방교회, 곧 동방정교회라 했다. 동방정교회는 다시 희랍정교회와 러시아정교회로 갈라진다.

가톨릭교회에서 다시 개신교가 갈라져 나온다. 1513년 새 교황으로 선출된 레오 10세가 성 베드로 대성당의 신축 공사로 인해 돈이 부족해지자 면죄부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는데, 1517년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제시하며 면죄부 판매를 공격한 것이 계기가 되어 종교개혁이 시작되어 결국 가톨릭교회에서 분리된 개신교가 탄생한다. 흔히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Protestant)라고 하는바, 이 말은 1529년 독일 슈파이어 국회에서 루터계 제후와 도시들이 황제 카를 5세 등 로마 가톨릭 세력의 억압에 항거한 데서 유래한 것으로, 이때부터 루터 지지파들은 ‘항의하는 자’ 들이라고 알려졌는데, 후일 루터 지지파들 뿐 아니라 개신교 전체를 뜻하는 말이 되었다.

독일에서 루터를 중심으로 일어난 종교개혁 운동은 스위스에서는 츠빙글리, 제네바에서는 칼뱅에 의해 계승 발전되었고, 영국에서는 성공회가 종교개혁에 동참한다.

2) 기독교의 분파

가톨릭교회에 저항하며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을 얻은 기독교는 16세기 종교개혁을 거쳐서 다양한 분파를 만들며 성장을 지속하였다.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나타난 대표적인 교회가 루터교, 개혁교회(장로교), 성공회이다. 지금 기독교는 수백 개의 교단을 형성하고 있지만, 루터교, 개혁교회(장로교), 성공회에 기원을 두고 있다고 본다.

가. 루터교

마르틴 루터는 교회 안에 들어온 비성경적인 요소들을 제거하려고 했지, 새로운 교파를 만들려고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루터의 의사와는 달리,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1530년 아우구스부르크 제국의회에서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이 확정되었는데, 이것이 루터교의 신조로 형성되었다.

루터교는 처음 '루터란'(Lutheran)으로 불렸는데, 이 용어는 가톨릭 교도들이 '루터를 따르는 놈들'이란 경멸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17세기 이후 신자들 사이에도 자연스럽게 '루터파'(Lutheran)란 명칭으로 사용되면서 루터교로 불리었다.

루터교 교리는 보통 9개 신앙고백문, 즉 '협서'(Book of Concord, 1580년)라 불리는데, 3개의 신앙고백문은 초기 교회의 사도신경, 서방교회의 니케아 신조, 아타나시우스 신조이고, 나머지 6개는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 슈말칼텐 조항, 루터의 대(大) 교리문답과 소(小) 교리문답, 협화신조(Formula of Concord)이다. 이 중 초기 교회의 사도신경, 서방교회의 니케아 신조, 아타나시우스 신조,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만이 모든 루터교가 공통으로 받아들이는 교리로 알려져 있다.

루터교는 전 세계에 걸쳐 있지만, 북유럽과 서유럽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나. 개혁교회(장로교)

종교개혁 교회들은 로마 가톨릭 교회와 구별하기 위해 '개혁교회' 라는 말을 썼는데, 개혁교회들 간 성만찬을 둘러싼 대 논쟁을 계기로 루터 추종자들은 루터파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개혁교회라는 이름은 칼뱅주의를 신봉하는 교회를 가리키는 말로 되고, 칼뱅주의 교회는 교회 정치를 가리키는 장로교회라고 부르게 되었다. 따라서 루터교는 루터의 신학을 표준으로 삼는 것이고, 개혁교회는 칼뱅의 신학을 표준으로 삼는다.

장로교는 칼뱅 신학을 교회 교리의 핵심으로서 받아들이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나, 도르트 신앙고백을 통해서 구체화된다. 특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웨스트민스터 회의(1643.7.1.-1649.2.22.) 기간 중에 작성된 장로교회의 신앙고백서로서 성경의 권위, 하나님의 주권, 양심의 자유 등을 내용으로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가인 존 낙스의 신앙고백과 제네바 신앙고백서의 영향과 함께 전체적으로 칼뱅주의적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본다.

장로교회는 선거로 선출된 장로가 목사를 보필하는 데서 그 이름이 연유하는 것으로, 칼뱅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켜 장로교회를 창립하고, 존 낙스는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회를 세웠고, 이 개혁교회는 유럽 각지로 전파되었다. 루터가 북부 유럽으로, 칼뱅은 서부 유럽으로 각각 뻗어나가 프로테스탄트의 양대 산맥을 형성하였다.

다. 성공회

성공회는 1534년 로마 가톨릭교회로부터 분리해 나간 영국의 국교로, 표면적으로는 헨리 8세의 이혼문제가 발단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영국 성공회(the Church of England)는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불란서, 잉글랜드 등에서 진행된 16세기 유럽 종교개

혁의 일부로 본다. 헨리 8세는 자신의 이혼 문제로 영국교회가 로마로부터 분리하도록 했지만, 종교개혁자 루터에게 반론을 제기해서 신앙의 수호자라는 칭호까지 받은 바 있을 만큼 가톨릭 신학을 포기하지는 않았다. 헨리 8세가 죽고 에드워드 6세가 즉위하면서 독일에 서 루터의 신학을 공부한 캔터베리 대주교 토마스 크랜머 등에 의해 영국의 종교개혁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영국의 종교개혁은 루터나 칼뱅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신학 논쟁보다는 전례를 통한 개혁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영국성공회가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더 개혁해야 한다고 나온 게 청교도이다. 청교도에는 두 가지 분파가 있는데, 하나는 영국성공회로부터의 분리해야 한다는 분파고, 또 하나는 영국 성공회 안에서 개혁하고자 한다는 분파이다. 이 중 전자가 폄박을 받아 미국 폴리머스 지역으로 정착한 것이 청교도들이다.

성공회는 성경 중심, 개혁을 강조하는 청교도 신앙의 많은 부분이 성공회 신앙에서 나왔을 만큼 성서적인 교회로 알려져 있다.

제 2절 우리나라와 고성의 기독교 전래

기독교 복음의 전래는 사도행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온 세상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여, 한반도의 남쪽 고성 땅에도 복음이 전해졌던 것이다.

기독교의 전래는 주후 30년경 설립된 예루살렘교회에서 시작되어 안디옥을 거쳐 서쪽의 에베소, 고린도, 나아가 당시 세계의 중심인 로마까지 선교가 이루어지면서 구라파가 복음화되고 이후 북미대륙으로, 그리고 아시아로, 전래되어 19세기 말에는 우리나라에도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었고, 20세기 초에는 고성지역에도 교회가 설립되었다.

이는 기독교 전래의 서진으로서의 관점으로, 이로 보건대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진 것은 근대 이후가 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동진으로 전래된 고대기독교 전래설도 최근 학자들에 의해서 제기되기도 한다.

1) 우리나라의 기독교 전래

동진 과정에서 보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기독교(여기서는 천주교)가 익명의 전도자에 의해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전래 된 것으로 보는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기독교 복음이 전해진 것은 근대 이후라고 한정할 수는 없다.

사도행전에서는 이런 익명의 전도자들을 '그 흠어진 사람들(행8:4)'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의 제자 도마 같은 경우는 시리아와 인도를 거쳐, 실크로드를 따라 중국까지 왕래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한 대(漢代)에 개척된 실크로드를 따라 기독교가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까지 전래됐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를 두고 고대기독교 전래설이라 한다.

실크로드는 동서를 잇는 횡단축을 넘어 남북의 여러 통로를 포함해 동서남북으로 사통팔달한 하나의 거대한 범세계적 교통망이라는 게 최근의 연구 결과이다. 천주교가 우리나라와 첫 접촉이 1593년 임진왜란을 통해서라는 것과 기독교가 1832년 독일 루터교 목사인 귀츨라프의 내한으로 이루어졌다는 것과는 또 다른 관점이 바로 기독교 고대 전래설이다.

1987년 경상북도 영풍군 평은면 왕유동(王留洞)에서 발견된 도마의 분처석상(分處石像)을 두고 고대 기독교 전래설의 한 근거로 주장하기도 한다. 이 상의 높이는 약 5m, 가슴너비는 약 3.3m, 상면과 암면(岩面)에는 음각한 3점의 명문(銘文)이 새겨져 있는데, 상의 좌측 암면에는 '도메'라고 볼 수 있는 히브리어가 새겨져 있는바, 이를 두고 '성 도마상(像)'이라고 보는 것이다. 또 상면 하단에는 '야소화왕인도자'(耶蘇花王引導者)라는 글과 '명전행'(名全行)이라는 한자 명문이 새겨져 있다. 이는 1908년 중국 둔황(敦煌)에서 발견한 흔히 그리스도상이라고 추정되는 경교화상(景教畫像)의 수세와 흡사하여 기독교적 흔적으로 간주한다. '야소화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자'는 전도자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최근 기독교 전래사를 연구하며 『불국사에서 만난 예수』를 낸 최상한 교수가 “옛 기록을 보면… 무슬림은 신라, 고려, 조선 초기까지 한반도 역사에 꾸준히 등장하지만, 그리스도교에 대한 분명한 기록은 임진왜란 이후에야 조금씩 보인다. 이슬람교보다 600여년 앞서서 발생한 그리스도교가 고대 한반도에 유입되지 않았다면 이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한 것도 고대기독교전래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최교수는 조선·고려·발해·신라사를 더듬어가면서 기독교의 고대 한반도 전래설을 둘러싼 수수께끼들을 다루면서 1950년대 경주 불국사 경내에서 출토된 마리아 성모상과 돌 십자가 유물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고대기독교 전래설은 아직까지는 하나의 설에 불과하고, 기독교의 우리나라 전파는 근대 이후로 보는 것이 정설이다.

1832년 영국 런던 선교회 파송 선교사인 귀츨라프가 정식 선교사의 신분이 아닌 통역 겸 선의로 승선하여, 성경 등 전도 문서와 작은 선물을 배에 싣고 와서 백령도 주민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리나라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인 영국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함으로써 복음의 씨앗이 비로소 제대로 뿌려졌다. 1866년은 흥선대원군의 천주교 탄압

을 구실로 삼아 외교적 보호 명분을 앞세워 로즈 제독이 이끄는 프랑스 함대 7척이 강화도를 점령한 병인양요로 인해 조선의 쇄국정책이 한층 강화되었다. 이때 영국 웨일스 출신인 토마스 선교사는 27세 때인 1866년 조선 선교를 위해 미국 상선 제너럴서먼호를 타고 평양 대동강가에 올라왔으나, 조선 군인들에 의해 서먼호는 불타고 토마스는 성경 몇 권을 가슴에 품고 나왔지만, 병졸 박춘권에 의해 목이 잘리며 대동강변 모래사장에서 순교의 피를 흘렸다. 토마스 선교사는 우리나라에서 개신교 목사로서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다. 1866년 9월 2일, 토마스 목사의 나이는 27세였다.

후일 박춘권은 토마스 목사가 준 성경을 통하여 예수를 믿고 평안도 안주교회의 영수가 되었으며, 그 성경을 뜯어 벽지로 찢던 영문주사 박영식 집이 훗날 평양대부흥의 발원지인 장대현교회가 되었고, 박춘권의 조카 이영태도 예수를 믿고 미국의 래널즈 선교사의 조사로서 한국인 성서번역위원회의 한 사람이 되었다.

한편 실제적인 한국 개신교 선교의 문을 연 언더우드 선교사가 1885년 우리나라에 최초로 복음을 전할 때 이미 한국어로 된 성경이 있었고, 성경을 보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생적인 신자들도 있었다. 1872년 중국선교사로 파송된 스코틀랜드 연합장로교 선교사인 존 로스(John Ross, 羅約翰), 맥킨타이어(McIntyre, 馬勤泰) 등은 만주 지역에 산재해 있는 한국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첫 세례를 베풀었다. 특히 로스 선교사는 1882년에 최초의 한글성경, 곧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간행하였고 백홍준, 서상륜에 의해 1883년부터 매서전도가 시작되었으며, 1887년에는 첫 한국어 신약성경본인 『예수성경전서』(Ross Version)를 간행되었다.

따라서 만주지방에서 선교하였던 스코틀랜드 연합 장로교회 선교사들은 한국의 자생적인 한국교회의 형성에 기여했다.

1880년대에 접어들며 본격적인 선교의 문이 열렸는바, 여러 나라 교파가 비슷한 시기에 내한하여 선교활동을 펼쳤다.

한국에 선교사를 파송한 대표적인 교파는 장로교로는 미국의 북장로교회, 남장로교회, 캐나다 장로교회, 빅토리아 장로교회(호주장로회)이고, 감리교회로는 미국 북감리교회와 남감리교회이다. 침례교회와 성결교회도 선교사를 파송했다.

내한한 선교사들은 선교 활동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서울과 평양 등 대도시는 각 교파가 서로 협조하여 공동 선교를 펼쳤고, 그 외 각 지역을 분할하여 효과적인 선교를 하였다.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알렌(H.N. Allen)이 미국 공사관의 의사로 1884년 9월 입국하한 것을 필두로, 북장로교회는 알렌에 이어 언더우드 선교사를 파송했다. 북장로교회는 서울을 비롯하여 평양, 평안도, 경북, 경기도, 황해도 지역을 선교했다.

미국 남장로교회는 1892년 11월 3일 전위럼(W. M. Junkin) 부부, 이눌서(W. O. Reynolds)부부, 두 명의 독신여성인 데비스(Linnie Fulkerson Davis), 테이트(Martha Samuel Tate), 그리고 한명의 남성 싱글인 테이트(Lewis Boyd Tate)을 파견했다. 남장로교회는 군산, 전주 등 전라도 지역을 선교했다.

캐나다장로회는 1898년 9월 푸트(W R Foote · 富斗一) 목사 부부, 그리어손(Dr. Robert G Grierson · 具禮孫) 의사 부부, 그리고 맥래(D McRae · 馬具禮) 목사를 한국에 파송했다. 캐나다 장로교회는 원산을 중심으로 함경도 지역을 선교했다.

1885년 4월에 아펜 젤러(Henry G. Appenzeller)를 파송한 미국북감리회는 강원도 원주, 충청도, 황해도 일부와 평양 지역을 선교했다.

남감리교회는 1895년 10월에 리드(Clarence F. Reid)를 필두로 여러 선교사를 파송하였다. 남감리회는 강원도 지역을 주로 선교했다.

미국침례교 선교 단체인 엘라딩기념선교회에서도 1895년 파울링 부부와 가데린(A. G. Gardeline)을 파송했으며, 다음해 스테드맨(F.W. Steadman), 에클스, 엘머 선교사 등을 파송했다.

이어서 성결교는 1907년 우리나라에 소개됐고, 구세군은 1908년 10월 1일 영국인 호가드(Colonel Hoggard, 한국 이름은 허가두) 정령이 입국하여 1909년 구세군사관학교를 설립하고, 1910년에는 구세군 한국본영이 설치되었다.

2) 고성지역의 기독교 전래

가. 호주선교사의 할당 구역 고성

고성에 기독교가 전래된 것은 호주선교사들이 헌신한 결과였다. 1880년대 이후 여러 나라 다양한 교파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질 때 각 지역을 분할하여 선교한 결과, 부산 경남지역은 호주 선교사들에게 할당되었다. 따라서 경남지역에 속한 고성에 복음이 전해진 것도 호주 선교사들에 의해서이다. 부산에서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로는 캐나다 선교사인 게일(James Scarth Gale, 1863-1937)과 의사 하디(Dr. Robert A. Hardie) 부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질적인 부산 경남 지역 선교는 호주선교사들에 의해 이루어졌던 것이다.

호주의 빅토리아주 장로교회의 한국 선교는 1889년 10월 데이비스(Rev. Joseph Henry Davies) 목사와 그의 누이 데이비스(Mary T Davies)가 시초이나, 데이비스 선교사는 한국에 온 지 겨우 6개월 후인 1890년 4월 4일, 부산에서 세상을 떠났다. 데이비스 선교사가 한국에서 순교한 후 누이 메리도 건강이 좋지 못해 멜본으로 돌아가 한국선교를 강조했다.

이후 빅토리아주 장로교 청년연합회와 여전도회연합회(PWNU)는 1891년 10월 매카이(Rev. J Mackay) 목사 부부와 미혼 여선교사, 멘지스(B Menzies), 페리(J Perry), 퍼셋(M Fawcett) 등 5명을 한국에 파송하여, 부산을 거점으로 경남지역 선교를 활발하게 전개했다.

이후 매카이 목사 부부는 건강상의 이유로 1893년 한국 떠났고, 다시 런던 장로교회 소속의 안드레 아담슨(Andrew Adamson, 한국명: 손안로) 선교사를 파견했다.

아담슨 선교사는 1894년 5월 20일 아내와 두 딸 바이올렛과 마벨과 함께 부산에 도착했지만, 그의 부인은 1895년 12월 27일 34세의 나이로 소천했다. 이후 아담슨 선교사는 1914년 한국에서 은퇴할 때까지 20년 동안 부산(1894-1909)과 마산(1910-1914)에서 사역하면서 고성에 복음을 실질적으로 전한 장본인이다. 아담슨 선교사는 이미 파송되었던 멘지스, 페리, 퍼셋 등의 처녀 선교사들과 같이 활동을 하였다.

빅토리아주 여전도회 연합회에서는 1900년 10월 29일 겔슨 앵겔(Gelson Engel, 1864~1939)도 파송했다. 그는 왕길지 목사로 더 잘 알려진바, 초기 경상남도의 교회설립과 함께 평양신학교 교육에 주춧돌을 놓았으며, 호주선교사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로 평가 받았다.

부산과 경남지역 선교에서 아담슨 목사가 마산과 거창, 진주를 중심으로 경남 서 부지역을, 앵겔은 울산과 함안 등 동남부지역을 각각 맡아, 선교 활동을 분담했다.

또한 한센씨 환우들의 성자라 불리는 메켄지도 1910년 내한하여 1939년까지 한센씨 환우들을 위해 봉사했으며, 그의 딸 헬렌 메켄지도 1952년 내한하여 20년 동안 헌신했다.

왓슨(한국명 왕대선)은 1910년 내한하여 고성 선교에도 많은 헌신을 하며 1941년까지 선교활동을 펼쳤다.

이런 선교사들의 헌신으로 호주장로교 선교부가 1891년 부산 초량에 선교지부 설치를 필두로 1905년에 진주지부, 1911년에 마산지부, 1913년에 통영지부와 거창지부를 설치하며 전도 교육 자선 의료 활동을 펼쳤던 것이다. 고성 지역은 통영지부 관할에 속했다. 호주장로교 선교부는 통영지부에 왓슨 선교사를 담당자로 하고, 그의 아내 비어드와 여선교사 무어, 의료선교사 테일러(Dr. William Taylor 한국명: 위대인) 부부를 함께 하도록 했다. 통영지부가 설치되면서 고성지역은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았다.

나. 아담슨과 왓슨의 헌신과 고성지역 교회 설립

호주장로교 선교부가 통영지부를 설치하기 이전에 이미, 1905년에 구만교회와 배둔교회(지금의 회화교회)가, 1908년에는 고성교회가 이미 설립되어 있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인 솔내교회가 1883년 5월 16일 한반도 북쪽 황해도 솔내에 세워졌고, 부산경남 지역에서는 1892년 부산진교회(1891년으로 설립으로 보기도 함)가 1894년에

는 김해교회가, 1901년에는 문창교회가 세워졌는바, 고성지역도 비교적 이른 시기에 교회가 세워진 셈이다.

고성 지역에 비교적 이른 시기에 복음의 싹을 틔워 교회가 세워진 것은 앞에서 열거한 것과 같이 호주선교사들이 부산 경남 지역선교에 매진한 가운데, 특히 아담슨과 왓슨의 헌신적인 선교 활동에 기인한다.

아담슨은 1913년 통영지부가 설립되기 이전에 이미 고성에 복음을 전하여 고성지역에 최초로 교회를 세웠다. 아담슨은 1894년부터 1909년까지 부산을 중심으로 활동하였고, 1910년부터 1914년까지는 마산에 거주하며 서부 경남지역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전반기 아담슨이 부산을 중심으로 설교활동을 펼치는 가운데서도 마산, 통영, 진주 나아가 고성에까지 순회 전도를 하면서 경남 지역에 여러 교회를 설립하였다. 이미, 기록에 의하면 1894년부터 1909년 부산 중심의 선교활동 기간에 이미 부산, 진주, 마산, 통영 지역에 많은 교회를 설립하였는바, 그 중 고성지역에도 1908년 고성교회 설립은 물론이고, 고성지역 최초의 교회인 1905년 구만교회와 회화교회(설립당시는 교회명은 화양교회)도 아담슨 선교사가 설립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구만교회와 회화교회 양 교회는 설립자를 왕대선 선교사라고 『구만교회 2009년도 요람』과 『회화교회 100년사』에서 각각 밝히고 있다.

『구만교회 2009년도 요람』에서 “호주인 왕대선(R. D. Watson) 선교사가 진주에서 구만면으로 옮겨와 당시 구만면 시장도로 앞 ‘밀양댁’에서 구만교회를 개척하면서 기독교가 전파되기 시작했다. 왕대선 선교사는 이상춘, 최낙병 씨를 중심으로 당시 화폐 25원으로 12평 크기의 예배당을 건립했던 것이 구만교회의 시작이다.”라고 설립자가 왕대선 선교사임을 밝히고, 『회화교회 100년사』에서도 “1904년 호주 선교부 소속 왕대선 선교사가 진주에서 말을 타고 구만면에 이르러 마을을 살펴보니 이곳에 교회를 세워야겠다고 결심하고 선교활동을 하다가 이듬해(1905년) 회화 지역에서 전도를 시작하여, 하나님을 믿은 몇 명과 왕대선 선교사는 예배 처소의 필요성을 느껴 회화면 안의동 827-40(구, 진양여관)을 기도실로 시작한 것이 당시 화양교회의 창립 배경이었다.”라고 역시 왕대선 선교사가 설립자임을 공히 적시했다.

『회화교회 100년사』의 지적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구만교회가 회화교회보다 먼저 설립된 것에는 이견이 없다. 고성지역에서 구만교회가 최초의 교회이고, 회화교회가 두 번째로 설립된 교회가 된다.

그런데, 두 교회 모두 설립자가 왕대선 선교사라고 기록하고 있는 대목에 대해서는 왕대선 선교사의 입국이 1910년 12월 23일인데, 그 이전에 이미 설립된 구만교회와 회화교회의

설립자가王大善 선교사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 것이다.

서철수의 논문 「고성지역 초기 개신교 선교역사 연구」(2011)에서 양 교회 기록과는 달리, 아담슨 선교사가 설립자라고 논구한다.

이 논문은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에서 회화교회의 설립자를 아담슨이라고 하는 기록을 근거로 해서, 다음과 같이 추론한다.

첫째, 배둔지역은 마산에서 고성지역으로 들어오는 관문에 입지하고 있다. 당시의 선교사들은 주로 순회선교를 다녔다. 마산지역을 담당하여 순회전도를 하고 다니던 아담슨이 마산에서 고성과 통영으로 넘어오며 순회 전도 하는 과정에서 제법 큰 마을인 배둔에 머물며 전도하여 믿는 자가 생겨남으로 그곳에 사람들로 하여금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함으로 이미 배둔교회가 세워졌다. 둘째, 교회가 세워진 후에 왓슨은 당회장으로 섬겼거나 혹은 순회목사로 섬겼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가정해 볼 수 있는 근거는 1913년 12월 31일 마산포교회에서 열린 제7회 조선예수교장로회 경상도노회록의 기록에 “왕대인씨의 지경은 통영, 고성, 거제”로 되어 있는 대목이다. 그리고 그가 1913년 통영지부가 설립되어 책임자로 맡기 전에 동래, 기장, 언양, 울릉도, 양산, 김해, 밀양, 영산, 창녕 등을 순회하며 지방 선교사업을 한 것도 이를 뒷받침해 준다. 그렇다면 배둔교회의 설립자는 누구인가?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아담슨 선교사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위와 같은 맥락으로 구만교회의 설립자도王大善 선교사가 아닌, 아담슨 선교사로 보는 관점이다.

王大善 선교사가 1905년 경에 고성지역 최초로 설립된 교회에 속하는 구만교회와 회화교회 설립자로 알려진 과는 달리, 앞서 지적한 것과 같이 호주 청년연합회의 후원으로 1910년 부산 경남선교부에 부임하여 부산 경남 지역 선교를 담당하다가, 1913년 통영선교부의 설립과 함께 책임자로 파송되어 고성지역 교회에도 당회장 자격으로 교회를 돌보고 새내기 목사들의 목회도 돕고 가르치는 동사무사로도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王大善 목사는 그가 세웠다는 구만교회, 회화교회 외에 1916년 은월리교회, 1920년 월흥교회 등 고성지역에 교회를 세운 기록이 나온다.

아담슨 선교사와王大善 선교사에 의해 고성지역에 복음이 전래되고, 교회가 처음 세워지면서 복음이 고성전역으로 전해지게 되었다. 고성지역에 최초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운 분은 아담슨 선교사이고,王大善 선교사는 초창기 세워진 교회들의 터를 든든히 하며 자리를 잡게 하는 역할을 주로 했다.

고성지역에 복음이 들어온 초창기에 세워진교회는 구만교회, 회화교회, 고성교회, 은월

리교회, 월흥교회 외에도 1912년에 연화교회, 1916년에 성곡교회가 각각 세워졌다.

한편 1905년 설립된 회화교회는 녹명교회와 어신교회를 개척했고, 고성지역의 대표교회인 고성교회는 고성제일교회, 덕선교회, 대흥교회, 장산교회 등 고성지역 내 여러 곳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는 모체 역할을 했다.

제 3절 고성지역과 교회

1) 교회의 역할

대한민국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짧은 기간 동안 가장 성공적인 근대국가로 정착했다는 평가를 받는데, 그것은 경제성장과 아울러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사례로 그 유래를 찾기 힘든 경우에 속한다. 전 근대적 왕조체제와 식민지 경험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근대화에 성공한 것은 그 근저에 기독교가 있었던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한국의 기독교는 한국사회를 근대화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것이다. 오랜 동안 중국 대륙문명으로부터 앞선 문화를 받아들이며 그런 전통 속에 간혀서 생활해 오다가 19세기말 한반도에 몰아친 서양문명의 파고를 맞으면서 위기국면에 처하게 된다. 이에 대응하는 두 가지 지식인의 부류가 있었는데, 하나는 문명개화파였고, 또 하나는 위정척사파였다.

기독교 계통의 선각자들은 전자에 속하면서, 선교사들과 미국 등 유학을 통해서 개인의 존엄성, 곧 인간이 사는 궁극적인 목적이 개인의 자유와 자기실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미국 등의 자유주의에 사상적 기반을 두면서 조국의 근대화에 앞장서게 된다.

기독교는 한국사회에서 선각자로서의 당시 개화와 구국이라는 사명을 다하면서 당시 사회의 적폐를 해소하는데 앞장섰다. 구습타파 및 신분타파, 남녀평등으로서 여성의 권리 신장과 아울러 사회참여 확대, 비합리적인 우상숭배나 미신에 대한 맹신 퇴치 활동 등 근대적인 생활의식을 구축하는데 기여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단순한 종교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신교육을 위한 학교 건립, 근대적 병원 설립, 사회단체 구성 등 여러 분야에서 근대사회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기독교는 일본제국주의가 조선을 강제로 병탄하면서 일제의 횡포와 억압에 시달리는 가운데 전혀 소망이 없다고 느낄 때 위안이 되고 희망의 등불이 되어주면서 조국 독립의 열망을 키울 수 있게 했다.

한국교회가 기미독립운동에 크게 기여한 것도 주지하는 바이다. 1919년 3월 1일 서울 태화관에 민족대표가 모여 최남선이 기초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였는데, 이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 중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

3월 1일 시작된 기미독립운동이 빠른 시간에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기독교인의 역할이 컸음은 물론이다. 당시 교통과 통신이 원활하지 못한 가운데 한국 교회의 조직을 통해서 빠르게 전파된 것으로 본다. 기미독립운동이 일어난 1919년에 이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를 중심으로 각 지역을 대표하는 노회가 지역마다 조직되어 전국 교회가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다.

고성 지역에서도 1919년 3월 20일 회화면 배둔리 배둔장터와 국천시장에서 800여명이 모여서 독립만세운동을 벌였다. 기록을 찾을 수는 없지만 당시 구만교회, 회화교회가 설립되어 있어 기독교인들의 참여도 컸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성읍에서는 1919년 기미독립운동의 소식을 들은 고성교회 배만두 집사는 3월 15일 밤 철성의숙을 열어 신교육에 힘쓰고 있던 박진환의 집에서 이상은, 김상욱과 같이 진주 사람 이주현을 만나 고성에서도 3차에 걸쳐 독립만세운동을 펼칠 것을 약속하고 세부계획을 세웠다. 1차 의거는 배만두 집사의 책임 하에 학생을 동원하기로 했는데, 거사일인 3월 17일 새벽에 일본 헌병에게 거사 계획이 발각되어 배만두 집사는 가택수색과 아울러 체포되고 말았다. 그러나 배만두 집사는 구금되어 가혹한 고문을 받는 와중에도 끝까지 비밀을 지켜 3월 22일 고성읍 객사(구 고성보건소 자리)에서 임도근, 이상은, 이상희, 황관석, 김정도 등 많은 기독교인들이 앞장 서서 참여한 가운데 대규모 독립만세운동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 이 거사 후 배만두는 구금 중 탈출하여 만주로 가서 그곳에서 신흥무관학교에 입학하여 1921년 졸업하고 독립운동을 펼쳤다. 독립운동 투신으로 병을 얻어 1939년 은밀히 고향으로 돌아와 조선물산운동 참여와 회사를 세워 수입금을 독립자금으로 사용하고, 해방 후에도 고향에 남아 사회단체활동과 육영사업을 하며 고성의 후학들을 기르며 고성지역 발전에 큰 획을 그었다.

일제강점기 하에서 고성지역에서도 고성기독교청년회 찬양대 등을 중심으로 서양식 음악 연주회를 개최하여 고성지역에서 근대음악을 선보였고, 고성청년회와 언론사와 같이 공동으로 구제음악을 개최하는 등 고성지역의 교회는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근대적 삶의 기틀을 구축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2) 고성지역 대표교회

고성지역 최초로 1905년에 구만교회와 배둔교회(지금의 회화교회)가 세워졌고, 3년 후 1908년 고성군 소재지인 고성읍에 세워진 고성교회가 고성의 대표교회로 성장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고성교회는 “1908년 11월 1일 김학규, 이백행 씨 등이 손안로(Rev. Andrew Adamson) 선

교사에게 전도를 받아 동외동 자택에서 김태건, 김복선, 박윤재, 송응범 등으로 예배를 보다” 라는 고성교회 사기 기록을 토대로 창립일을 1908년 11월 1일로 잡고 있다.

『고성교회 100년사』에서 밝힌 손안로 선교사가 고성읍 지역을 선교하기 위해 고성읍 지역을 방문하여 처음 전도 대상자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계기로 고성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가 탄생한 일화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김정수 씨의 할아버지께서 남산 언덕배기에 있는 밭에 시비(施肥)하기 위해 인분(人糞)이 든 장군을 지고 밭에 나갔더니 머리가 노란 서양인이 남산을 넘어 걸어오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그래서 밭에 지계를 벗어 놓고 시비하던 것을 중단하고 그 서양인과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고 난 후 집으로 모시고 와 그로부터 장시간 이야기(복음)를 듣고 하나님을 구주로 믿는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 이 내용의 증언을 배영 장로님께서 김정수 씨로부터 듣고 말씀해 주심으로 손안로 선교사가 통영에서 고성읍으로 전도 오게 된 과정을 알 수 있었고, 여기에서부터 고성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가 탄생하는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이 조그마한 믿음의 씨앗이 장성한 나무로 성장하는 가운데 크고 작은 시련이 있었으나 그 어렵고 힘든 과정을 기도로써 잘 견디어 내고, 이제 무성한 숲을 이루어 수많은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일깨우게 하는 귀중한 신앙의 중심지로 자리잡게 되었다.

고성교회는 1908년 11월 가정집에서 첫 예배를 보기 시작한 후 1909년 1월 10일 성내동(현재 성내리)에 초가 5칸을 매입하여 예배당을 사용할 만큼 빠른 성장을 보였다.

1908년 고성교회가 설립되고서 첫 교역자로 손안로 선교사가 시무하면서 그 다음해인 1909년 4월 28일 김복선, 안문범, 박윤재, 윤상신, 김금성, 이마리아, 김순선, 김태호 등 고성교회 첫 세례교인을 배출하였다.

이렇게 처음은 미약하게 출발했으나, 오늘은 고성지역을 대표하는 교회로 우뚝 섰다.

풍전등화 같은 조국의 암울한 상황에서 강대국들의 침략이 노골화되는 가운데, 고성읍에서 처음 창립된 고성교회는 신교육기관인 명신학교를 설립하여 고성지역의 신교육을 실시했고, 일제감정기와 6.25전쟁 같은 민족 수난기를 함께 하며 애국운동과 계몽운동을 하며 복음선교와 지역사회 봉사를 펼쳐 지역사회에 신뢰를 받아왔던 것이다.

현재 고성교회는 조승호 담임목사가 시무하면서 성서적이고 복음적인 개혁교회의 신앙을 바탕으로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통합측)에 소속된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닮는 데까지 성장하게 하며, 역동적인 예배와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 서로 받은 은사에 따라 섬김의 삶을 살게 하는 교회를 비전으로 매진하고 있다.

3) 고성지역 교회현황

고성에는 아담슨 선교사와 왓슨 선교사 등에 의해 고성지역에 복음이 전래되어, 1905년에 고성지역 최초로 설립된 구만교회와 회화교회, 고성지역을 대표하는 고성교회를 비롯하여 많은 지역교회들이 설립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헌신을 지속해왔다. 그런 가운데 1982년에는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선교, 단합, 교제를 목적으로 고성군기독교연합회가 조직되었다. 고성군기독교연합회는 관내 기독교회들의 연합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숭고한 사랑과 희생정신을 바탕으로 고성군 지역과 이웃을 최선으로 섬기는 일을 한다.

고성군기독교연합회의 주요 사업으로는 고성군의 발전과 기관들을 위한 신년 조찬기도회(관내 기관장 초청), 신년 연합 부흥성회, 부활절 연합예배,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기도회(3.1절, 6.25사변일, 8.15광복절), 고성군수 초청 간담회, 고성군 청소년을 위한 토크(talk talk) 콘서트, 불우 이웃 사랑 나누기, 고성 빛의 거리 축제, 성탄트리 점등식 및 연합예배, 그리고 고성군성시화운동본부의 고성군발전과 성시화를 위한 금요조찬기도회 협력 등이다.

고성군내 기독교연합회 소속 교회는 예장통합이 19개 교회, 예장고신이 18개 교회, 예장합동이 12개 교회, 성결이 7개 교회, 순복음이 3개 교회, 감리가 2개 교회, 합동정통이 2개 교회, 예장재건이 2개 교회, 침례가 1개 교회, 중앙총회가 1개 교회, 합동개혁이 1개 교회 개혁이 1개 교회 총 69개 교회가 있다.

고성군기독교연합회 소속교회 현황

교단명	교회명	주 소
예장통합	개천교회	개천면 옥천로 1277
	고성교회	고성읍 중앙로 25번길 12번지
	구만교회	구만면 효락2길 89-12
	녹명교회	회화면 녹명길 22-8
	대흥교회	대가면 대가로 443-19
	덕선교회	고성읍 선동안길 36
	망림교회	상리면 망림1길 37
	상리교회	상리면 척변정리 379-6
	성곡교회	영오면 영희로 419
	성산교회	고성군 동해면 외산로 58-14
	송계교회	대가면 송계4길 102
	연화교회	영현면 연동길 42
	영부교회	영현면 영부2길 60

	오방교회	하일면 오방안길 103-9
	월흥교회	하이면 월흥3길 234
	장산교회	마암면 옥천로 382-6
	장춘교회	하일면 자란만로 1126-15
	학림교회	하일면 학동돌담길 27
	회화교회	회화면 배둔로 112
예장고신	고성동부교회	거류명 안정로 1228-18
	고성온양교회	고성군 거류면 신용리 2044
	고성제일교회	고성읍 중앙로 15번길 47
	고성한내교회	동해면 동해로 808
	당동교회	거류면 당동5길 32
	동화교회	동해면 조선특구로 763
	동해중앙교회	동해면 장기4길 117
	맥전포교회	하일면 춘암1길 27
	삼산교회	삼산면 미룡2길 75-14
	성산교회	거류면 감서5길 97
	성진교회	고성읍 교사4길 171-8
	송천교회	하일면 자란만로 1547
	영대교회	영오면 영회로 351
	월평교회	고성읍 월평5길 32-22
	청광교회	개천면 영화로 1271
	하이교회	하이면 덕호3길 18
	하일교회	하일면 학림2길 46-3
	한마음교회	대가면 대가로 1082
예장합동	고성섬김의교회	고성읍 남포로80번길 102
	당향포교회	회화면 당향길 89-8
	대가중앙교회	대가면 무량로 249
	동해교회	동해면 동해로 1623
	부포섬터교회	상리면 부포5길 68-16
	새생명교회	고성읍 기월1길 2
	샘물교회	고성읍 남포로 51
	성실교회	고성읍 중앙로80번길 9
	예수영광교회	삼산면 병산3길 519-20
	읍실교회	영오면 영회로 132-26
	화산교회	마암면 화산리 423-3
	회화제일교회	회화면 배둔로 84-3

성결	고성중앙교회	고성읍 남산로 69
	동산성결교회	고성읍 송학고분로 344번길 41
	마암교회	마암면 도전4길 8
	방산성결교회	거류면 용산안길 21
	삼봉교회	삼산면 공룡로 1754-68
	소가야교회	거류면 가려3길 6-14
	수양성결교회	하일면 수양1길 67
순복음	고성순복음교회	고성읍 우산2길 312
	고성순복음중동교회	고성읍 동외로 133
	양산순복음교회	영오면 양산2길 53
감리	고성복된감리교회	고성읍 남포로 108-4
	선한이웃교회	영오면 영희로 9
합동정통	늘푸른교회	동해면 조선특구로 1526
	도전평화교회	마암면 도전3길 66
예장재건	배둔중앙교회	회화면 배둔로45번길 3
	은월리교회	거류면 은월6길 3
침례	고성침례교회	고성읍 동외로27번길 58
중앙총회	반석교회	거류면 당동8길 152-8
합동개혁	천성교회	고성읍 성내로 137
개혁	행복한교회	구만면 주평2길 77

참고문헌

건국 60주년 기념세미나 준비위원회, 건국 60주년 기념세미나자료집 『대한민국, 근해화와 기독교』, 2008년 6월 18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고성교회 100년사 편찬위원회, 『고성교회 100년사』, 2008.

권순형 엮음, 『호주 선교사들이 뿌린 복음의 열매』, 크리스찬리뷰, 2010.

김영재, 『한국교회사』 개정3판, 합신대학원출판부, 2009.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9.

서영석, 「한국 기독교가 한국 근대사회에 미친 영향」, 한국시민문화학회, 『시민문화春秋』 제11호(2011년 봄).

徐哲洙, 「고성지역 초기 개신교 선교역사 연구」, 한남대학교 학제신학대학원, 2011

충무교회 100년사 편찬위원회, 『충무교회 100년사』, 2008.

회화교회 100년사 편찬위원회, 『회화교회 100년사』, 2005.

제 3장 불 교

제 1절 고성의 불교 전통

불교는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으니,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그 인연 이치를 살피서 바르게 살자는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상이자 종교이다.

고성지역은 그 유구한 역사만큼이나 오랜 불교 전통을 간직하고 있다. 문헌이나 기록이 오늘에 까지 전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일일이 상고하기에 어려운 점도 있지만, 오래된 사원에 전승되는 유물과 지표상의 자취를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모두가 지역문화의 결집물로 소중한 문화자산이라 하겠다.

두루 알려져 있듯이, 신라사에서 불교가 공인된 것은 527년(법흥왕 14)으로 6세기에 들어서의 일이다. 하지만 민간에서 불교가 처음 받아들여진 것은 그보다 훨씬 이전의 일이었고 그것도 왕경(王京)이 아닌 지방에서였다. 국교(國敎)로 공인된 불교는 더욱 대중화되었고 신행 공간인 사원의 기능도 점차 확대되어 갔다.

기록을 통하여 고성의 불교를 전하는 대표적인 사원은 옥천사로 의상(義湘)의 전교에 힘입은 것이었다. 그러나 그 자취를 살펴 말한다면, 오늘날 고성읍 교사리를 비롯해 대가면 양화리, 회화면 삼덕리 등 여러 권역에 걸치고 있어 그 문화의 광범성을 짐작할 수 있다.

고려시대에 이르러 불교는 ‘수신지도(修身之道)’로 기능하면서 불가(佛家) 국가로의 면모를 더하게 하였다. 이 시기 문화의 융성함은 불교 문물들이 그것을 잘 표징(表徵)하였으며, 그리하여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국가적 위난을 당하면서도 유감없이 그 신심이 표출되어 이를 극복하는데 이바지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의 산물인 각종 불전(佛典)들과 대장경은 세계유산으로서 한국문화를 표상하게 되었는데 고성사람들도 이에 적극 동참하였다.

조선시대 고성지역의 사찰과 소속 승도들은 임진왜란을 당하여 전선에 직접 나서 왜적에 대응하는 등으로 호국불교의 전통을 확인시켜 주었으며, 한편으로 어람지(御覽紙)로 대표되는 최고급 종이를 생산 공급함으로써 출판 인쇄를 매개로 하는 문화국가 조선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였다.

해방 후 고성의 사암들은 많은 고승(高僧)·대덕(大德)을 배출하여 일제강점으로 인해 단절된 한국 불교의 전통을 회복하는데 앞장서게 하였다. 이들이 머물렀던 사찰들은 오늘에도 많은 학생들이 상주하고 있으며, 각지에서 순례자들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되고 있다.

제 2절 고성 불교 역사

1) 신라시기 불교와 고성

고성지역에는 언제부터 불교가 전래되었을까? 이에 답할만한 사적은 현재까지 일부 절터에 남아있는 석불, 탑과, 그리고 와편 등의 유물을 능가하는 자료가 확인되거나 보고되지는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상당 기간은 그에 대한 연구를 기다려야 하겠지만 유적과 유물에 대한 이해를 우선할 수밖에 없다.

<표 1> 통일신라기 고성지역 절터 유적

유적명	소재지	내용	시기	비고
교사리사지	고성읍 교사리 268-5 일원	교사리 교동마을 고성향교 남측 경작지 일대이며, 통일신라 후기 양식의 석조여래좌상 등 수습된 유물이 현 석불사 경내로 이안되어 있다.	통일신라 후기 ~ 조선전기	경질토기편, 종선문, 거치문 와편, 일제강점기 유리건판 사진
법천사지	대가면 양화리 633-1 일원	무량산 동남쪽 구릉부에 남동향 계단식 평지에 입지한다. 통일신라 제작으로 추정되는 두께 1cm 내외의 종선문 와편과 고려시대 어골문, 어골문과 격자문이 결합된 복합문 와편들이 산포한다	통일신라 후기 ~ 조선후기	종선문 어골문, 어골복합문 외
삼덕리사지	회화면 삼덕리 44 ~ 46, 51~54 일원	삼덕리 남진마을 남동쪽 남진소류지 동쪽 곡부에 위치. 주민들의 전언에 이곳에서 석불 1기가 출토되었다고 하나 현재는 행방을 알 수 없다. 분포 유물로는 기와, 자기, 토기편 등이다.	통일신라 후기 ~ 고려후기	두께 1.6cm 사격자문, 1.3~1.5cm 어골문 등의 와편 및 자기편

유적을 통해 고성지역에 불교가 유입된 시점을 비정해 보면, 대체로 가야의 신라 병합 이후가 아니었을까 하며, 신라후기에는 폭넓게 전파되고 그 문화 또한 융성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라후기 지방 사원의 확산은 기존의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경덕왕대 이래 그 지역

의 토착신앙을 적극 포용한 사원들이 전 지역에 걸쳐 분포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사원으로는 유적으로 확인되는 고성읍 교사리사지, 대가면 양화리 일대의 법천사지 외 회화면 삼덕리의 삼덕리사지 등 다수의 일명사지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록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는 이 시기의 대표적 사찰은 옥천사라 할 수 있다. 『삼국유사』 권4, 의해(義解) 「의상전교(義湘傳敎)」조에 따르면 옥천사는 화엄사찰 가운데 하나로 당시 비슬산 옥천사로 명명되었다. 이외에 의상의 전교에 따라 창건된 사찰로는 태백산의 부석사(浮石寺), 원주의 비마라사(毗摩羅寺), 가야산 해인사(海印寺), 금정산 범어사(梵魚寺), 지리산 화엄사(華嚴寺) 등이다.

이후 지방 사원들은 더욱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는데, 고성지역에서는 연화리사지, 와룡리 운흥사, 신용리 장의사 원터에 들어섰던 사원들이 이에 해당하였다.

2) 고려시기 고성지역 사원

고려시기 불교는 지배층이나 민의 생활에 이전보다 많은 영향을 미치던 시기였다. 그러므로 불교 신행과 그 의식이 치러지는 사원은 종교를 넘어서 이 시기 사회구조와도 밀접히 맞닿아 있었다. 여기서는 고성지역의 사원과 관련하여 몇 가지 주목되는 점을 살펴보자.

고려시대 고성지역에 존속한 대표 사원으로는 옥천사와 법천사 등을 들 수 있지만, 지금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다수의 사원들이 유적을 통해서만 그 일부가 확인되고 있다. 대부분 13세기의 삼별초 활동, 조선초 혁거사사(革去寺社) 조치, 임진왜란 등의 국난에 기인한 바가 클 것이다.

<표 2> 고려시기 고성의 일명사지

구분	사명	존속 시기	유구	주요 유물	별칭	비고
1	교사리사지	통일신라~조선전기		교사리삼존석불, 외편 및 자기편		
2	삼덕리사지	신라말~고려후기		석조여래좌상, 외편 및 자기편		
3	수양리사지	고려중기~조선중기		청자편 및 외편 산포		
4	신전리사지	고려후기~조선중기	○	초석, 담장지	일명 '대둔사지'	
5	용안리사지	고려후기~조선중기		금동불감, 금동보살좌상		

고려시대 고성은 황도 개경에서 바라볼 때 남쪽 해안 지방으로 궁벽한 곳으로 여겨졌을지 모르나 적어도 불교계에서는 그렇게 주변부로 머물렀던 지역은 아니었다. 고려 중기 화엄결사(華嚴結社)의 현장이었던 수암사(水巖寺)는 그 일례라 할 수 있다.



<사진> 수양리사지

두루 알려진 바와 같이, 고려 중기는 교종(敎宗)이 위기를 겪던 시기였고 그 대표 종파는 화엄종이었다. 기존의 왕실과 문신

관료들의 권익을 부정하고 들어선 무신정권에 대하여 이들 사원들은 저항하였고, 무인 집정자들의 강력한 탄압에 직면하여야 했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은 최충헌이 집권하게 되면서 더욱 노골화되었고 많은 희생자를 내었다. 그 가운데 드물게 교종의 결사지로 부각된 곳이 고성의 수암사였다.

수암사는 현재 정밀 조사가 실시되지 않아 그 위치를 명확히 비정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그런데 이규보는 그의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에서 당시의 결사 내용을 비교적 자세히 실었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수암사는 고을의 동북쪽에 있던 사찰로, 앞으로는 맑은 시내가 흐르고 뒤로는 높은 산을 등져 수립이 우거져 있었다. 신수(薪水)가 풍족하여 승려들이 살기에 알맞은 곳이었다. 13세기 초반 이곳에서는 무인정권에 반발하고 국왕의 장수를 기원[聖壽]하는 화엄결사(華嚴結社)가 추진되었다. 이 일을 적극 후원한 이는 당시 고을의 원이었던 박문비(朴文備)였다. 그는 전지(田地)를 시납하고 사노비 10여 명을 기진하였을 뿐 아니라, 얼마만큼의 곡식을 들여놓아 이식을 창출[子母法]하게 함으로써 절의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다.

고승 혜자(惠資)는 사주(社主)가 되어 결사를 이끌었다. 낮에는 장소(章疏)를 강론하여 깊은 뜻을 참구하였으며, 초저녁에는 경(經)을 읽고 밤중에는 좌선(坐禪)을 하는 것으로 규식을 삼았다. 동안거(冬安居)와 하안거(夏安居)를 하고, 임금의 장수를 빌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이 오래 가지는 않은 듯하다. 1224년(고종 11) 7월 대장군 이극인(李克仁) 등이 주도한 집정 최우(崔瑀)의 주살 모의 사건에 박문비가 연루되어 먼 섬으로 유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절이 흔적도 없이 폐사가 된 것도 이 때문이었다. 이것이 수암결사(水巖結社)의 전말이다.

한편, 고성 사람들은 대장경의 조성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었다. 대장경이란 경·율·론의 삼장과 불교 전적을 집대성한 것으로, 이것의 조성에는 강력한 집권력과 물질적 뒷받침에 더하여 문화적 내공이 있어야 가능하였다. 특히 고려대장경의 조성은 13세기 몽고와의 전란을 조기에 종식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려는 대규모 불사였다.

그 이전 1010년 거란의 침공으로 수도 개경이 함락되자 현종은 나주까지 피신한 상황에서 서원을 세우며 대장경 조성을 시작하였고, 자신의 돌아가신 부모님의 명복을 기원하기 위해 창건한 개성 현화사에서 대장경판을 조성하기도 하였다. 또 1029년에는 다수의 대장경을 조성하여 시작부터 약 76년이 지난 1087년에 약 6,000여 권의 대장경을 조성 완료하였다. 그러나 이들 대장경은 팔공산 부인사(符仁寺)로 옮겨 보관하던 중 안타깝게도 몽고의 침입으로 소실되고 말았다.

고려는 강화도로 수도를 옮겨 몽고와의 장기전에 대비하였고, 고종은 국력의 상징인 대장경을 다시 조성하고자 문무백관과 함께 대장도감(大藏都監)을 세우고 그 조성을 서원하였다. 당시의 상황은 부처와 33천 호법 신중에게 고하는 발원문인 이규보(李奎報)의 『대장각판군신기고문(大藏刻板君臣祈告文)』에 잘 남아있다.

이 일은 최고 권력자 최우가 주도하였지만 각계 각층의 세력과 인사들이 동참하여 가능하였다. 강화도와 남해도에 대장도감과 분사대장도감을 설치하고 수기(守其)가 책임을 맡아 일을 주도하였다. 판본들을 비교하고 오탈자를 바로 잡아 각성작업을 마쳐 마침내 1251년 회향(廻向)할 수 있었다. 이때 만든 대장경은 경판수가 8만장에 이른다 하여 팔만대장경이라 하며, 두 번째 대장경이라는 뜻에서 재조대장경(再雕大藏經)이라 부르기도 하나 정식 명칭은 고려대장경이다.

고려대장경의 조성은 국가차원의 사업이었으나 그 소요 재원의 마련에는 국왕, 대신은 물론 지방의 재지세력을 포함하여 각계 각층이 동참하였다. 그리고 이 불사에 고성의 인물들도 다수가 참여하였던 것으로 상정된다. 이 시기 조성된 해인사 소장 제경판 가운데는 을미년에 조성된 『수능엄경요해(首楞嚴經要解)』 10책에 고성 녹명향(鹿鳴鄉) 전호장(前戶長) 이승광(李勝光)의 참여가 확인되기 때문이다.

그가 참여했던 시기는 고려대장경의 조성 불사가 한창인 때로, 정장(正藏) 안에는 이 같은 지문이 들어가지 않지만 아마도 그는 진주목(晉州牧) 관할의 분사남해대장도감의 활동을 지원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고성의 재향세력인 그의 참여는 곧 지역민들의 참여가 얼마든지 있었음을 시사한다. 재지세력들이 주로 재물을 보시하였다면, 지역의 민인들은 몸보시에 동참하였을 것이다.

문헌 기록에 따르면 고려말 고성지역에서 최대의 사세(寺勢)를 자랑하던 절은 법천사(法

泉寺)일 가능성이 높다. 『태종실록』에 따르면 법천사는 전국의 명찰 가운데 경상도의 자복사(資福寺)로 지정되었다. 이로써 당시 혁거사사(革去寺社)의 조치로 수많은 사원이 폐사가 되는 가운데 법천사는 경상도지역의 거점 사원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사찰이 되었다.

<표 3> 조선초 자복사(資福寺)와 고성 법천사

寺名	所屬宗派	해당 지역	비고(현지명)
甘露寺	慈恩宗	金海	김해시
熊神寺	華嚴宗	義昌	창원시
通度寺	曹溪宗	梁州	양산시
嚴光寺	華嚴宗	密陽	밀양시
蓮華寺	曹溪宗	昌寧	창녕군
法輪寺	慈恩宗	晉州	진주시
陽景寺	〃	河東	하동군
熊仁寺	〃	宜寧	의령군
智谷寺	曹溪宗	山陰	산청군
伯巖寺	天台宗	草溪	합천군
嚴川寺	慈恩宗	咸陽	함양군
法泉寺	中神宗	固城	고성군

현재 사지로 추정되는 부지 일대는 대부분 논으로 개간되어 원래의 모습을 확인하기는 어렵게 되어 있다. 다만 주변 지형을 통하여 추정해 볼 수 있는 가람의 형태는 단차(段次)를 두고 불전(佛殿)과 승당(僧堂) 및 각종 부속시설들이 배치되었을 것으로 짐작되며, 그 좌향은 남동향(南東向)이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3) 조선시대 주요 사원의 위상과 활동

무량산 법천사는 현재 그 터만 남고 가람은 확인조차 어려운 절이다. 그러나 18세기에 간행된 『여지도서』 경상도 고성현조에 보면 운흥사(雲興寺)나 안정사(安靜寺) 보다 먼저 나오고 있어 그 규모나 역사가 오래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현재 그 터에는 어골문, 집선문 등의 와편과 분청사기, 백자 편 등이 다량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이들 유물을 통해 시기적으로 통일신라~조선후기에 존속된 사원이었음을 쉽게 알게 해준다. 특히 현장에는 조선시대 고승들의 승탑 8구가 소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비읍기가 있는 계봉화상(鷄峯和尚)의 경우 법성정사(法性精舍)라 불리는 속암이 명기되고 있어 조선후기에도 이 절에는 다수의 부속 암자가 딸려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임진왜란을 전후하여 국가적으로 큰 역할을 감당한 사원은 옥천사와 운흥사였다. 먼저 개천면 소재의 연화산 옥천사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역할을 감당하였다. 오늘날에도 그 위용을 자랑하는 자방루(滋芳樓)는 그 형태와 크기에 있어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이다. 정면 7칸, 측면 3칸의 단층 팔작 지붕의 건물은 기둥 사이를 모두 두터운 문으로 막고, 오직 앞마당과 면하는 전면만을 개방하여 큰 성채(城砦)를 방불케 하고 있다. 임진왜란을 전후해 비상시를 대비한 군사적 목적을 감안한 건물임을 시사해 준다.

옥천사 보장각에는 조선후기 옥천사의 사세를 반영하는 다수의 고문서가 전해지고 있다. 이들 문서들은 1784년 옥천사가 내수사(內需司)에 직속된 이래로 그 상급 관청인 비변사를 포함하여 호조와 예조 등에서 내려진 것과, 경상도관찰사가 발행한 완문(完文) 등이다. 문서의 내용은 옥천사가 왕실 어람(御覽)의 지지(紙地)를 생산하는 중요 사찰로 지정되었음을 확인해 줌은 물론, 생산의 기반이 되는 금양(禁養) 구역에 대한 관할, 지방 양반 및 속리(屬吏)들의 절에 대한 수탈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모두 조선후기 옥천사의 사격을 반영해 주고 있다.

한편 임진왜란을 당하여 승병(僧兵)의 주둔지로 이름을 얻은 곳은 와룡산 운흥사였다. 운흥사는 해안과 멀지 않으면서도 깊은 산중에 자리해 사명대사가 6천여 명의 승병을 이끌고 왜적과 싸운 곳으로 알려진다. 절은 이 때 불에 탄 것을 효종 연간(1650~1659)에 다시 지었으며, 대웅전에 누각이나 탑이 없는 것이 특징으로 꼽힌다. 그러나 다수의 불화와 경판들이 전수 소장되고 있음은 이후 이곳이 학승들의 요람이 되었음을 짐작하기에 충분하다.

제 3절 주요 사찰과 인물들

1) 연화산 옥천사(玉泉寺)

개천면 연화산에 자리잡은 옥천사는 천년 고찰이다. 가야(加耶) 제국(諸國)의 고도읍이기도 하였던 고성읍으로부터 북서쪽에 위치한 연화산은 과거에 비슬산이라 불리우던 산이다. 백두대간이 동남으로 천여 리를 달리어 태백산을 이루고, 여기서 소백산맥이 덕유산, 지리산을 거쳐 내려와 다시 백여 리 떨어진 곳에 함안의 여항산, 진주의 와룡산과 함께 연화산이 우뚝 솟아 있다.

연화산은 이전에 비슬산으로도 불리었다. 그것은 산의 동북쪽에 선유옥녀탄금의 세 봉우리가 둘러 있어 마치 신선이 거문고를 타고 옥녀가 비파를 다루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라 한다. 비슬산을 연화산으로 고쳐 부르기 시작한 것은 조선 인조 때에 학명대사 때로 추정되고 있다. 산세가 웅장하면서도 아기자기하여 몇 송이의 연꽃이 솟아오른 모습을 하였

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는 것이다.

연화산에 포근히 안긴 옥천사는 마치 연밭을 중심으로 연꽃잎 하나하나가 포개져 있듯이 대웅전을 중심으로 당우(堂宇)들이 겹겹이 둘러싸여 있는 형상으로 가람이 구성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연꽃 송이가 솟아오른 곳 마다 암자를 지어 백련암, 청련암, 연대암 등의 산 내암자가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절 이름을 옥천사라고 한 것은 돌구멍에서 솟아나온 옥샘물이 구비구비 바위 모퉁이를 돌아 흐르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옥샘물은 부처님의 가르침인 감로수이고, 이 감로수가 연화산으로부터 솟아나와 구비구비를 흘러서 모든 중생을 교화하는 절이 곧 옥천사인 것이다.

비슬산은 본래 우리말 벼슬산을 불교식 한자로 표기한 것으로, 비슬(毘瑟)은 비슬천의 약칭이기도 하니 이는 범어 비슈누(visnu)의 한자음역이다. 이 천신은 본래 태양신이었는데, 비슈누가 사는 곳은 높은 하늘이며 감로의 샘이 솟아나서 여러 신령들이 그 속에 머물러 향락을 누린다 하여 범천의 모태로 이해되었다. 이를 『불설잡비유경(佛說雜譬喻經)』(권31)에서는, “겉이 다하여 일체가 모두 텅 비어 있었을 때 중생의 복덕인연력(福德因緣力) 때문에 온갖 곳에서 바람이 불어와 서로 쌓여 능히 대수(大水)를 유지할 수 있었다. 물 위에는 천 사람의 머리와 2천 사람의 손발을 가진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를 비슈누라 하였다. 이 사람은 배꼽가운데서 천엽의 금빛 연꽃을 피워 내었고 거기서 나오는 빛의 밝기는 만개의 태양이 함께 비추는 것과 같았다” 고 했다. 그러므로 비슈누천(天)은 세계의 창조자이며 범천의 모태인 것이다.

비슬산은 이런 비슬천신이 살고 있는 산이란 의미로, 여기에는 감로수가 나오는 옥천이 있어야 하고 천엽 꽃잎을 가진 황금색 연꽃이 피어나야만 했던 것이다. 신묘하게도 이 비슬산은 그 산모양이 연꽃이 반개(半開)한 모양이고 그 산속에서는 옥천이 샘솟고 있다. 그러니 우리말 벼슬산을 비슬산으로 고치고 감로수가 샘솟는 곳에 옥천사는 창건되었고, 천여 년 동안 법등을 이어온 것이다.

연화산 옥천사는 의상조사가 화엄을 전교하기 위해 연 열 개의 사찰 가운데 하나이다. 이후 사세를 발전시켜 오던 절은 고려시대에 들어 중흥을 거듭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사중에 전하는 1252년[壬子年] 제작 간기가 있는 쇠북 등의 유물은 이를 방증하고 있다.

이후 임진(1592)~정유(1597)에 걸친 왜란으로 전소되었고 재적 승려들마저 절을 떠나게 되면서 한동안 폐허가 되다시피 하였는데, 현재의 절은 17세기에 들어 중창된 것이다. 절의 중건 내력에 대해서는 「연화산옥천사사적비(蓮華山玉泉寺事蹟碑)」가 참고된다.

이에 따르면 1639년(인조 17) 대둔리에 유숙하던 외방의 승려 학명(學明)은 신인(神人)



<사진> 연화산옥천사사적비

의 현몽으로 이 절을 중창하게 되었다고 한다. 학명은 그 절터를 확인하고 중창의 서원을 세우게 되었는데 1644년(인조 22) 도반이 되는 의오(義悟)와 함께 동상당(東上堂)을 추가로 짓기 시작하면서 ‘연화산옥천사(蓮華山玉泉寺)’라는 사액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 비슬산(毘瑟山)을 연화산으로 고쳐 부르게 된 것은 산의 형세가 반쯤 열린 연꽃[半開蓮華]과 같아서이며, 유교사회에서 불교색이 짙은 비슬이라는 명호에 대한 거부반응이 없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측되기도 한다.

이후 1645년에 심검당(尋劍堂), 1654년 법당과 궁선당(窮禪堂)을 지었으며 1664년(현종 5)~1680년(숙종 6) 극락전, 청련암, 백련암이 연이어 들어서게 되었다. 이후 조정에서 승군의 주둔 사찰로 확정되고, 1743년(영조 19) 시왕전, 1764년 자방루 등이 건립되었다. 이리하여 이른바 12방사(房舍)와 12수대[水碓]를 자랑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던 1800년(정조 말년) 어람지(御覽紙) 진상사찰(進上寺刹)이 되면서 소속 승들의 사역이 극심하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사재(寺財)가 바닥나고 사세 또한 급속도로 기울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선지식(善知識) 농성(龕攄)이 주석하면서 점차 사세를 회복하였다. 농성은 1862년(철종 13) 당시 불교에 조예가 있던 신헌[申楹, 1811~1884]이 통제사로 내려오자 사세의 피폐를 호소하면서 지역(紙役)을 면제 받게 된다. 그리고 점차 사재를 축적하여 중수를 도모하였는데, 그 성과가 적목당과 탐진당이였다. 그리고 마침내 1890년(고종 27) 왕실의 원찰이 되었고 이로써 일체의 관부와 권세가의 침탈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중흥을 거듭하던 옥천사는 얼마 지나지 않아 1894년(고종 31) 동학농민항쟁으로 말미암아 큰 시련을 겪게 되는데, 이 때 대웅전, 자방루, 탐진당, 적목당, 팔상전, 금당 등 중정 주변의 건물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전각들이 불에 타고 말았다.

하지만 이러한 시련에도 불구하고 이듬해 명부전과 나한전이 복구되고 1897년 독성각, 칠성각, 산신각을 중건하여 가람을 되살려 놓았다. 해방 이후 불교 정화에 앞장 섰던 청담(靑潭)의 문인들에 의해 일주문, 조사전, 사적비, 사천왕문, 범종각 등을 조성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옥천사는 현재 대한불교조계종 제13교구 본산인 하동 쌍계사의 말사이며, 백연암, 청연암, 연대암 등의 부속암자가 있다.

<표 4> 옥천사 지정문화재 현황

	문화재명	지정번호	지정일	비고
1	옥천사 청동북	보물 제495호	1968.12.19	1점
2	지장보살도 및 시왕도	보물 제1693호	2010.12.21	9폭
3	자방루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53호	1972.2.12	1동
4	향로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59호	1972.2.12	1점
5	대웅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60호	1972.2.12	1구
6	대웅전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132호	1974.12.28	1동
7	옥천사소장품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299호	1994.7.4	110점
8	옥천사일원	경상남도 기념물 제140호	1994.7.4	47,900㎡(25필지)
9	명부전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146호	1985.11.14	1동
10	소장 범종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187호	2007.1.19	1점
11	연대암 아미타불회도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578호	2014.1.23	1폭

(1) 대웅전

대웅전은 옥천사의 중심 전각으로 1745년(영조 21)에 건립되었다는 옥천사사적기의 기록이 있으며, 이후 1865년에 중수되어 현재는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132호로 지정되어 있다.

정면 3칸, 측면 2칸의 다포계로, 외3출목의 팔작지붕 건물이다. 대웅전의 방향은 동향을 하고 있으며 자방루와 나한전을 잇는 사찰공간의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다. 대웅전 앞쪽으로는 마당을 두고 맞은편으로 자방루가 있으며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적목당과 탐진당이 있다. 대웅전에서 앞마당으로 내려오는 계단 바로 앞에 당간지주가 세워져 있으며 마당 앞쪽에는 괘불대가 놓여있다.

대웅전 내부의 중앙부에 주존불을 모시고 바로 뒤로 후불벽을 설치하였다. 후불벽 앞쪽에는 나무로 높은 단을 조성하였으며 단에는 주존불인 삼존불좌상을 각각의 대좌 위에 두고 있다. 옥석으로 만든 삼존상은 모두 무릎 앞으로 손을 내린 수인이 일치한다. 좌우 협시보살상 앞에는 남무관세음보살과 남무대세지보살이라는 보살패가 놓여 있어서 아미타삼존불 좌상인 것을 알 수 있다. 전각의 재부를 살펴보면 주존불 뒤쪽에는 후불탱화가 걸려 있으며, 주존불의 왼쪽에는 홍고와 동종이 놓여 있다. 그리고 좌우에는 최근 1992년에 그린 탱화들이 걸려 있는데 중앙에서 왼쪽에는 가로*세로 171.5*187cm 크기의 신중탱화가, 오른쪽에는 가로*세로 176*115cm 크기의 삼장탱화가 있다.

전각 중앙의 후불벽을 돌아가면 뒤쪽은 폭이 좁고, 불단의 아래쪽은 1m 정도의 높이로

뚫려있어 통로로 만들었는데 매우 낮고 비좁아 수장고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곳에는 대웅전의 총 기장보다 약간 짧지만 긴 쾌불함이 놓여 있으며, 그 위쪽에는 길이가 조금 짧은 쾌불함 두개가 더 놓여 있다.

(2) 지방루

1764년(영조 40)에 지방루를 창건할 당시의 정황을 기록한 지방루기(滋芳樓記)가 옥천사 사적기에 포함되어 있다. 현재 이 전각은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53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1984년에 보수와 복원을 거쳐 오늘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지방루란 꽃다운 향기가 점점 불어난다는 말로서 불도를 닦는 누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누각은 정면 7칸, 측면 2칸의 주심포계 팔작지붕으로 중심전각인 대웅전과 중심축을 이룬다.



<사진> 옥천사 지방루

3단의 잘 다듬은 석조기단을 조성하고 자연석초석위에 배흘림기둥을 세웠다. 공포는 1출목 2익공에 제공이 길고, 내부 중앙 고주 역시 모두 초각한 보아지를 사용하였다. 초각한 보아지와 함께 서까래를 제외한 지붕가구부재의 단청은 비교적 화려한 느낌을 준다.

하지만 내부에 사용된 비교적 가

는 원형의 단일부재로 된 대들보와 고주는 연등천장과 함께 간결하고 넓은 공간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강학을 하던 곳으로 시원한 누마루 바닥을 두고, 앞마당으로는 난간을 반대방향으로는 판문을 두었다. 지방루의 단청은 조선후기 1888년 단청장 스님들에 의한 것으로 중보(中樑)에 그려놓은 비천상과 비룡상은 살아 움직이는 듯하고 장혀와 창방에도 신수화1점, 새 그림 1점씩으로 서로 엇갈리는 위치에 배치하여 안팎 양면에 그려놓았다. 130년의 세월이 흐른 오늘날에는 단청이 탈색되어 가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다.

일반적으로 사찰에서 조영되는 누문은 가파른 산세의 급경사를 활용하여 누문 밑을 통해 대웅전의 앞마당으로 들어오게 하여 사찰의 위용에 압도되도록 하였다. 그에 비해, 옥천사에서는 누문 밑을 통해서 대웅전으로 들어오는 대신 지방루 왼쪽에 누문을 설치하여 돌아가도록 하였다. 아마도 이러한 배치는 나지막한 지형조건과 사찰의 규모를 감안한 구도로 보여지며, 대웅전을 비롯하여 경내에 배치된 전각들 모두의 위치와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3) 탐진당

탐진당은 대웅전을 바라보며 앞마당의 오른쪽에 비치되어 있으며 적묵당과는 서로 마주하는 건물로 같은 시기(1754년)에 건립되어서인지 전체적으로 유사하다. 적묵당이 ‘口’자형 배치를 이루는데 비해 탐진당은 정면5칸, 측면 2칸 一자형 배치를 가지고 있다. 탐진당은 낮은 기단에 자연석초석을 놓아 원형기둥을 세우고 초익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방루와 대웅전 방향으로 각각 팔작지붕과 우진각지붕으로 마무리 된 단층건물이다. 현재 승방과 종무소로 사용되고 있다.

(4) 명부전

문화재자료 제146호로 지정된 명부전은 대웅전 오른쪽에 위치하며 팔작지붕목조와가로 큰 규모는 아니다. 명부전의 정확한 조성연대를 알 수 없으나 함께 봉안된 불상과 불화들의 조성사실을 기록한 조성기를 참고하여 추정하면 건립 9년(1774)즈음이 된다. 하지만 원래 대웅전의 왼쪽에 있는 팔상전 건물(1890년 건립)이던 것을 고쳐서 명부전으로 사용하였거나, 혹은 1895년(고종32)에 옛 궁선당 터에 명부전을 건립하였다고도 하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 전각이 창건 당시의 바로 그 명부전 자리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현재 대웅전의 왼쪽에 위치한 팔상전의 크기나 명부전 내에 걸렸던 시왕도와 같은 불화의 크기를 고려해보면 명부전에 불화를 조성했을 당시에는 이곳을 명부전으로 사용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현재 명부전의 규모는 정면 3칸, 측면3칸으로 자연석 초석을 놓았다. 기둥은 원형 기둥을 쓰며, 지붕의 형태는 팔작지붕에 부연을 단 겹처마로 되어있다. 양식은 주심포계 외2출목으로 제공을 화려하게 초각하였다. 전각의 정면 중앙에는 지장삼존상이 모셔져 있다. 나무로 만든 대좌 위에 금칠된 지장보살좌상과 그 좌우로 합장을 한 도명존자와 읍을 한 무독귀왕의 입상이 있다. 지장보살상 뒤쪽에는 최근에 그린 후불탱화가 걸려 있으며 오른쪽에는 1,3,5,7,9대왕상이 왼쪽에는 2,4,6,8,10대왕상이 홀을 들거나 옥책을 펼친 모습으로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으로 배치되었다. 그리고 그 양 옆으로 판관과 지옥의 사자 및 인왕 등이 각각 한 쌍씩 대칭으로 마주하고 있다. 이전에 각각의 시왕상들 위에 봉안되었던 시왕도 10폭과 시왕상들 앞의 시녀상 각 10구는 현재 보장각에서 전시하고 있다.

(5) 팔상전

팔상전은 석가모니부처님의 전생에서부터 열반에 이르기까지의 일대기를 여덟 장면으로 나누어 그린 팔상도를 모신 전각을 말한다. 옥천사의 팔상전은 대웅전 왼쪽에 위치하였고 맞배지붕 목조와가로 명부전과 비슷한 규모를 가지고 있다. 팔상전의 규모는 정면 3칸, 측

면 1칸으로 자연석 초석을 놓았다. 1890년에 건립된 팔상전의 원형기둥을 쓰며, 지붕의 형태는 맞배지붕으로 부연을 단 겹처마로 되어있다. 양식은 이익공으로 제공을 화려하게 초각하였으며, 내부는 우물천정과 우물마루로 되어있다.

현재 내부에는 최근에 그린 팔상도가 중앙에 걸린 가로172, 세로133cm 크기의 석가후불화를 중심으로 좌우에 네 폭씩 마주 걸려 있다. 각각 가로171, 세로 131.5cm 크기로 오른쪽의 도솔내의상과 왼쪽의 비람강생상이 걸려 있으며 다음으로는 가로171 세로95cm 크기의 사문유관상과 설산수도상이 걸렸고 가로171, 세로132cm인 설산수도상과 녹원전법륜상이 오른쪽에 걸리고 왼쪽에는 항마성도상과 쌍림열반상이 배치되었다. 그 아래쪽에는 최근에 조성한 팔대 제자들의 좌상이 안치되어 있다.

(6) 칠성각

자방루에서 대웅전을 잇는 사찰의 중심축으로 볼 때 칠성각은 대웅전 왼쪽에 위치한다. 대웅전과 명부전의 왼쪽에는 이전에 전각이 있었으리라 추정되는 주춧돌과 빈터가 있다. 그 빈터 왼쪽에 위치한 칠성각은 다포계 맞배지붕 전각으로 1899년 (광무3)에 창건되었다. 규모는 정면 3칸, 측면 1칸으로 자연석 기단을 조성하고 위가 좁은 원형 초석을 놓았다. 칠성각은 원형기둥을 쓰며 지붕형태는 맞배지붕에 겹처마로 되어 있다. 공포는 1출목에 화려하게 초각된 첨차와 많이 휘어진 제공을 가진 것이 특징이다. 현재 칠성각 내부에는 1981년에 조성된 가로 104, 세로 141cm 크기로 면본에 채색된 칠성탱화가 걸려 있다.

칠성각은 칠성신을 모신 곳으로 옛날부터 우리나라 민간에서 재물과 재능을 주고 수명을 늘려주며 비를 내려 풍년을 들게 해주는 칠성신을 모시는 곳으로 도교의 신앙이나 무속적 성격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칠성신의 주불인 치성광여래가 약사여래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 자식이 없거나 아들을 얻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모았다.

(7) 보장각

보장각에는 신라 고찰 옥천사에 전해오는 귀중한 문화유산을 보관 전시하는 공간이다. 옥천사 청동북(보물 제495호), 옥천사 대종(경상남도유형문화재 제60호), 청동 은입사향로(경상남도유형문화재 제59호)를 비롯한 각종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다.

2) 와룡산 운흥사(雲興寺)

와룡산 향로봉 중턱에 자리하고 있는 운흥사는 임진왜란 때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분연히 일어나 왜적에 대항하여 싸우다 숨진 호국의 영령들을 기리는 영산재(靈山齋)가 행해지

는 곳으로, 호국사찰로서 그 위상이 높은 곳이다.

신라 문무왕 16년 의상대사가 창건한 것으로 알려지는 운흥사는 현재 당시의 사적은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이 절에 부속한 천진암(天真庵)과 낙서암을 1692년(숙종 8) 응화선사가 창건하였다는 사실 정도가 알려진다.

임진왜란 기간 고성 지역의 사찰들은 승병들의 근거지가 되었는데, 운흥사는 사명대사가 지휘하던 승군 6천여 명이 왜적에 대항하여 싸웠다고 한다. 이순신 장군도 수륙양면(水陸兩面)의 작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3차례나 왕립하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같은 임진왜란 관련 사적은 운흥사에 소장된 「임진전망축원유전(壬辰戰亡祝願遺傳)」 등의 유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운흥사는 부속암자인 천진암과 낙서암을 포함해 9개의 암자가 있었으며 절 주변에 서는 맷돌, 고승 부도탑 등이 있어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임진왜란 이후 운흥사에는 화원(畫員)이 머물면서 다수의 불화를 남겼는데 영조 때 김의겸(金義謙) 스님은 이곳 출신이었다. 절에는 1730년(영조 6) 조성된 괘불이 전해오고 있으며 뒷면에는 서산대사와 사명대사의 친필 진언(眞言)과 어언(御言)이 씌어져 있다.

절에는 괘불탱 및 궤(보물 제1317호)와 관음보살도(보물 제1694호) 등의 국가 중요문화재들이 소장되어 있으며, 대웅전은 1731년(영조 7) 중건된 것으로 내부에 그려진 불화와 장식은 높은 예술성을 지니고 있어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82호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표 5> 운흥사 지정문화재 현황

	문화재명	지정번호	지정일	비고
1	괘불탱 및 궤	보물 제1317호	2001.7.31	2점
2	관음보살도	보물 제1694호	2000.8.31	
3	대웅전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82호	1974.2.16	
4	경관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184호	1979.12.29	173매
5	감로탱화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356호	2000.8.31	
6	미타회탱화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357호	2000.8.31	아미타회상도
7	약사탱화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358호	2000.8.31	약사회상도
8	목조삼세불좌상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538호	2013.5.2	3구
9	영산전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147호	1985.11.14	
10	명부전 목조각상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288호	2000.8.31	21구
11	목조 원패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289호	2000.8.31	3점

(1) 운흥사 대웅전

운흥사 대웅전은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82호이다. 운흥사는 676년(문무왕16)의상대사가 창건하였다고 전해지며 임진왜란 때에는 승병(僧兵)의 본거지였다고 한다. 원래의 대웅전은 임진왜란 때 불탔고 지금의 건물은 1731년(영조7)에 재건한 것이다. 규모는 정면 5칸, 측면 3칸으로 다포계 맞배지붕의 목조와가이다. 정면 어칸은 좌우 협칸과 퇴칸보다 넓어 2구의 공간포를 두었으며 나머지는 1구씩 배열되어 있다. 공포 형식은 외이출목, 내삼출목이며 양서가 가늘고 끝이 날카롭게 휘어져 올라가 있다.



<사진> 운흥사 대웅전

(2) 운흥사 영산전

676년(문무왕 16) 의상대사에 의해 창건되었다고 전하는 운흥사 영산전은 현재 문화재자료 제147호로 지정되어 있다. 임란시 승병의 본거지였던 운흥사는 사명대사가 지휘하던 승군 6천여 명이 왜적과 싸운 곳으로 임란시 대부분 불탔고 본 영산전은 조선 영조때 중건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3) 거류산 장의사(藏義寺)

경남 고성군 거류면 한북관에 우뚝 솟은 거류산(巨流山, 570m)은 서쪽으로 고성평야, 북쪽으로 당항만, 동쪽으로 구절산과 당동만을 끼고 있고 남쪽으로 통영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정상부에는 자연지세를 이용하여 축성되었다는 거류산성이 있다.

이 산성은 가야시대 신라의 침입을 막기 위해 쌓았다고 전해지고 있으나 발굴결과에 의해 신라말~고려초의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대부분이 붕괴되고 부분적인 윤곽만 잔존하여 이끼 낀 성돌만 남아 있었던 것을 현재는 복원해 놓았다. 정상에는 수십 년 전만 해도 아무리 가뭇이 있어도 마르지 않는 자연수가 솟는 큰 샘이 있었으나 지금은 폐쇄되고 그 흔적만 남아있다. 산과 바다가 잘 어울어진 명산 거류산의 산명에 대해서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전해진다.

먼 옛날 여염집 규수가 부엌에서 밥을 짓다 밖을 나와보니 산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 때 이를 바라본 아낙이 놀라서 그만 “산이 걸어 간다” 라고 소리쳤고 산은 누가 보면 움직이지 못한다고 하니 그 자리에 서고 말았다. 그 때 걸어가던 산이라는 뜻으로 ‘걸어산’ 으로 불리었고, 그것이 오늘날 산명이 되었다.

거류산은 정상에서 사방을 둘러보면 남해안의 절경과 벽방산, 무량산, 구절산 등은 물론 고성읍 시가지와 고성평야가 한 눈에 들어오는 명산이다. 이 산의 중턱에 위치한 장의사는 신라 원효대사가 선덕여왕 1년(632년)에 창건하여 6.25사변의 병화를 입었으며 1891년 성담화상이 중창한 것을 비롯하여 1917년 호봉화상에 의하여 증건되어 오늘에 이른다.

현재 장의사는 보광전, 천불전, 사성각, 범종각 등 어엿한 가람을 이루고 남해의 따뜻한 햇살 아래 빛을 발하고 있다. 현재 가람이 재차 정비 중이며 또다시 새로운 중창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

(1) 보광전(寶光殿)

보광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 와가로 주심포계 익공식 공포로 지어진 건물이다. 외벽에는 관음보살도 문수동자도, 비천상, 신선도 등이 그려져 있다. 내부에는 알개 올린 단집 아래에 자그마한 크기의 아미타 삼존불이 모셔져 있다.

주존불인 아미타불좌상은 석불로 약 200년 전에 조성된 것으로 알려진다. 좌측의 관음보살상은 오래전 도난을 당해 목불로 다시 조성한 것이라고 한다. 우측의 대세지보살상 역시 목불로 아미타불과 같이 200년 전에 조성한 것이라고 하는데 대좌 위에 반가부좌로 걸터앉아 있는 형상이 특이하다. 때문에 관음보살상이라고 하는 견해도 있고 미륵불이라고 하는 견해도 있다.

삼존불의 후면에는 아미타후불탱이 봉안돼 있으며 오른쪽에 지장탱, 왼쪽에는 신중탱이 각각 모셔져 있다. 모두 1970년 효천(曉泉) 인법(印法)스님이 그린 작품이다. 삼존불의 양

측면에는 인등보탑이 있으며 내벽에는 관음보살도, 산수도, 화훼도 등이 그려져 있다. 또 동종 1기가 있으며, 법당 위쪽에는 장의사전기불사공덕주인명록과 보광전 중건 불사시주질 등이 걸려있다.

보광전 좌측 후면 노천에 봉안한 석조여래불상은 오래 전부터 장의사에서 전해 내려오는 불상이라고 하나 마모가 심해 제대로 알아볼 수 없으나 대체로 미륵불로 추정된다. 요사채 오른쪽에는 장의사 진입로불사공덕비가 자리하고 있으며 사찰의 초입에는 호봉스님의 부도탑 1기가 봉안되어 있다. 또 사찰의 뒤편에는 야생 차밭이 3천여 평 부지에 걸쳐 조성되었는데 야생으로 재배되고 있다.

한편 사중에는 1891년 조성의 ‘고성부거류산장의암중창기문(固城府巨流山藏義庵重創記文)’과 1920년 조성의 ‘거류산장의사중건공덕문(巨流山藏義寺重建功德文)’을 따로 보관하고 있다.

(2) 장의사 천불전

장의사 천불전은 정면 5칸 측면 3칸의 규모이며, 팔작지붕에 주심포 익공양식의 공포를 지니고 있다. 내부는 아미타·관음·지장 등 원불(願佛)이 법당 내부를 가득 채우고 있다. 가운데 봉안한 청동아미타삼존불은 중앙에 아미타불좌상이 있고 좌우 협시는 관음·지장보살이 입상으로 조성되었다. 또한 삼존불의 후면에는 아미타후불탱이 봉안되어 있다. 외벽은 달마도를 비롯해 고승들의 일화를 담은 벽화로 장엄되어 있다.

(3) 장의사 범종각

범종각은 정면 측면 각 1칸씩이며 팔작지붕에 다포계 익공식 건물이다. 범종각은 아래층이 따로 있는데 1층에는 죽로다우회(竹露茶友會)회원들이 차를 즐기고 배우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범종은 1990년 봉안된 것이다. 범종각 앞에는 작은 연못을 조성해 놓고 있다.

(4) 장의사 사성각

사성각은 보광전과 비슷한 시기인 약 60여 년 전에 세워진 전각이라고 한다. 정면 3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에 주심포 익공계 양식의 건물로, 칠성탱을 비롯해 독성탱, 산신탱, 용왕탱 등 모두 4위의 탱화를 봉안하였다.

정면의 칠성탱은 1990년 봉안되었으며, 좌측인 독성탱과 산신탱, 용왕탱은 모두 효천(曉泉) 인법(印法)이 1970년 그린 것이다. 특히 산신탱은 보살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어 눈길을 끄는데, 이는 거류산의 산신이 여성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묘사한 것이라고 한다.

4) 무이산 문수암(文殊庵)

대한불교조계종 제 13교구 쌍계사 말사인 문수암은 경남 고성군 상리면 무선리 무이산 [해발 556m, 일명 淸涼山]의 정상 암벽 아래에 자리하고 있다. 암자는 688년(신문왕 8) 의상대사가 창건하였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창건 연기가 전해지고 있다.

어느 날 의상대사가 정진을 하려고 남해 금산[보광산]을 향하여 행각하던 중 날이 저물어 이 곳 청량산 부근 어느 마을 집에서 유숙하게 되었다. 비몽사몽 중에 한 노승이 나타나서 “내일 아침에 걸인을 따라서 보광산 보다 무이산을 먼저 가보라” 고는 홀연히 사라져 잠을 깨니 꿈이었다. 날이 밝자 과연 한 걸인이 나타났는데, 급히 무이산의 주소를 물었더니 마침 무이산에 간다하기에 동행하게 되었다.

걸인을 따라 무이산 중턱에 오르니 눈앞에 수많은 섬들이 떠있고 동, 서, 남, 북 그리고 중앙에 웅장한 다섯 개의 바위가 오대(五臺)를 형성하고 있어 마치 오대산의 중대를 연상하게 하였다. 이 때 그 걸인이 중대를 가리키며, “저 곳이 내 침소다” 라고 말하자 한 걸인이 또 나타나서 두 걸인은 서로 손을 잡으며 바위 틈새로 사라져 버렸다.

의상대사는 석벽 사이를 살펴보았더니 걸인은 보이지 않았고 이상하게도 석벽 사이에는 천연적인 문수보살상만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보고 홀연히 깨달은 바, 꿈속의 노승이 관세음보살이고 두 걸인이 문수와 보현의 보살임을 깨달았다. 의상대사는 무이산을 두루 살펴보고는 “이 곳은 죽히 사자를 길들일 만한 곳이며 이곳이야말로 산수 도량이다” 라고 예찬하고 문수단을 모아서 문수암(文殊庵)을 세우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당시 신라시대에는 이 곳이 명승지로 이름이 높아 국선 화랑들이 몸과 마음을 연마하던 곳이며 화랑들의 무술 연마하는 모양이 마치 선인과 같이 보인다하여 산 이름을 무이산(武夷山)이라 하고, 이 곳 마을 이름도 무선(武仙)이라 하여 지금까지 부르고 있다.

신라의 성인 중 한 분으로 꼽히는 의상은 661년(문무왕 1) 당나라에 유학하여 종남산 지상사에서 지엄[중국 화엄종의 시조]의 문하에서 현수와 같이 화엄학을 배워 깊은 이치를 깨달았던 인물이다. 현수는 지엄의 뒤를 이어 중국 화엄종의 제3조(祖)가 되고 의상은 670년(문무왕 10)에 귀국하여 화엄을 강술하고 화엄종의 종조가 되었다.

창건 후 문수암은 해동의 명승지로 이름을 얻었으며, 수행 도량으로서 많은 고승들을 배출하였다. 특히 신라 화랑도의 전성기에는 국선 화랑들이 이곳을 찾아 심신을 연마하였고 전한다.

그러나 중창 및 중건의 내력에 대해 사중에 전하는 기록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의 암자는 사라호 태풍 때 붕괴되어 신도들의 성금으로 지금과 같이 현대식으로 다시 지은 것이다. 1973년에는 이 절에서 수도한 이청담의 사리를 봉안하여 세운 청담 대종사 사리탑이 있다.



<사진> 청담대중사 사리탑과 사리탑비

기암절벽이 양자 뒤편을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으며 산정에 오르면 남해안 한려해상국립공원의 크고 작은 섬들이 마치 군산봉처럼 부침하고 있는 절경을 조망할 수 있어 등산객과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5) 금태산 계승사(桂承寺)

금태산 용두봉을 배후로 자리 잡은 계승사는 영현면 대법리 산 17-1번지 일원에 자리하고 있다. 절이 자리 잡고 있는 터는 중생대 백악기(白堊紀) 퇴적구조(堆積構造)로 물결자국, 빗방울자국 등 1억 년 전 공룡들의 자취를 담고 있는 곳이다.

계승사 경내 곳곳에는 물결자국, 빗방울 자국, 공룡발자국 등의 퇴적 층리(層理)가 널리 분포되어 있다. 큰 것은 가로 13.5m 세로 7m에 이르며 보존 상태도 우수하다. 그 밖에도 전형적인 형태의 빗방울자국, 퇴적구조 층리와 용각류(4족 보행, 초식)·수각류(2족 보행, 육식)로 추정되는 공룡발자국 화석등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고환경을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학술·연구자료로 평가되어 2006년 12월 천연기념물 제475호로 지정되었다.

절의 내력을 전하는 문헌은 없으나 사증에서 파악한 절의 연혁은 다음과 같다.

계승사의 전신은 금태사(金太寺)이며, 신라 문무왕 15년 의상조사가 창건하였으나 임진왜란 때 병화로 폐사되었다가 1963년 계승사로 중건되었다는 것이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서 간행한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에 의하면 지금의 계승사 주변에 영현면 대법리 사지가 남아있으며, 고려시대 사찰터로 전한다는 기록이 있다. 2000년 11월 전통사찰로 지정되었다.

절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전하는데 다음과 같다.

(1) 계승사 석간수

절 뒤에 있는 산봉우리를 용의 머리를 닮았다 하여 용두봉, 혹은 독수리의 머리를 닮았다 하여 취산봉이라 하는데, 그곳에서 발원한 석간수가 기암괴석을 타고 흘러 내렸으며 옛 날에는 매일 2되 3홉의 공양미가 쏟아졌다는 전설이 있다. 그러나 욕심 많은 시봉행자가 더 많은 공양미를 얻기 위해 구멍을 키웠더니 공양미가 약수로 변화하였다고 한다.

(2) 바윗돌 하심석

주불전인 보타전 곁에 바윗돌 ‘하심석(下心石)’ 이 있다. 이 돌에는 다음과 같은 안내문이 붙어 있다. 바위는 1977년 상봉 소나무 밑에서 굴러 떨어졌는데, 그 후 하심(下心)으로 정진하게 되었다고 하는 내용이다.

아침 이슬비가 뿌리는 늦가을 새벽 도량석을 마치고 법당에서 예불을 모시는데 쿵하는 소리에 천지가 진동했다. 혼미한 상태에서 일어나 손전등을 켜고 밖을 나와 보니 요사채 공양간 문은 부서지고 공양 짓는 솔과 국 끓이는 솔 사이에 큰 바위가 들어앉아 있었다. 날이 밝아 동산으로 올라보니 상봉 소나무 밑에서 땅이 파이고 바위가 굴러 쏟아져 내려 온 것이다. 참으로 무서워 기절을 하였다.

정신을 차려 부락에 내려가서 주민들을 모시고 올라와서 논의 끝에 구멍을 뚫어 깨어 버릴려고 해도 깨어지지 않아 그만두고 나무 지렛목을 사용하여 바위를 현 위치에 굴러 내려 안치 시켰다. 그 바위가 바로 하심석이다. 법당 뒤에 떨어진 것이 구심도 방향으로 꺾여 요사 공양간으로 들어갔으니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이다.

그 후로 하심하여 더욱 정진을 하니 오늘날 계승사가 이처럼 아름답다. 누구나가 바위를 보면서 합장 하심을 내면 바라는 바를 성취한다. 그러므로 이 바위의 이름을 하심석이라 이름한다.

6) 인물들

(1) 의상(義湘)

의상대사(625~702)는 성이 김씨로 한신의 아들이다. 19세 때 경주 황복사에서 스님이 되었고 650년 경에 원효와 함께 당나라에 구법여행을 떠나던 도중 그만두었다가 661년 다시

입당 유학에 올랐다. 중국 화엄종의 제2조로서 화엄학의 기초를 다진 지엄을 만나 8년 동안 본격적으로 화엄을 익혔다. 이 때 그가 남긴 『화엄일승법계도(華嚴一乘法界圖)』에 그의 넓고 깊은 화엄사상이 잘 나타나 있다.

670년 중국에서 귀국하여 화엄사상을 널리 알리고자 전국의 산천을 두루 편력하였다. 674년 경주 황복사에서 표훈·진정 등의 제자들에게 『화엄일승법계도』를 가르쳤으며 676년 마침내 부석사를 창건하여 신라 화엄의 근본도량으로 삼고 화엄의 진흥과 제자 양성에 전력하였다. 3천명의 제자 중 10대 제자라 부르는 오진·지통·표훈·진장·도용·양원·상원·능인·의적 등이 유명하였다. 제자들이 도움을 요청하여 물어올 때에는 그들의 마음이 조용히 가라앉기를 기다려 의심나는 점을 하나하나 풀어주었다고 한다.

대사는 학문과 강의, 수행에 전념하며 일생을 보냈는데 『송고승전』에는 대사의 모습을 이렇게 평하고 있다. “의상은 행함을 귀하게 여겨 강의하는 일 외에는 수련을 부지런히 하였다. 세계와 국토를 장엄하여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꺼리는 일이 없었다. 또 언제나 의정(義淨, 635~713)의 세법(洗法)을 좇아 실행하여 어떤 종류의 수건도 쓰지 않았으며 시간이 되어 그냥 마르도록 내버려두었다. 또 의복과 병과 발우 등 세 가지 외에는 아무것도 몸에 간직하지 않았다.” 한편 일연은 『삼국유사』에서 “화엄을 캐어와 고국에 심었으니, 종남산[당나라 지상사]과 태백산[부석사]이 같이 봄이로다.”라고 하여 대사의 화엄 전파를 높이 평가하였다. 대사는 702년 9월 23일 세수 78세로 입적하였다.

저술로는 『심문간법관』 1권, 『입법품초기』 1권, 『화엄일승법계도』 1권, 『백화도량발원문』 1권 및 최근에 발견된 『일승발원문』 등이 있다. 의상대사 이후 제자들에 의해 이어져 꽃피운 신라 화엄사상은 신라 하대에 이르러 화엄 십찰의 성립을 이루게 되었고 옥천사도 바로 이러한 화엄십찰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2) 진경(眞鏡)

옥천사 창건 이후 가람을 증축하고 사세를 넓히며 선풍을 일으킨 분은 진경대사 심희(審希, 855~923)로 알려진다. 심희는 성이 김씨로 흥무대왕 김유신의 후손이라 하였다. 9세에 출가하여 원감국사 현욱(玄昱, 787~868)의 제자가 되었다. 출가 후 그의 활동은 전국을 돌며 수행한 운수기(雲水期)와 봉림사에 주석한 시기로 나누어진다. 운수기 그의 행적은 오늘날 광주·강릉·설악 등지에 이르렀는데, 이르는 곳마다 선객들이 몰려들었다고 하며 그 지역민들에게는 마치 고아가 자애로운 아버이를 만나고 병든 사람이 뛰어난 의원을 만난 것과 같았다고 하는 평가를 받았다. 아마도 그가 옥천사에 머물렀다고 하면 이 시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비문에 따르면 진성여왕은 그를 불러 도움을 입고자 하였으나 마다하였다고 하고, 훗날 경명왕의 초빙에 응하여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편안히 하는 방법을 설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오늘날 창원·김해지역 유력가의 후원으로 봉림사를 개창해 훗날 구산선문(九山禪門)의 하나인 봉림산문으로 명성을 얻었다.

923년(경명왕 7) 봉림사에서 세수 68세 법랍 50세로 입적하니 시호는 진경(眞鏡), 탑호는 보월능공(寶月凌空)이라 하였다. 제자로는 봉림산문의 종풍을 크게 떨친 찬유(璨幽)를 비롯하여 5백 여 명이 있었다.

(3) 혜거(惠居)

고려 광종대 고승으로 옥천사에서 정혜(定慧)를 닦으며 주석하였다고 한다. 법휘는 지광이고 속성은 명주 박씨로 아버지 박윤영(朴允榮)과 어머니 명주 김씨 사이에서 899년 4월에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신체가 장대하고 남달리 총명했으며, 절에 가서 예불 올리고 설법듣기를 좋아했다. 16세인 914년 봄 우둔산 개선사의 오심장로(悟心長老)에서 출가하였다. 3년이 지나 금산사의 의정율사에게서 구족계를 받고 여러 사찰을 순력하면서 고승을 만나 불법을 익혔다.

922년 여름에는 미륵사 개탑식에서 열린 선운산의 선불장에 참석하였다. 선불장은 일종의 승과고시로 이곳에서 설법하자 하늘꽃이 휘날리는 영험이 나타나 모였던 사람들의 추앙을 받았다고 한다.

고려시대에 와서는 939년 태조가 그를 흠모하여 세 번씩이나 초빙하였으나 끝내 사양하였다. 그러다가 947년 가을에는 정종으로부터 왕사의 봉함을 받고 개경에 도착하였다. 948년 2월 대장경을 봉안하는 전장법회(轉藏法會)를 주관하였으며, 왕은 이곳에 머물게 하고 변지무애(辯智無碍)라는 호를 내렸다.

962년 광종은 국사를 광명사에 이주하도록 하여 7일간 인왕반야회를 주관케 하고 원명묘각이라는 호를 하사하였다. 965년 1월 스님은 왕사에서 국사로 피봉되었다. 이때 경운전에서 백고좌회를 개설하고 국왕 앞에서 원각경을 설하였다.

970년 봄 갈양사(葛陽寺)를 국가의 축원도량으로 삼을 것을 아뢰고 이듬해 가을에는 이곳에서 수륙도량을 개설하였다. 972년 여러 차례 왕에게 물러날 의사를 전하였는데 그해 봄 왕이 이를 허락하였다. 3월 15일 왕은 연복사에서 신하들을 배석시킨 가운데 전별식을 베풀었다. 이후 스님은 갈양사에서 말년을 지내면서 참선수행에 몰입하여 조계종풍을 드날렸다. 974년 대중을 모아놓고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며 입적하였다.

(4) 묘응(妙應)

묘응(1076~1142)은 고려 천태종 승려로서 성은 박씨이고 이름은 교웅(敎雄)으로 고려 예종대 옥천사에 와서 천태학(天台學)을 강의하였다고 알려진다.

9세에 장경사에 출가하여 석찬의 제자가 되었다. 다시 쌍봉사의 익종에게서 학문을 익히고 함께 국청사로 가서 대각국사의 천태종지를 배웠다. 1101년(숙종 6) 나라에서 처음으로 천태종 재선을 열자, 여기에 응시하여 상상품에 올라 대덕이 되었다. 그 뒤 국청사에서 북장사로서 경론을 강의하여 학인들을 가르치며 천태의 종풍을 드날렸다. 수년 뒤 홍주의 백암사로 옮겨 7년 동안 머물며 천태학 뿐만 아니라 화엄학 유기학 유학 노장사상 음양설 의학에 이르기까지 두루 섭렵하면서 수행과 학덕을 쌓았다. 예종 때에는 삼중대사가 되었고, 인종 때에는 대선사가 되었다. 1142년(인종 20)에 세수 67세 법랍 58년으로 입적하였다.

(5) 한봉진(韓奉眞)

일제강점기 옥천사에는 소속 승려들이 독립운동에 동참하기도 하였는데 한봉진은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1919년 무렵 대한독립단에 가입한 후 상해임시정부의 지령으로 군자금 모집의 사명을 띠고 국내에 들어와 활동하던 윤영백(尹永伯)과 함께 활동하였다. 특히 옥천사를 거점으로 각종 연락을 맡아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알려진다.

1920년 음력 3월 상해(上海) 대한민국 임시정부(大韓民國 臨時政府)에서 파견된 윤영백과 함께 활동을 전개하였는데, 같은 면에 사는 마능숙(馬能淑) 등에게 군자금 모집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권유하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후 1921년 3월 31일 부산지방법원 통영지청에서 이른바 대정 8년 제령 제7호 위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기도 하였으나 1921년 5월 2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한편, 이에 앞서 1912년 전국의 동지를 규합하여 제2차 독립만세운동을 도모하다 체포된 옥천사 승려 신화수는 김상옥 등과 함께 혁신단을 조직하고 기관지로 《혁신공보》를 발행 배포하여 독립정신을 고취하고자 노력한 인물이었다. 그는 1923년에 의열단원으로서 폭탄, 권총 등의 무기를 휴대한 채 상하이로부터 귀국한 김상옥에게 군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체포되었는데, 2010년 국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려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6) 백초월(白初月)

일제강점기 불교계의 대표적 독립운동가 가운데 한 분인 백초월은 1878년 2월 17일 고성군 영오면 성곡리에서 태어났다. 소년 시절 향리에서 한학을 수학하다 청년기인 1891년에

지리산의 영원사(靈源寺, 함양군 마천면 삼정리)로 입산 출가하였다. 당시 이영진(李永鎭)을 은사로 수행하였는데 ‘초월’이라는 당호를 받았다. 초월은 영원사에서 승려로서의 기본을 배운 후 해인사 강원(講院)에서 사미과와 대교과 과정을 이수하였다.

임제중운동(1910~1911)부터 항일민족운동 대열에 참가한 초월은 청주 용화사에 거주하면서 청주의 재가불자들에게 불교를 가르치고 나라 및 민족의 현실에 깊은 고민을 하였다. 이후 1919년 4월 상경하여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에 투신하였다. 중앙학림(中央學林) 내에 한국민단본부(韓國民團本部)를 설치하고 군자금 모집을 주도하였으며, 당시 불교 독립운동의 구심체였던 단체에 직접 관여하였다.

백초월의 치열한 독립운동은 1920년 5월 승려독립선언서(僧侶獨立宣言書) 배포 및 의용승군제(義勇僧軍制) 추진 사건에서 극대화되었다. 이후 그는 일제에 체포되어 고문의 당하기도 하였으며 일제의 시선을 피하기 위한 강연을 하면서 일심교(一心敎)라는 항일 이념을 내세우기도 하였다.

한편 초월은 동학사·봉원사·월정사 등지의 강원에서 후학을 양성하였는데, 나라를 되찾고, 민족을 수호해야 한다는 민족의식을 학인 스님들에게 고취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그러면서도 일심회를 통한 항일 비밀결사운동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초월과 일심회의 활동은 만주로 떠나는 군용열차에 ‘대한독립만세’ 라는 격문을 쓰는 형태로도 전개되었다. 1940년 10월 2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2년 6개월의 판결을 언도받고 서대문형무소 등에서 복역한 후 1943년 3월 3일 출소하였다.

출소한 초월은 다시 만주로 독립운동 자금을 보내다가 일제에 체포되었고, 그 후 청주교도소에서 구금 중 1944년 6월 29일 순국하였다. 하지만 그의 시신은 행방불명되었고, 그의 독립운동 정신과 활동은 1986년에 가서야 비로소 알려지게 되었고 1991년 고향에 순국비가 세워졌다.

(7) 청담(靑潭)

청담(1902~1971)은 경남 진주 출신으로 진주고등농림학교를 졸업한 후 25세에 일본으로 건너가 불법을 배우고 이듬해 귀국하여 고성 옥천사(玉泉寺)에서 박한영(朴漢永)을 은사로 득도(得度)·수계(受戒)하고 청담이라는 법명을 받았다.

29세 되던 해 서울 개운사의 대원불교전문강원에서 대교과를 이수한 뒤 부패해가는 승단의 기강을 바로 잡기 위하여 불교를 개혁, 정화하려는 뜻을 세워 50여 명의 승려를 규합, 개운사에서 전국학인대회를 결성하였으나 일제의 방해로 무산되었다.

해방 후 교단 재건과 불법 중흥을 위하여 고성 문수암, 해인사 등지에서 대중을 교화하

고 도제를 양성하였다. 또한 합리적인 종단의 제도를 역설하여 출가와 재가를 구분하고 그들이 해야 할 5개조의 행동지침을 발표하였다.

1954년 서울 선학원(禪學院)에서 전국 비구승대회를 소집하여 불교정화운동을 주도하였고, 그해 가을 사찰이 청정도량으로 정화될 때까지 목숨을 바쳐 싸우겠다는 결의로 약 400명의 비구와 함께 단식하였다. 이듬해 대한불교 조계종 초대 총무원장에 취임, 이후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해인사 주지, 도선사 주지, 동국학원 이사장을 거쳐 1966년 대한불교 조계종 통합종단 제2대 종정 전국신도회 총재, 조계종 장로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1968년 도선사에 호국참회원(護國懺悔院)을 건립하였고, 1969년에는 불교계의 앞날을 염려하여 종단의 탈퇴를 선언하였다. 1970년 총무원장에 재임하였고 세계불교연합장로원장을 역임하였다. 1971년 11월 15일 세수 69세 법랍 46세로 입적하였다. 저서로는 『신도수경(信徒手鏡)』 · 『잃어버린 나를 찾아』 · 『반야심경강설(般若心經講說)』 · 『금강경대강좌(金剛經大講座)』 · 『신심명강의(信心銘講義)』 등이 있다.

(8) 성철(性徹)

성철(1912~1993)은 호가 퇴옹(退翁)으로, 경남 산청에서 태어나 해인사, 통도사, 송광사, 고성 문수암 등에서 수행 정진한 선승이다. 본관은 합천(陝川). 속명은 영주(英柱)이며 1912년 아버지 상언(尙彦)과 어머니 진주(晉州) 강씨(姜氏)의 사이에서 태어났다.

성철은 열 살 무렵부터 유서(儒書)를 읽고 각종 경서를 독파하였다. 1930년 진주중학교를 졸업하고 청소년기에 이르자 동서양의 철학·문학·논리학 저서를 탐독하였다. 1935년 경영가(永嘉)의 「신심명증도가(信心銘證道歌)」를 읽고 지리산 대원사에 가서, 거사로서 수행하다가 출가하였다.

1965년 문경 김룡사(金龍寺) 하안거 때는 첫 대중법문으로, 『육조단경』, 『금강경』, 「증도가」 및 중도이론을 설법하였다. 1966년 해인사 백련암으로 옮겨가 주석하였고, 1967년에는 해인총림 초대 방장으로 취임하였다.

방장 취임의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 유명한 ‘백일법문(百日法門)’을 설하였는데, 이것은 불교의 중심 사상인 중도사상을 체계화한 것으로 유명하다. 1981년 조계종 제7대 종정으로 추대되었으나 추대식에 참여하는 대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는 법어를 발표하였다.

성철은 평소 제자들을 직접 지도하면서 잠을 적게 잘 것, 말하지 말 것, 책을 보지 말 것, 간식을 먹지 말 것, 돌아다니지 말 것 등을 권하였다. 성철 자신도 청빈하게 생활하며 소금기 없는 음식을 먹고 작은 암자에서 살았다. 그의 수행 활동은 8년 동안의 장좌불와

(長坐不臥)가 널리 알려질 정도로 평생을 철저한 수행으로 일관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돈오사상(頓悟思想)과 중도사상(中道思想)을 설파하여 현대 한국불교사에 독보적 경지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1993년 11월 해인사에서 열반하였다. 저서로 『한국불교의 법맥』 · 『선문정로(禪門正路)』 · 『본지풍광(本地風光)』 · 『자기를 바로 봅시다』 · 『백일법문(百日法門)』 등을 남겼다.

제 4절 불교미술

1) 옥천사 소장의 불교미술품들

연화산 옥천사와 와룡산 운흥사에는 수준 높은 불교미술품들이 봉안 전승되고 있다. 옥천사는 신라 문무왕 16년(676)에 의상에 의해 창건된 것으로 알려지며, 임진왜란 때 불에 타 없어진 것을 인조 17년(1639)에 다시 지은 것이다. 옥천사 경내에는 대웅전(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132호), 자방루(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53호), 명부전(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146호) 등 중요 건축문화재가 자리하고 있으며, 대웅전은 절의 중심에 있는 법당으로 임진왜란 때 불타 없어진 것을 효종 8년(1657)에 용성화상이 다시 짓고, 그 후에 여러 차례의 보수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화엄 10대 사찰로도 유명한 이곳에는 청연암, 백연암, 연대암 등 암자와 청담스님의 사리탑이 빼어난 조형미를 드러내고 있다. 청동북(보물 제495호), 향로, 범종 다수의 불교미술품이 전승되고 있다.

(1) 옥천사 청동북[玉泉寺 靑銅金鼓]

사찰의 예불 의식에는 범종, 금고, 향완, 촛대, 접시 등 각종 불구들이 사용되었다. 이들 중 오늘에 남아 전하는 불구들은 소중한 불교 미술품이다. 고성 옥천사에는 지리산 안양사(安養社)에서 관료들이 신앙결사를 위해 후원한 쇠북이 전해지고 있다(보물 제495호). 1252년 제작된 것으로 지름이 55cm 이며 무게는 60근에 달한다.

쇠북의 재질은 청동이며 형태는 표면에 굽고 가는 선으로 4개의 테두리를 둘러 4개의 원을 만들었다. 중심원에는 여섯 개의 연씨[蓮子]를 양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 주위를 열아홉 개의 연꽃잎으로 장식하였다. 측면에 명문을 새겼는데, 1252년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는 정 3품의 관직인 추밀원 우부승선 손정렬(孫挺烈), 정3품 관직인 상서 황보기(皇甫琦) 등이 후원하여 만들었음을 밝히고 있다.

옆면은 중앙에 굽게 돌출된 선이 있어 위 아래로 구분되고, 선 위로 둥근 모양의 고리가



<사진> 옥천사 청동북

3개 있어 매달 수 있게 되어 있다. 옆면 위쪽에 쓰인 글[壬子]로 미루어 고려 고종 39년(1252)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청동북은 처음부터 옥천사에서 전해진 것이 아니라 지리산 안양사의 것이었는데, 언제부터 옥천사에 보관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무늬가 뚜렷하고 손상이 없으며, 옆면의 글을 통해 제작에 참여한 공인에 대해 알 수 있는데 별장동정(別將同正) 한중서(韓仲敘)가 제작하였으며 동량(棟梁) 도인(道人)은 종일(宗一)이고, 부담인(負擔人)은 상좌 보심(普心)이니 오랫동안 사용되기를 바란다고도 적었다.

인(負擔人)은 상좌 보심(普心)이니 오랫동안 사용되기를 바란다고도 적었다.

(2) 옥천사향로 (玉泉寺香爐)

향로는 마음의 때를 씻어준다는 의미를 가진 향을 피우는데 사용하는 도구이다. 옥천사향로는 높이 23cm, 입 지름 27.5cm인 청동으로 만들어진 조선시대 향로로, 입 주위에는 넓은 테를 가진 전이 있으며, 안쪽으로 ‘의령수도사’ 라고 점선으로 새긴 글자가 있다.

향로 몸체의 둘레에는 4곳에 꽃 모양으로 창을 만들고, 그 안에 봉황을, 남은 공간에는 빈틈없이 덩굴무늬를 새겨 넣었다. 아랫부분의 받침대에는 문양이 없고, 그 형태가 몸체와 균형이 맞지 않으며, 조선 순조 16년(1816)에 보수하였다는 글씨가 새겨 있다.

이 향로는 무늬를 먼저 새긴 다음 은으로 입히는 방법을 사용하여 문양을 만들었으며, 표충사 은입사 향로와 같은 수법을 보여주는 우수한 작품으로, 고려 후기에서 조선 전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1972년 2월 12일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59호로 지정되었다.

(3) 옥천사 지장보살도 및 시왕도 (固城 玉泉寺 地藏菩薩圖 및 十王圖)

옥천사 지장보살도 및 시왕도는 1744년 화승 효안(曉岸)의 주도하에 11명의 화승들이 참여하여 조성되었다. 현재 제1진광대왕도와 제2초강대왕도가 결실되어, 지장보살도 1점과 시왕도 8점이 남아 있다. 이 9점의 불화와 함께 옥천사에는 1744년 효안이 제작한 영산회상도와 삼장보살도가 전하였으나, 현재는 전해지지 않고 있다.

지장보살도는 화면 중앙에 두건을 쓴 지장보살을 배치하고, 그 좌우를 2단으로 나누어 하단에 무독귀왕과 도명존자, 2보살을 그리고, 상단에 대칭으로 6보살을 배치하였다. 상단의 6보살 중 지장보살의 좌우 보살은 정면상을 취하고, 나머지 권속들은 중앙의 지장보살

을 바라보게 표현하여 화면의 구도가 짜임새 있고 안정적이다.



<사진> 지장보살도 및 시왕도

시왕도는 한 폭에 각 1위(位)의 시왕을 묘사한 형식을 취하였다. 각 화면은 용두가 장식된 의자에 좌정한 시왕과 권속을 상단에 크게 배치하고, 하단에 채운(彩雲)으로 화면을 구획하여 각 시왕에 해당하는 지옥 장면을 묘사하였다. 화면 상단에는 각 시왕의 권속들을 배치하고, 하단에는 지옥장면을 묘사 하였다. 이러한 형식의 시왕도는 1742년 범어사 시왕도가 가장 이른 예로 알려졌으나, 범어사 시왕도는 현재 소장처를 알 수 없다. 이후 시왕이 각각 1폭으로 조성되는 시왕도는 옥천사 시왕도에 시왕의 의자 뒤로 병풍을 추가한 형식이 다수 제작되었다. 1764년 시왕도(호림박물관 소장)나 1798년 통도사 시왕도 등이 그 예에 속하며, 이는 18세기 후반 시왕도의 전형이 되었다.

현재 옥천사 지장보살도는 색의 오염과 화면 꺾임 등의 현상이 나타나지만, 본존과 다른 권속들의 상호는 원형이 잘 남아있는 상태이다. 시왕도는 개체한 흔적이 없으며, 보존상태도 양호하다. 지장보살도와 제9도시대왕도는 바탕천의 재질이 비단이며, 나머지 7점의 시왕도는 모시 바탕에 제작되었다. 18세기 명부전 불화의 전형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2010년 12월 21일 보물 제1693호로 지정되었다.

(4) 연대암 아미타불회도 (蓮臺庵 阿彌陀佛會圖)

수화승 천여를 비롯한 채중, 선종, 지만 등의 금어들에 의해 1849년에 조성된 것으로, 특히 천여는 19세기 전라도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당대의 대표적인 화승이다.

화면 중앙에 아미타불을 크게 묘사한 후 그 좌우에 권속들이 본존을 에워싸듯 원형을 이룬 구도를 갖추고 있다. 본존은 팔각대좌 위 연화좌에 앉아 아미타구품인을 곁하고 있다. 본존의 좌협시 보살은 보관에 화불이 묘사된 관음보살로 두발이 각각 연화좌를 밟고 선 답할좌 모습에 양 손을 가슴 부위까지 들어 올려 정병을 쥐고 있다. 우협시 보살은 관음보살과 거의 대칭되는 모습이지만 보관에 정병이 묘사된 대세지보살이 경책을 지물로 지니고 있다. 2014년 1월 23일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578호로 지정되었다.

(5) 옥천사 성보박물관의 불교미술

옥천사 성보박물관에는 많은 소장품이 봉안되어 있다. 크기가 가로 81cm, 세로 78cm인 법고가 있는데 독경을 하거나 염불을 외울 때, 리듬을 맞추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삼존 위목대는 가로 34.5cm, 세로 54.5cm 크기로, 구름과 용·봉황을 조각하여 채색하였다. 가로 103cm, 세로 152cm의 규모인 시왕탱화는 불교의 시왕(十王)을 그려 액자나 족자 형태로 만든 불교그림으로, 벽에 걸 수 있게 되어 있다[2010.12.21 보물로 승격]. 그 밖에 동제 향로와 집전 행사용 도구인 바라가 있고, 1981년에 제작된 신상탱화와 큰 나무로 만든 밥그릇이 있으며, 예불 행사용 불구인 핑소와 동제 밥그릇 등이 있다. 이들 유물들은 모두 불교의 의식과 행사 등을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그 외 성보박물관에는 중앙 및 지방의 여러 관청에서 옥천사에 내린 다수의 문서들이 전시되고 있다. 이들 문서들은 1784년 옥천사가 내수사(內需司)에 직속된 이래로 그 상급 관청인 비변사를 포함하여 호



<사진> 옥천사 보장각

조와 예조 등에서 내려진 것과, 경상도 관찰사, 통영, 병영, 진주 및 고성에서 발행한 완문(完文) 등이다.

중앙의 관청은 비변사를 포함하여 호조와 예조 등에 걸치고 있다. 문서의 내용은 옥천사가 왕실 어람(御覽)의 지지(紙地)를 생산하는 중요 사찰로 지정됨과 관련하여 종이 생산 및 진공 이외의 잡역을 면제한다는 내용, 종이 생산의 기반이 되는 금양(禁養) 구역 내 지역민들의 불법 경작이나 벌목 작업을 금지하는 조처들을 담고 있다.

관찰사, 암행어사, 병영, 진주 및 고성에서 발행된 문서들에서는 옥천사의 속사(屬寺)인 묵방암(默芳菴)에 대한 조치, 옥천사 금표 구역의 상세한 경계 표시, 지방 양반 및 속리(屬吏)들의 절에 대한 수탈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문서 외의 기타문서들도 다수인데, 옥천사 내부의 전각 건립을 위한 모연문(募緣文), 옥천사 내부 인사들과 외부 인사들이 맺은 계의문(契誼文), 고승의 공덕을 기록한 유공록

(有功錄), 그리고 절의 사적을 기록한 사적기(事蹟記) 등이다. 이들 고문서들은 모두 조선 후기 옥천사의 사격과 역사를 기록한 문서들이다.

유물들은 일괄하여 고성옥천사소장품(固城玉泉寺所藏品)으로 1994년 7월 4일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299호로 지정되었다.

2) 운흥사의 불화와 목판

운흥사는 신라 문무왕 16년(676) 의상조사가 지은 사찰로 전해오고 있다. 임진왜란 당시 승병의 본거지로 유명하며, 경내에 있는 건물로는 대웅전(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82호)을 비롯하여 영산전(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147호), 범종루, 산신각, 요사채 등이 있다. 영산전은 조선 영조 때 다시 지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특히 운흥사 대웅전은 정면 5칸·측면 3칸의 규모이며, 지붕 측면이 사람 인(人)자 모양인 단순한 맞배지붕집이다. 지붕을 받치면서 장식을 하는 공포가 복잡한 다포식으로 기둥 위와 기둥 사이에도 포가 배치되어 있다. 대웅전 내부에는 괘불(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61호)과 조선 후기에 제작한 경관(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184호)등이 보관되어 있으며, 불단의 조각이 특히 화려하다

(1) 운흥사 괘불탱 및 궤(雲興寺 掛佛幀 및 櫃)

운흥사에 봉안되어 있는 조선후기에 그려진 불화이다. 그림은 서 있는 모습의 석가모니불을 중심으로 여러 존상을 화면 가득 그린 영산회괘불탱이며 괘불을 보관하는 궤와 함께한다. 괘불탱은 본존불을 화면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크게 그리고 그 양옆에는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을 배치하였다. 화면 상단에는 관음보살과 세지보살, 2구의 타방불이 자리하였다.

본존불은 오른쪽 어깨를 드러낸 옷을 입고 있는데, 오른손은 다소곳이 모아서 길게 내려뜨리고 왼손은 가슴께로 들어 올려 손바닥을 위로한 채 엄지와 가운데 손가락·넷째 손가락을 살짝 구부리고 있다. 장대한 신체와 더불어 움추린 듯 직각을 이루는 넓은 어깨에 네모난 얼굴



<사진> 운흥사 괘불탱

과 어깨에 닿을 만큼 길다란 귀를 갖추고, 두터운 옷을 입은 듯 표현되어 한층 중후함을 느끼게 한다. 둥그스름해진 사각형의 얼굴에 눈썹은 약간 처지고 입은 작게 묘사되었으며, 눈썹과 콧수염·턱수염을 녹색으로 굵게 그리고, 입술은 선홍색으로 표현하고 있다.

본존을 향하여 몸을 살짝 틀고 있는 문수와 보현보살은 연꽃 위에 서서 화려한 보관을 쓰고 두 손으로 여의(如意)와 연꽃가지를 받쳐들고 있는 모습이다. 입고 있는 옷의 색채와 무늬, 손모양만 서로 다를 뿐 신체 및 발 등 자세는 거의 똑같다. 어깨 위로 길게 늘어진 머리카락과 여러 장식, 머리묶음 띠, 가슴장식, 팔찌, 귀고리 등도 매우 비슷하다.

이 그림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빈틈없이 꽉 채워져 있는 여러 문양들과 각 인물마다 표기되어 있는 붉은색 범자(梵字)이다. 문양은 연꽃무늬, 덩굴무늬, 구름무늬와 둥근무늬, 잔꽃무늬, 점무늬인데, 그 중에서도 덩굴꽃무늬와 연꽃무늬, 구름무늬는 삼존의 주된 문양으로서 화면 전체에 걸쳐 화려함을 더해주고 있다. 범자는 각 인물의 이마 위 중앙과 두 눈썹 위, 눈꺼풀, 중간계주와 정상계주 및 육계 정상 또는 보관 하단과 정상, 목 윗부분 중앙과 가슴 위·아래, 그리고 발목 부분에 찍어져 있다.

이 괘불탱은 조선 영조 6년(1730)에 승려화가 의겸 등에 의해 그려졌다. 신체비례가 적당한 인물의 형태와 이목구비의 표현, 조화롭고 밝은 색채의 사용, 세련된 필치의 화려하면서도 정교하고 다양한 문양, 주된 인물을 중앙에 크게 그린 다음 기타 인물을 뒤로 물러나게 배치하는 구도법 등은 의겸의 특징적인 표현수법으로서, 진주 청곡사영산회괘불탱(국보 제302호)과 비교해 보아도 손색이 없다.

괘불을 보관하는 궤는 뚜껑 윗부분 일부가 결손된 것 외에는 보존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괘불탱 조성 1년 뒤인 조선 영조 7년(1731)에 만들어진 이 궤는 '만·왕·십자(卍·王·十字) 및 범자(梵字)' 무늬가 투각되어 있는 궤 부착의 정교하고 다양한 형태의 금속장식 또한 보기 드문 예로 당시의 금속공예 연구에 귀중한 예라 할 수 있다. 괘불탱 및 궤는 2001년 08월03일 보물 제1317호로 지정되었다.

(2) 운흥사 관음보살도 (雲興寺 觀音菩薩圖)

운흥사 관음보살도는 1730년 의겸(義謙)이 수화승을 맡아 운흥사 삼세불도와 삼장보살도, 감로왕도를 조성할 때 함께 제작한 것이다. 불화 조성에는 의겸 외에도 행종(幸宗), 채인(採仁)이 참여하였다. 운흥사 관음보살도 외에 의겸이 제작한 관음보살도는 1723년 여수 흥국사 수월관음도(보물 제1332호)와 한국불교미술박물관 소장 1730년 수월관음도(보문 제1204호)가 있다. 그리고 불상으로는 1730년 부산 내 원정사 목조관음보살좌상(부산시 유형문화재 제47호)도 전한다.

운흥사 관음보살도는 보타락가산에 유희좌 자세로 앉아 있는 관음보살을 중심으로 좌우에 정병, 청조, 1쌍의 청죽, 선재동자를 배치하였다. 이와 같은 운흥사 관음보살도의 기본적인 구성과 도상은 1723년 흥국사 수월관음도와 동일한데, 정병과 청죽 1쌍, 청조의 위치가 좌우 바뀌었고, 화면 하단에 용녀와 용왕이 등장하는 점, 복식의 문양이 간략해진 점 등이 차이가 있다. 관음보살의 표현은 1730년 한국불교미술박물관 소장 수월관음도와 흡사하다.



<사진> 운흥사 관음보살도

머리에 입상의 화불을 모신 보관을 쓴 관음보살은 오른손으로 바위를 쥐고, 왼손은 무릎에 올렸으며, 변형된 유희좌의 자세로 암반 위에 앉아 있다. 화면 하단 향좌측에는 선재동자가 합장하고 서있으며, 향우측에는 여의주를 받든 용녀와 홀을 든 용왕이 등장한다. 이러한 관음보살도의 형식은 1858년 통도사 관음전 후불탱, 1868년 운문사 관음보살도, 1869년 향로암 관음보살도 및 18~19세기 후불벽 배면에 벽화로 그려진 수월관음도 도상으로 이어진다.

운흥사 관음보살도는 의겸이 제작한 다른 관음보살도 가운데 관음보살과 선재동자, 용왕과 용녀의 화면 구성이 가장 알맞고, 상호의 묘사도 여성스럽다. 또한 의겸 특유의 수목담 채풍이 잘 반영되어 있어 전반적으로 차분한 느낌을 준다. 2010년 12월 21일 보물 제1694호로 지정되었다.

(3) 운흥사 감로탱화

효(孝) 사상과 결합하여 크게 성행한 감로탱화는 조상의 극락왕생을 위해 그린 불교그림으로, 부처를 극진히 대접하여 조상의 영혼이 지옥세계로부터 구제되기를 간절하게 기원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이 그림은 크게 세부분으로 표현되었다.

그림의 맨 윗부분에는 불·보살의 모습이 표현되었고, 중간에는 부처님께 올리는 여러 가

지 음식을 차려 놓은 성반(盛飯)이 마련되어 있으며, 그 아래에는 먹지 못해 고통받는 아귀왕과 함께 지옥장면, 싸우는 모습, 형틀에 묶여있는 모습, 광대패놀이, 호랑이에게 쫓기는 모습 등등 인간이 그 업보에 따라 겪게 되는 갖가지 장면들이 묘사되어 있다. 2000년 08월 31일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356호로 지정되었다.

(4) 운흥사 아미타회탱화 (雲興寺 阿彌陀會幀畵)

아미타부처는 서방 극락세계를 주관하는 부처로 본 탕화는 화면 가운데 주불인 아미타부처를 크게 배치하였다. 아미타불은 양어깨를 모두 덮고 있는 옷을 입고, 오른발을 왼무릎에 얹고 있는 길상좌(吉祥坐) 모습이다. 그림의 맨 위부분에는 아미타부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여러 성중(聖衆)의 무리가 표현되어 있으며 그 아래로는 흰옷(白衣)을 걸친 관세음보살을 위시한 아미타 8대 보살과 불법을 수호하는 사천왕상이 있다.

이 그림은 운흥사약사탱화(경상남도유형문화재 제358호)와 전반적으로 비슷한 구도와 인물의 형태, 색채를 보여주고 있어 동일 작가에 의해 그려진 것으로 생각된다. 이 탕화는 2000년 08월 31일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357호로 지정되었다.

(5) 운흥사 약사탱화 (雲興寺 藥師幀畵)

약사부처는 중생을 모든 병의 고통에서 구하고 치유하여 깨달음으로 인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부처이다. 왼손에 약그릇을 들고 있는 약사부처를 가운데에 크게 배치하고, 약사부처 주위로는 맨 윗부분에 팔부신중을, 그 아래로는 머리에 화려한 보관을 쓴 보살들을 그렸다. 그리고 화면의 맨 아래 부분에는 좌우로 각각 2분씩 불법을 지키는 사천왕상이 배치되어 있다. 연꽃대좌에 앉아 있는 약사부처는 양 어깨를 모두 감싼 옷을 입고 오른 발을 왼무릎에 올려 놓은 길상좌(吉祥坐)의 자세로 큼직한 키모양 광배를 갖추고 있다. 2000년 8월 31일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358호로 지정되었다.

(6) 운흥사 목조삼세불좌상 (雲興寺 木造三世佛坐像)

운흥사 대웅전에 봉안되어 있는 3구의 불상으로, 본존상인 석가모니를 중심으로 우측에 아미타여래, 좌측에 약사여래를 협시로 하여 삼세불의 도상을 구성하고 있다. 세 존상 모두 자세 및 법의를 제외한 신체 비례, 얼굴 등의 특징이 거의 비슷하다. 허리를 세우고 어깨와 머리를 약간 숙인 자세로 신체에 비해 머리가 큰 편이며, 어깨가 넓고 상반신이 당당하며 다리 폭이 이루는 비례가 좋아 안정감이 있다.

본존의 수인은 항마촉지인으로 오른손은 손가락이 땅을 가리키고 있으며, 왼손은 다리 위에 가지런히 놓아 손바닥을 펴고 중지와 약지를 구부려 엄지와 맞대고 있다. 우측의 아미타상은 엄지와 중지를 맞대어 오른손은 가슴 앞으로 들고 왼손은 다리 위에 둔 아미타인을 하고 있다. 좌측의 약사상은 손의 위치가 우측의 약사상과 반대로 되어 있어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다.

방형의 얼굴은 턱이 둥글게 깎였으며, 양 볼과 턱은 도톰한 편이다. 눈은 수평으로 가늘게 뜨고 있으며, 비교적 큰 코에 가늘고 작은 입술이 표현되어 있다. 본존불은 법의가 변형 통견식으로 오른쪽 어깨에 법의를 걸치고 왼쪽에는 어깨를 덮고 길게 내려와 있다.

승각기는 가슴에서 가로로 주름지게 표현되었다. 양불상의 경우 통견식의 법의가 손목까지 길게 내려와 주름져 있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또한 다리 사이에는 넓은 가운데 옷 주름을 중심으로 양측으로 균등하게 나누어 정리하였으며, 왼쪽 무릎 앞으로 넓적한 옷자락이 흘러내리고 있다. 2013년 5월 2일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538호로 지정되었다.

(7) 운흥사목제원패 (雲興寺木製源牌)

운흥사 원패는 왕실의 수명장수를 기원하는 기원패로서 왕의 패, 왕비의 패, 세자의 패 모두 3점이다.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왕의 패에는 황룡을 새기고 왕비의 패에는 봉황과 구름무늬를 새겼으며, 세자의 패에는 용과 새의 무늬를 새겨 놓았다. 섬세한 조각이나 정교한 문양을 새긴 기법과 장식적인 면에서 조선 후기 불교예술의 우수성을 엿볼 수 있는 자료이다. 2000년 08월 31일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289호로 지정되었다.

(8) 운흥사소장경판(雲興寺所藏經板)

와룡산 운흥사에는 목판 등 다수의 기록문화재가 소장되어 있다. 운흥사소장경판이 그것으로 모두 16종 194판의 불교관련 목판들이다. 이들은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초에 새겨진 것들로 대승경전과 불교의식관련 자료들이다. 이 가운데 정토신앙의 근본경전인 아미타경은 세조 10년(1464)에 간경도감에서 간행된 것을 숙종 28년(1702)에 다시 그대로 새겨 간행한 복간본이다. 거의 대부분의 판들이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어 조선 후기 절의 목판인쇄문화와 운흥사의 격을 가늠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며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184호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표 6> 운흥사 소장 경판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184호)

목판명	연도	형식	매수	비고(간기)
妙法蓮華經卷第一經板	1684	전곽 20×33.6	31	慶尙道固城縣西距臥龍山雲興寺開刊
華嚴經普賢行願品經板	1671	전곽 18.6×39.6	11	康熙十年辛亥四月日固城西面臥龍山龍興寺開刊
華嚴經普賢行願品經板	1721	전곽 20.8×29.2	12	康熙六十年辛丑夏固城臥龍山雲興寺開板
金剛般若波羅蜜經經板	1721	전곽 20×28.9	14	康熙六十年辛丑夏固城臥龍山雲興寺開板
佛說阿彌陀經經板	1702	전곽 20.2×31.9	15	康熙四十一年壬午夏慶尙道固城臥龍山雲興寺開刊
誠初心學人文經板		전곽 19.2×29.9	2	
高峯和尚禪要經板		전곽 18.1×26.5	1	
佛說高王觀世音經經板	1721	전곽 20.5×29	4	康熙六十年辛丑夏固城臥龍山雲興寺開刊
佛說高王觀世音經經板		전곽 17.7×36.3	2	慶尙道固城臥龍山雲興寺開刊
雲水壇詞經板	1674	전곽 18.3×32.1	13	康熙十三年甲寅仲秋固城西面臥龍山龍興寺開刊
諸般文經板	1681	전곽 30.7×36.3	46	康熙二十季辛酉孟夏固城縣臥龍山龍興寺開刊
諸般文經板		전곽 18.6×32.1	1	
眞言集經板		전곽 18.9×28.3	16	
北斗眞經卷第一經板		전곽 19×29.2	8	鐵城縣兌金龍山龍興寺刊置
四名日常住勸供經板		전곽 20.1×34.8	8	
梵本文經板	1907	전곽 19.8×32.4	4	固城臥龍山雲興寺開刊

『화엄경』 가운데 「보현행원품」은 보현보살의 행원을 특별히 중요하게 여겨 별도로 간행 유포하기 위한 것으로, 부처의 공덕을 성취하고자 한다면 보현보살의 10대원을 닦아야 함을 밝히고 그 실천 요령을 담고 있다. 『금강반야바라밀경』은 『금강반야경』이라고도 하며, 인도 사위국을 배경으로 석가가 제자 수보리를 위해 설한 대표적 경전이다. 한곳에 집착하여 마음을 내지 말고 항상 머무르지 않는 마음을 일으키고, 모양으로 부처를 보지 말고 진리로서 받으며 모든 모습을 모양이 없는 것으로 본다면 곧 진리인 여래를 보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계초심학인문』은 지눌이 조계산에서 수선사(修禪社)를 결성하고 선종을 일으킨 1205년 동안거를 시작할 때 중창 불사의 회향을 기념하여 채택한 청규(淸規)로, 처음 불문에 들어온 사람과 승가의 기강을 수립하기 위한 책으로 907자로 구성된 것이다.

『고봉화상선요』는 선승 고봉화상의 어록에서 일부를 발취한 선서(禪書)로 고봉의 시자(侍者) 지정(持正)이 기록하고 재가제자 홍교조(洪喬祖)가 엮어서 1295년 최초로 간행한

책이다. 고봉은 당시 화두참구(話頭參究)를 중심으로 수행하며 깨달음을 얻을 때 스승의 인가(印可)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들 목판들은 1671~1907년에 걸쳐 운흥사에서 직접 판각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3) 장의사와 그 밖의 유산들

(1) 장의사 석조관음반가상

장의사 보광전에는 석조관음반가상(石造觀音半跏像)이 봉안되어 있다. 보살상은 17세기 후반~18세기초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보타낙가산의 관음보살상을 표현하였다. 암좌에 앉아 오른쪽 다리를 왼쪽으로 올린 모습을 취하고 있다. 관음신앙은 해안가를 중심으로 널리 발달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바다에서 생업활동을 하는 어민들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의식이 투영되어 있다.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511호이다.



<사진> 장의사 석조관음반가상

그 밖에 원래의 절은 폐사가 되었으나 그 터에 남아있거나 원 터를 떠나 박물관으로 이관된 작품들도 있다. 교사리삼존석불(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122호), 양화리 법천사지 부도군(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207호), 전 용안리 사지 출토의 동제관음보살좌상 및 불감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교사리삼존석불

교사리사지의 사적을 알려주는 석조유물이다. 현재 석불사 경내에 있는 석조여래좌상, 석조보살입상, 석조인왕상, 석조광배, 석사자상 등이 모두 이와 관련된다. 이 가운데 여래좌상, 보살상, 인왕상은 ‘교사리삼존석불’이라는 명칭으로 문화재(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 122호)로 일괄 지정되어 있다.

불상은 원래 석불사 대웅전 내에 여래좌상을 중심으로 좌·우에 보살상과 인왕상을 세워 마치 삼존과 같은 모습으로 봉안되어 있던 것이다.

석조여래좌상은 수미단 위에 봉안되어 있으며 머리 부분은 뒤에 보수한 것이다. 광배는 없으며 팔각연화대좌를 갖추고 있다. 어깨선이 거의 수평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양팔과 가

슴 등에 양감이 풍부하고 허리가 다소 가늘다. 착의법은 왼쪽 어깨에 옷을 걸치고 있으며 옷주름을 부드럽게 새겼다. 양손은 각각 무릎에 손등을 위로하여 걸치고 있다. 다리는 걸가부좌한 상태로 양 발을 모두 노출시킨 형태이다. 신체의 표현 방식, 층단식 옷주름 등으로 미루어 양식적으로 통일신라 후기 불상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석조보살입상은 석조여래좌상의 우측에 봉안되어 있다. 여래좌상과 마찬가지로 머리 부분은 뒤에 보수한 것이다. 신체 전면에 이중의 천의를 'U'자형으로 걸치고 있으며 상반신에 내의를 착용하고 있다. 하반신의 요포는 허리 부분에서 접혀 있으며 옷주름은 직선으로 표현되어 있다. 팔찌, 목걸이 등의 장신구는 착용하고 있지 않다. 보살상은 오른손을 가슴 부근에 들어 보주를 받들고 있으며 왼손은 아래로 내려뜨리고 있다.

석조인왕상은 등신대에 가까운 크기의 환조상으로 사찰 경내에 안치되어 있다. 원래 대웅전 안에 여래좌상의 좌측에 보관을 쓴 형태로 복원되어 보살상으로 오인되기도 하였다. 상반신은 나신, 하반신은 짧은 요포를 두르고 있다. 목과 가슴 팔뚝, 다리에는 근육이 표현되어 있으며 발은 신발을 신지 않은 모습으로 대좌와 함께 새겨져 있다. 건장한 신체 등으로 보아 불교의 수호신인 금강역사의 모습으로도 비쳐지며 다소 형식화된 조성 양식 등으로 미루어 고려 전기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광배는 사찰 문 안의 석조인왕상과 마주보는 곳에 있다. 두광과 신광을 갖춘 주형광배로 높이가 165cm 최대폭 92cm이다. 이중테두리의 두관 내에는 단판단엽의 연화문이 새겨져 있고, 신광대 안에는 조식이 없다. 광배 외연은 화염문으로 메우고 있다.

한편, 석불사 입구 화단에는 절터에서 옮겨온 것으로 전하는 사자상 1구가 있다. 목부분이 결실된 상태로 암좌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이다. 사자상의 크기는 길이가 73cm 폭 33cm이며 높이는 47cm 가량이다. 용도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규모, 대좌를 갖추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인왕상과 함께 불법 수호의 의미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3) 법천사지 부도군

대가면 양화리 280번지 일원에는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207호로 지정된 '고성 양화리 법천사지 부도군' 이 있다. 2004년 지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부도들은 절터에 있던 것을 옮겨 모은 것이라 한다. 2014년 5월에 추가로 2기를 이안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부도는 승탑(僧塔)을 말하는 것으로 이들은 모두 종모양의 석종형 부도로 조선시대의 것이다. 절터 주위의 산골짜기들은 나무암골, 진성암골, 운봉암골, 생연암골, 국사당 등 암자의 이름을 띠고 있어 불교 번성기 때 큰절에 딸린 속암들이 자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동쪽으로부터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도1은 자연석 위에 2단의 원형의 연화기단석과 석종형 탑신으로 구성되어 있다. 탑신은 직경 34.5cm 높이 27cm의 연봉형 보주가 있으며 탑신석은 직경 89cm 높이 75cm로, ‘영월당조웅대사탑(影月堂祖雄大師塔)’이라 음각되어 있다. 연화기단석은 양면문이 있는 직경 97cm 높이 20cm의 상부와 복련문이 있는 직경 75cm 높이 22cm의 하부로 구성되어 있다.

부도2는 판석형 기단석 위에 안치되어 있으며 탑신은 석종형이다. 탑신 상부에는 직경 29cm 높이 12cm의 연봉형 보주가 있으며, 탑신은 직경 70cm 높이 115cm이다. 탑신에 별도의 명문은 없으나 기단석 위에 ‘해묵당(亥默堂)’이라 음각하였다.

부도3은 방형 옥개석과 팔각탑신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옥개석은 폭 80cm 높이 38cm로 탑신석은 방형이다. 폭 53×47cm 높이 95cm로 방형석재의 모서리를 깎은 형태로 조성하였다. 별도의 명문은 확인되지 않는다.

부도4는 연봉형 보주가 있는 석종형으로 원형의 연화좌대 위에 올렸다. 탑신은 직경 74cm 높이 90cm이며, 보주는 직경 24cm 높이 12cm이다. 원형의 기단은 단판단엽 양면이 양각되어 있으며 직경 77cm 높이 25cm이다. 탑신석에 ‘청파당(淸波堂)’이라 새겼다. 자연석 지대부 상면에 ‘강희경자춘(康熙庚子春)’이라 음각되어 1720년에 건립된 것임을 알게 한다.

부도5는 팔각 기대석 위에 탑신이 안치된 형태이며, 탑신은 석종형이다. 직경 48cm 높이 65cm 탑신의 폭은 65cm가량이다. 대좌석 상면에 ‘옹정삼년을사정월일립(雍正三年乙巳正月日立)’이라 음각되어 있어 1725년에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기대석에는 양면 문양이 있다.

부도6은 방형 옥개석과 팔각형 탑신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단석은 방형 자연석이다. 탑의 정면에는 ‘담연당 대사해담 탑(湛然堂 大師海湛 塔)’이라 음각하였다. 옥개석은 높이 28cm 폭 67cm 상륜부의 높이는 45cm이다. 탑신석은 평면 팔각형으로 치석되어 있는데 폭 45cm 높이 61cm로 한 면의 폭은 21~23cm이다.

나머지 2기는 현재의 부도군에서 남쪽으로 70여m 떨어진 곳에서 2014년 5월에 옮겨 안치한 것이다. 1기는 274번지 축사 앞에 있던 것이다. 연봉형 보주와 석종형 탑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탑신에 ‘환암당[幼(庵)堂]’이라 음각되어 있다. 승탑의 직경은 79cm 높이 116cm이다.

나머지 1기는 281-1번지 주택 마당에 있던 승탑과 탑비이다. 승탑은 최대직경이 98cm 높이 116cm이며 이중 문양의 연봉형 보주가 있다. 보주의 상단은 지름이 32cm 높이 4.5cm이며 하단은 지름이 46cm 높이 7cm 규모이다.

탑비석은 승탑 앞에 있던 것으로 폭 50cm 높이 113cm 폭이 13cm 가량이다. 비문은 마모

가 심한 상태이나 주인공의 일생을 간략하게 적고 있다. 이에 따르면 주인공은 1707년 거제 [岐城]에서 태어났으며 법명이 각원(珎愿), 도호가 계봉(鷄峯)으로 법성정사(法性精舍)에 머물다 1787년 입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비의 뒷면에는 주인공의 문도와 일을 맡았던 사람들의 인명을 새겼다. 비는 1791년에 세운 것이다.



<사진> 양화리 법천사지 부도군

(4) 전 용안리사지 동제관음보살좌상 및 불감

용안리사지는 개천면 용안리 산 71번지 일대로 비정되고 있다. 이곳에서는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동제관음보살좌상 및 불감의 출토지로 전해지고 있다. 유물은 1934년에 발견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유리건판사진만으로도 그 존재가 확인되다가 2013년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중인 것이 확인되었다.

불감은 복련의 기단위에 방형의 감을 올리고 팔작지붕을 얹은 형태이며 여단이식 격자창살문이 달려있다. 유리건판사진으로만 확인되어 온 보살좌상은 불감 내부에 안치되어 있으며 머리에 높은 원통형의 보관을 쓰고 양련의 연화대좌위에 결가부좌하고 있다. 수인은 오른손은 들고 왼손은 내려뜨려 각각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있는 모습이다. 이 불감의 제작시기는 보살상의 양식과 불감의 형태, 연판문의 표현 등으로 미루어 고려 후기~조선 전기로 추정되고 있다.



<사진> 용안리사지 동제관음보살좌상과 불감

제 5절 고성의 사암현황과 원불교

1) 고성의 사암 현황

<표 7> 사암 현황(고성군 사암연합회 제공)

읍면	사암명	주소	읍면	사암명	주소
고성읍	관음사	서외리 164번지	동해면	폭포암	외곡리 산 50
	감로사	이당리 999		동해암	양촌리 검포마을
	낙불암	월평리 230		법천사	양촌리 434
	보성사	동외리 188-1		금곡사	장기리 459
	백운사	월평리 84-2		국광사	외산리 613
	범석사	교사리 872-4		약수시	장좌리 1549
	거림사	기월리 567		일출암	내산리 141-4
	은덕암	교사리 423-3		청암사	양촌리 757
	보광사	동외리 369		천지암	외산리 287-1
	무등선원	무량리 424		원각사	용정리 994
	덕운사	우산리 내우산 721	구절암	외산리 613	
	서래암	내우산리 752-2	마암면	보현사	석마리 124
	영진사	수남리 164-5		현불사	화산리 13
	옥골사	우산리 358-1		낙산암	삼락리 642
	정은사	동외리 188-1		백련암	보전리 산 105-1
	와불사	우산리 288		청룡사	보전리 218-1
	행림사	울대리 676		성수사	삼락리 1190-1
	정오선원	두포리 장지 246-1	삼산면	대왕사	판곡리 163
	대성사	월평리 230		청수암	판곡리 365
	봉화사	대독리 4-5		갈모정사	삼봉리 76
성도사	죽계리 907	삼봉사		삼봉리 산91-1	
무유정사	우산리 11-1	청수암		두포리 283	
송림사	우산리 404	보타암		두포리 1238	
옥천사	북평리 408	오봉사		장치리 45	
개천면	청련암	북평리 408	상리면	미룡사	미룡리 미동 600-2
	백련암	북평리 407		극락사	판곡리 72-1
	연대암	예성리 550		문수암	무선리 산134
	적멸보궁	좌련리 1313		무위사	척번정리 353-1

	구룡사	용알리 534-2		청량암	무선리 665	
	달마선원	청광리 592		무량사	신촌리 562	
	몽운사	좌련리 149		청량사	척번정리 198	
	덕천사	청광리 357		천용사	부포리 산68	
	지관사	나선리 432		서방사	고봉리 비곡73-1	
거류면	장의사	신용리 1012	영오면	연화암	연당리 851	
	벽암사	은월리 135		옥정암	영대리	
	옥천암	가려리 778	영현면	계승사	대법리 산17	
	무애암	은월리 산127		천귀사	봉발리 금능마을	
	당포사	송산리 533		운홍사	와룡리 442	
구만면	삼보암	화림리 166	하이면	천진암	와룡리 441	
	약천암	광덕리 560		낙서암	와룡리 144	
대가면	천비룡사	척정리 287-15		하이면	법정사	봉현리 86
	금산사	금산리 1068 신하마을			내원암	봉원리 201-1
	보문암	유흥리 843			감로사	사곡리 14-3
	광명사	연지리 451	보현사		수양리 산1-6	
	안국사	연리리 902	하일면	약사대전 (보현사소속법당)	수양리 산1-6	
	용화사	금산리 산18-1		청룡사	오방리 725-2	
	연화암	송계리 773		일윤사	오방리 14-2	
	은혜사	신전리 60		무위사	삼덕리 산217	
	약수암	연지리 926-1		옥수암	삼덕리 303	
	보타사	유흥리 608-2	회화면	영락사	배둔리 1216	
	본심사	척정리 1782		천신암	삼덕리 271	
	무심사	암기고리 부시골마을		적석암	삼덕리 122-74	
	욘암사	양화리 343-1		탐문사	배둔리 447-1 관인마을	
구룡사	금산리 967-5	천수암		삼덕리 1310-1		
		약불암		배둔리 919-3 양지마을		

2) 원불교

(1) 원불교의 창도와 교리

원불교는 교조(敎祖) 박중빈(朴重彬, 1891~1943)의 대각(大覺)으로 1916년 4월 창립된

종교이다. 박중빈은 부친 박성삼, 모친 유정천 사이에 1891년 3월 27일 전남 영광군 백수면 길용리 영촌 마을에서 태어났다. 이 때는 봉건 질서가 무너지고 일체에 의하여 주권이 침탈되는 상황이었다. 또 우리의 고유한 민족혼을 일깨우고 새로운 세계가 도래한다는 사상적 흐름이 있었던 시기이기도 하였다.

이 시기 수운(水雲) 최제우(崔濟愚)는 동학사상의 후천 개벽설에 의해 조선의 낡은 봉건 질서를 종교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일정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이 사상은 동학농민운동으로 나아가 정치적 사회적 실천 운동으로 변화되었다. 그러나 동학농민운동이 실패로 끝남에 따라 민중의 좌절감은 매우 컸다. 증산(甞山) 강일순(姜一淳)에 이르러 후천 개벽 사상은 천지공사(天地公事)라는 종교적 상징화의 방향으로 변화되었다. 그러나 강일순의 천지공사는 신비적 주술성의 요소가 강했기 때문에 일반 민중의 폭넓은 지지를 이끌어 내지는 못하였다.

박중빈은 이러한 사회 및 종교적 혼란 속에서 불법(佛法)에 그 연원을 두되 종교개혁·인간개혁·사회개혁을 추구하는 신종교를 출범하였다. 기본교리는 일원상(一圓相)·사은(四恩)·사요(四要)·삼학(三學)·팔조(八條)·사대 강령 등이다.

그는 1917년 8월에 저축조합을 창설하고 저축조합을 통해 허례 폐지, 금주·단연 등의 훈련을 거쳐 기금을 확보한 후, 길용리 해면의 간척 공사에 착수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물 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선포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이른바 정신과 육체를 아울러 건전하게 성장시킨다는 영육쌍전(靈肉雙全)과 이사병행(理事並行)의 이념을 현실에서 실천으로 옮긴다는 의미였다.

이외에도 방언 공사를 통해 경제적 기초와 인간 생활에 뿌리박는 실천적 이념을 확립하고 우주의 근원인 하늘의 세계에 뿌리박음으로써 정신개벽이라는 이념의 기초를 다진 박중빈은 5년간 부안, 변산 등에 거쳐하면서 교법의 체계를 세웠다.

그 후 1924년 전북 이리시 신용동에 총부를 세우고 ‘불법연구회(佛法研究會)’라는 임시 교명 하에 대중 교화와 민중 훈련에 착수하였다.

2대 정산 송규(宋奎, 1900~1962) 때 ‘원불교’라 명명하고 3대 김대거(金大擧) 종법사, 4대 좌산 이광정, 현 경산(慶山) 조송광(曹頌廣)에 이르고 있다.

교리 체계상 원불교는 ‘일원상(一圓相) 진리(眞理)’를 신앙의 강령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수양·연구·취사의 삼학을 수행의 강령으로 하고 있다. 자력 양성·지자 본위·타자녀 교육·공도자 숭배(公道者崇拜)의 사요(四要)는 신앙문의 실천 덕목에 해당한다. 이밖에 삼학 수행을 도와주는 네 가지로 신(信)·분(忿)·의(疑)·성(誠)를 진행사조(進行四條)라 한다. 곧 신은 진리·스승·교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말하고, 분은 삼학 수행으로 반드시 삼

대력을 얻고야 말겠다는 분발심을 말하며, 의는 대소유무의 이치와 시비이해의 일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반드시 깨치고야 말겠다는 마음을 말한다. 또 성은 삼학수행에 쉬지 않고 게으르지 않는 지극한 정성심을 의미한다.

반대로 방해가 되는 불신과 탐욕, 나태함[懶]과 어리석음[愚]의 네 조목을 사연사조(捨捐四條)라 하여 버려야 할 네 가지 조목으로 삼는다. 해방 이후 원불교가 전개한 사업과 활동은 대체로 교단 정비 사업, 사회사업, 학술 교육 사업, 그리고 종교 대화 운동 등 4부분으로 나누어진다.

(2) 고성교당의 설립과 성장

고성의 원불교는 1968년 마산교당을 연원으로 고성교당이 설립되면서 본격화되었다. 그 이전에는 마산교당 김도은은 고향인 고성에 교당이 설립되기를 염원하여 고성읍 김옥태의 집을 빌려 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법회를 보기도 하였다.

원불교가 고성지역에 입성하게 된 직접적 계기는 황경운의 장남 황진실이 원광대학 약학대학에 입학하게 되면서 인연이 되었다고 알려지며, 1970년 6월에 초대 전기철 교무가 부임하여 고성읍 동외리 김병훈의 사랑채를 전세로 얻어 교회의 초석을 놓았고, 이로써 고성의 원불교 활동이 본격화 되었다고 보고 있다.

1972년 2대 김정국 교무가 부임하여 교화에 전념하였고, 한편으로는 교도들이 합심하여 고성읍 동외동 소재 231-13번지에 대지 128평을 매입하여 비교적 안정된 상황에서 교화를 펼치게 되었다.

그 후 1975년 3월 고성읍 동외리 388-4번지에 대지 166평의 목조건물 2동을 매입하였고, 1976년 5월 교무소(敎務所)로 정식 인가를 받아 새로운 법당에 일원상을 이안 봉불하게 되어 지역과 주민들에게 더욱 적극적인 교화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1977년 3대 권세원 교무가 부임하여 교도들의 신앙생활을 더욱 두텁게 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교당의 협소함을 극복하기 위해 그 해 9월 천일기도를 결제하고, 교당 건립을 추진하여 1981년 기공식을 보게 되었고 법당과 생활관을 준공하게 되었다.

이후 1998년 고성군 고성읍 수남리 517-4번지에 현재의 교당을 신축하고 원불교인의 신앙의 대상인 법신불 일원상을 대법당에 봉불하였다. 신축한 교당의 총면적은 1층 193.92㎡, 2층 200.31㎡이다.

※ 참고 문헌

『海東高僧傳』
『三國史記』
『三國遺事』
『高麗大藏經』
『東國李相國集』
『高麗史』
『高麗史節要』
『朝鮮王朝實錄』
『固城叢瑣錄』
『韓國佛教全書』

李能和, 『朝鮮佛教通史』 1918
고성군지편찬위원회, 『고성군지』 1995
李鍾益, 「蓮華山玉泉寺事蹟碑」 1987
이강오, 『한국신흥종교총람』 도서출판 대흥기획, 1992
원불교정화사, 『원불교전서』 원불교출판사, 1993
최완수, 『명찰순례(3)』 대원사, 1994
김광식, 『한국 근대불교사 연구』 민족사, 1996
김광식, 『한국 현대불교사 연구』 불교시대사, 2005
정병삼, 『의상 화엄사상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8
동아대학교 박물관, 『문화유적분포지도-고성군-』 2004
문화재청·불교문화재연구소, 『한국의 사찰문화재-경상남도 I 자료집-』 2009
국립진주박물관, 『2014 특별전 -固城-』 2014
문화재청·불교문화재연구소, 『한국의 사지-현황보고서-』 2013
경상남도·우리문화재연구원, 『경상남도 문화재총람』 2014
문화재청 www.cha.go.kr
원불교 www.won.or.kr

제 4장 유교(儒教)

제 1절 한국유교 약사(略史)

1. 개관

공자가 집대성하고 그 후학들에 의해 계승되어 온 가르침으로 공자교(孔子教) 또는 공교(孔教)라고도 한다.

중국에서 발생하여 한국·일본·베트남의 문화전통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한자를 통하여 전파되었기 때문에 유교문화권은 곧 한자문화권이기도 하였다. 그 교설의 기본 내용은 5륜을 중심으로 한 도덕규범의 생활화를 도모하고 엄격한 의례 체계로 생활양식을 규정하여 사회의 공동체적 결속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들 내용은 5경을 비롯한 경전에 집성되어 있다. 유교는 유학·유도·유술과도 같은 말로 쓰이며 때로는 유교를 공부하는 사람의 의미로 쓰여 유가·유문·유림등과 뜻이 통하기도 한다. 학문분야가 전문화되면서 ‘유학’이 특히 학문적·이론적 영역에 연관된 것으로 이해되고 ‘유교’는 교화적·실천적 영역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

‘유교’라는 말을 《사기(史記)》 유협전에 ‘노나라 사람은 모두 유교로써 가르친다.’

魯人皆以儒教라는 기록에서 처음 나타나며 《진서(晉書)》 부현전에서는 ‘정치의 본체는 유교를 보존하고 중시하는 데 있다.’(政體尊重儒教)고 하였다. 유교에서는 인(仁)으로써 모든 도덕을 일관하는 최고이념으로 삼고 수신·제가·치국·평천하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유교는 우리생활이나 생각 속에 깃든 인성을 기본 원리로 하고 있다.

사람의 본성을 인성이라고도 하고 천성이라고도 한다. 그것은 사람의 본성이 하늘에서부터 타고난 것이라는 뜻으로서 사람과 하늘이 서로 통한다는 이해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유교는 인간을 초월하려고 하지 않으며 인간다운 인간이 되게 하는 것이 이상이다.

유교에서는 5륜(五倫: 夫子, 君臣, 夫婦, 長幼, 朋友사이의 윤리), 즉 자연스러운 인간관계에 따른 사랑함(親)·정당함(義)·분별함(別)·가르침(序)·믿음(信)을 지켜야 할 규범으로 인식한다. 5륜에서는 가족적 인간관계가 매우 중요시되며 그 중에서도 부자관계 내지 효를 가장 중요시한다.

유교의 정치사상 속에는 가정을 바로잡은 이후에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는 필연적인 순서가 확립되어 있고 가정이 사회구조의 핵심으로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효는 인간의 개인적·사회적인 모든 행위의 근본적인 원리요 전통적 윤리체계의 초점이라고 볼 수 있다. 살

아 계실 때 부모를 섬기는 방법이나 돌아가신 때의 장례에 있어서나 제사를 드리는 일 등이 모두 예법절차로 규정되어 있어 가정의 예법 즉 가례가 극히 발달하였다.

또한 조상신은 제례의 신적 대상으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여 관·혼·상의 모든 의례는 물론 개인의 일상적 출입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일들이 가묘(家廟)에 고해졌다. 국가의 군주도 국민의 장자 역할을 갖는 종법제도의 질서 속에 포함되고 있다. 그러므로 유교의 전통제도에서 국가는 확장된 가정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도덕규범에서 가정의 효는 국가의 충으로 확장되며 가정의 조상제사는 국가에서 제천·사직제·종묘제·선농제등의 제사의례로 나타나고 있다.

유교는 동아시아의 한자문화권 여러 나라의 사회·문화와 가치관의 형성에 깊은 영향을 주어왔다. 한국은 특히 유교문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로서 삼국시대에 이미 유교 사상이 전래되어 충·효를 비롯하여 의·신등 도덕규범으로 생활화되고 국가의 정치제도와 교육제도에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고려에서는 불교국가였음에도 더욱 융성해 갔는데 특히 고려 말 안향이 주자학을 수입해 오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학풍의 유교가 신념화해 갔다.

조선은 주자학을 사회의 통치이념으로 삼고 사회제도를 강화해 간 유교적 양반국가였다. 유교가 신념체제로 정착된 것도 조선시대에 이르러서였다.

주자의 《가례》에 따르는 조상에 대한 제사는 조선왕조의 유교적 예제로서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가졌다. 특히 16세기 이후에는 예학과가 성립되어 관·혼·상·제의 예제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였으며 이는 왕실의 상례문제에 대한 의견대립으로 예송(禮訟)이 일어나기까지 하였다. 이처럼 조선사회는 5백년의 역사를 통해 상하를 막론하고 한국인의 생활 속에서 행위규범, 사회제도, 도덕적 가치기준, 나아가 신앙적 의식내면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유교사회의 기반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조선 후기 이래 대두한 실학의 영향으로 실사구시, 이용후생의 학풍이 일어나며 일부층을 시작으로 서서히 새로운 의식으로의 변화가 있게 되었다. 또한 천주교가 도입되어 기존의 유교의례와 상충되면서 논쟁이 벌어지는 등 사회문제화 되다가 문호개방, 서양 문물의 도입과 더불어 국가 통치이념으로서의 유교체제가 허물어졌다.

그러나 20세기 초 소수의 각성된 유학자들이 새로운 사조를 수용하여 유교의 종교성을 재인식하며 유교개혁사상을 전개하고 그 실천운동을 주도하였는데 박은식과 장지연은 유교 단체로서 대동교를 조직하였으며 이병헌은 공교운동을 추진하였다.

광복 이후 유교교단의 조직으로서 성균관과 유도회가 성립되고 유교이념의 교육기관으로서 성균관대학교가 설립되어 유학연구의 전문인력이 양성되고 있다.

1970년대 이후 한국사회에서 전통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공자학회·유교

학회·예학회 등 유교 연구단체들이 등장. 유교 연구는 새로운 활력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2. 교리(敎理)의 개요(概要)

유교는 공자(孔子)의 사상을 높여 신봉(尊信)하는 교문(敎門)이며, 요(堯)·순(舜)·우(愚)·탕(湯)·문(文)·무(武)·주공(周公)의 도를 대성한 공자의 교학(敎學)이다. 공자의 교학은 인(仁)이 근본사상이지만 공자 스스로도 인을 실천함에 충분치 못하다하여 불감당이라고 할 정도이다. 그래서 인은 모든 도덕을 일관하는 최고의 이념으로 삼되, 경우에 따라서는 합당한 이해를 돕기 위해 효·제·충·신의 실천하는 도덕적 용어를 사용하였다.

공자의 인의 교학은 곧 수신치인(修身治人)에 귀결되어 사서(四書)·오경(五經)의 내용이 전면에서 흐르고 있는데 그 제자들에 의해 여러 학파를 형성하였지만 증자(曾子)·자사(子思)를 거쳐 맹자(孟子)에 전해진 학맥(學脈)을 정통으로 본다.

맹자는 인의의 도를 세워 성선(性善)과 양기(養氣)의 설을 주장하고 인정(仁政)의 필요를 역설하였으며, 인은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생활하는 인간의 생명자체에 즉(卽), 주체적이고 인격적으로 파악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친친인야(親親仁也), 경장의야(敬長義也)”라 하며, 인정(仁政) 발로를 인(仁)이라 하고 동시에 지(知)·용(勇)·충(忠)·성(誠)·예(禮)·공(恭)·관(寬)·신(信)·민(敏)·혜(惠)·효(孝) 등의 제 요인을 이룬다면 인륜의 극치가 된다고 하였다.

송대(宋代)의 성리학(性理學)은 유학을 독창적으로 철학의 세계로 지향시켰는데 우주의 본체를 태극(太極)이라 하고 여기에서 이기이원(理氣二元)이 생기고, 이원으로서 인성을 해석하여 본인의 성(性)과 기질의 성을 논하고 궁리(窮理)로서 수양의 요목으로 삼았다. 우리나라의 유학은 이 성리학의 이기론(理氣論)을 벗어나지 못한다 하겠다.

그러나 현대의 사상이 개인주의, 합리주의, 능률주의를 최상의 것으로 삼고 있음에 대하여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간 소외를 극복하는데 유교는 자체의 반성을 통해 최선을 다하려 하고 있다.

효에 있어서도 자식에게만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의무라는 전통적 효관(孝觀)에서 벗어나 인륜관계를 평화롭게 맺어주는 천륜(天倫)으로 보며, 그렇기 때문에 효는 백행(百行)의 근본이라고 하였다.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인은 인권과 생명을 존중하며 피차 사랑하고 신뢰하여 인간의 진정한 정서를 승화시켜 봉사의 정신을 함양하는 인간상의 실현에 둔다고 할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유교는 인간을 가르치는 종교적 사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제 2절 향교

1. 향교의 개요

고려·조선 시대 지방민들을 교육하고 교화하기 위하여 일군일교(一郡一校)의 원칙으로 세웠던 교육기관이다. 고려시대인 987년(성종6)에 12목에 박사를 파견한 것을 향교의 시초라 하는데 1127년(인종5)에 여러 주(州)에 학교를 세운 것을 시초로 보는 설도 유력하다. 고려 때부터 설립되기 시작하였고 무신란 이후 침체를 거듭하다가 고려 말에 이르러 지방관과 유생들의 노력으로 복구 또는 중수되면서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고 숫자도 증가하였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향교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지방교육제도로 정착되었다. 태조는 즉위교서에서 외방향교의 설치를 표명하였고, 태종은 수령7사에 ‘수명학교(修明學校)’를 넣어 지방교육에 관심을 기울였다. 이에 따라 폐쇄된 향교는 복구되었고, 향교가 없는 군현에는 수령과 사족들의 협력으로 창건되었다. 성종 때에 중앙에서 교수(教授)와 훈도(訓導)가 모든 군현에 파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 향교가 군현마다 설립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향교는 공자(孔子)를 봉안하는 대성전(大成殿), 선현을 봉안하는 동무(東廡)·서무(西廡)의 문묘(文廟), 학생들의 공부 장소인 명륜당(明倫堂) 및 학생들의 기숙소인 동재(東齋)와 서재(西齋)의 학교가 기본구조를 이루고 있다. 건물의 배치는 향교의 터가 평지인 경우는 전묘후학(前廟後學), 경사진 경우는 전학후묘가 일반적이다. 고려시대에는 문묘와 강당이 한 건물에 있어 제례가 교육에 부수되어 있었으나, 조선시대에 들어와 공자를 모시는 대성전이 독립되고 선현을 봉안하는 동무·서무가 건립되어 제례를 위한 체제가 확립되었다. 공자를 주향(主享)으로 하는 문묘를 독립시킨 것은 고려와 조선의 유학에 대한 태도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향교는 군현의 격에 따라 대설위(大設位)·중설위·소설위로 구분하는데, 이는 규모는 물론 봉안하는 신위(神位)의 수에 차이를 둔 것이다. 대설위란 각 도의 계수관의 경우로 성균관과 같이 대성전에 공자를 주향, 안자(顔子)·자사(子思)·증자(曾子)·맹자(孟子)의 4성(聖)을 배향, 공자의 수제자 10철(哲)과 송나라 6현(賢)을 종향하고, 공자의 문인 72자(子), 우리나라 18현을 동무·서무에 종사(從祀)하는 것을 말한다. 중설위란 부·목·도호부·군의 경우로 공자를 주향으로 4성·10철·송6현을 대성전 안에, 우리나라 18현을 동무·서무에 봉안하는 것이고, 소설위란 현의 경우로 공자·4성·송6현을 대성전 안에, 우리나라 18현을 동무·서무에 봉안하는 것이다.

1) 기능 : 향교는 제례와 교육이라는 양대 기능을 가지고 있다. 문묘에 대한 제례는 춘추의 상정일(上丁日)에 거행하는 석전제(釋奠祭)와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지내는 삭망분향례(朔望焚香禮)가 있다. 석전제는 유교규범 보급이라는 면에서 중요시되었다. 제례에는 수령이 헌관(獻官)으로 참가하는 것이 관례였다. 고을의 양반과 일반 백성들도 참관하여 의례를 보고 배우게 하였다. 향교는 지방의 유일한 관학으로 초기에는 교육과 교화의 중심지였다. 그러나 관학이 가지는 교육효과의 미흡, 교관의 무능, 양반들의 향교교육 외면, 사립서재와 서원의 발달 등으로 향교의 교육기능은 쇠퇴하였고, 후기에 이르러서는 향교는 학교로서의 기능은 거의 상실한 상태였다. 간혹 교육에 관심이 큰 수령이 부임하였거나, 유림이 교육열의를 나타낼 때 학자를 초빙하여 교육케 하고 경제적 뒷받침을 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간헐적이고 일시적인 교육활동에 지나지 않았다. 향교의 교육기능 상실에 대신하여 각 군현에 설립되었던 것이 양사재(養士齋)와 사마재(司馬齋)였다. 향교는 고을 양반들의 향촌기구로 활용되었다. 양반들은 향교에 출입하면서 양반신분을 과시하였다. 향교 유생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양반임을 입증하는 방편이 되었다. 양반들은 향교를 고을의 풍속과 기강을 확립하는 장소로 이용하였다. 효자와 열녀의 포상을 관에 건의하고, 신분질서를 바로잡는다는 명목으로 백성들을 잡아다가 처벌하였다. 또한 소청(疏廳)을 열어 유림의 의견을 모으고 이를 상소하여 양반들이 이해를 대변하였고, 향교 사이에 통문을 주고받아 여론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2) 재정 : 향교운영을 위하여 국가에서는 군현 등급에 따라 학전(學田)을 5결-10결, 노비를 10-30명씩 지급하였다. 학전은 수조권만을 지급한 것으로, 후기에는 5결-7결로 축소되었다. 건물의 보수와 유지, 교육과 제례활동, 교임과 유생의 활동비가 막대하여 향교에서는 별도의 재정확보에 노력하였다. 향교사유전답·제역촌(除役村)·교보(校保)를 확보하고 유전(儒錢)의 각출·식리(殖利) 등도 하였다. 따라서 향교마다 재정의 규모는 각기 달랐다. 갑오개혁으로 과거제도가 폐지되고 학제가 개편됨에 따라 향교는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신식학교에 빼앗기고 말았다. 1900년에 마련된 향교재산관리규정에 의하여 향교 재산 일부가 부·군의 공립소학교나 지정하는 학교의 경비로 충당되었다. 일제강점기에는 1911년 6월의 <경학원규정>에 따라 성군관을 경학원(經學院)으로 개편하고 향교를 경학원 아래에 소속시켜 일원화하였다. 향교의 직원을 문묘직원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부윤이나 군수의 지휘를 받아 향사·문묘수직·서무를 담당하였다. 1913년에는 향교와 문묘를 분리하여 향교재산을 약탈하는 근거로 삼기도 하였다. 오늘날 향교는 유학의 상징으로, 선현을 제례하는 장소로 그 의미를 유지한 채 존속해 오고 있다.

2. 고성향교(固城鄕校) 연혁

1398년(태조 7) 현유(賢儒)의 위패를 봉안하여 배향하고 지방의 중등교육 및 지방민의 교화를 위하여 설립되었다.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가 1607년 현령 정여린(鄭如麟)과 도감(都監) 이현(李顯) 등의 노력으로 중건되었다.

고종6년(1869)에 ‘호적분규사건’ 이 일어나 고성현을 통제영 성내로 옮겨가게 되자 향교도 고성읍에서 죽림으로 이전하게 된 역사를 지니고 있다. 호적분규사건이란 춘원면의 면임(面任)이었던 집강(執綱) 김종율이 1869년 7월 21일 현으로부터 유학전(幼學錢:벼슬하지 아니한 유학생들에게 부담시킨 돈)을 거두도록 명을 받아 시행하던 중에 불만이 폭발해 민요(民擾)가 일어났다. 당시 호적문제는 군역의 바탕이 되었기에 민간에게 직접적인 큰 영향을 미쳤다. 통영 춘원에서 농간을 부린 감관(監官)과 아전(衙前)을 잡아다가 조사를 하는 등으로 무마를 했으나 고성의 춘원면에 거주하는 둔민들은 통문을 돌리고 농민들이 머리에 흰 수건을 동여매고 읍치소(邑治所)의 관아창고를 파괴하고 지방 관리의 집에 불을 지르고 호적도감 이정권과 그의 아들 인규 및 색리인 김탁호를 타살하는 등 온갖 소란을 피우는 일이 6일간이나 계속되었다.

그러자 조정에서는 난을 진압하여 주모자 셋을 목 베고 통문을 만들어 돌린 홍섭(洪涉)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 형을 집행하여 외딴 섬으로 유배시켰으며 나머지 주모자들도 엄한 형벌을 가한 뒤 먼 곳으로 유배했다. 전 현령 조익현과 윤석오는 체포되었으며 당시 현령인 심의직(沈宜稷)도 분규의 책임을 지고 파직되었다. 이를 수습하기 위해 고종7년(1870) 고성현의 치소를 통제영 성내로 옮겼다가 이후 고종11년(1874)에 통제영으로 이전했던 고성읍치소를 다시 고성으로 복귀하였으며 향교도 그 다음해인 1875년에 고성으로 옮겨왔다.

현존하는 건물로는 대성전·명륜당·동재·서재·동무(東廡)·서무(西廡)·풍화루(風化樓)·수복청(守僕廳)·전사청·내삼문(內三門) 등이 갖추어져 있다. 대성전에는 5성(五聖)·송조2현(宋朝二賢)의 위패가, 동무·서무에는 우리나라 18현(十八賢)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으며, 풍화루는 3칸으로 된 2층 누각이고 팔작지붕으로 건축되어 있다. 조선시대에는 국가로부터 전답과 노비·전적 등을 지급받아 교관이 교생을 가르쳤으나, 현재는 교육적 기능은 없어지고 봄가을에 석전제(釋奠祭)를 봉행하고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대성전에 분향하고 있으며, 전교(典校) 1명과 장의(掌議) 30여명이 향교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고성군 고성읍 교사리 270-1번지에 위치한 고성향교는 1983년 8월 11일 경상남도 문화재 제219호로 지정되었다.

3. 고성향교 역대 전교(도유사) 현황

고성향교의 역대 전교(도유사) 임명 기록은 훼손되고 누락된 부분이 많아 정확하지 않다. 남아서 전해지는 기록도 1765년 영조 41년 이후부터 전해지고 있으나 그마저 기록의 연대가 뒤엉켜있어 순서가 제대로 맞지 않은 부분이 많다.

최경함(1765, 영조41) 이현징(1766, 영조42) 허 재(1776, 정조1) 이시중(1776, 정조1)
 최광침(1776, 정조1) 최기성(1553, 인종9) 이이룡(1553, 인종9) 허 인(1553, 인종9)
 최상벽(1553, 인종9) 하한탁(1555, 인종11) 이주형(1555, 인종11) 이문보(1555, 인종11)
 이정덕(1555, 인종11) 최창대(1557, 인종13) 이경춘(1557, 인종13) 이극번(1557, 인종13)
 이병극(1557, 인종13) 이병극(1876, 고종13) 제동진(1876, 고종13) 최형진(1877, 고종14)
 이용규(1877, 고종14) 최광진(1877, 고종14) 허치형(1878, 고종15) 최상해(1878, 고종15)
 이일규(1879, 고종16) 이현보(1879, 고종16) 이병육(1879, 고종 ?) 이재규(1880, 고종17)
 제상욱(1880, 고종17) 허치정(1880, 고종17) 이영복(1880, 고종17) 최용진(1880, 고종17)
 허경규(1880, 고종17) 이병덕(1881, 고종18) 최상석(1881, 고종18) 이응권(1881, 고종18)
 이병수(1882, 고종19) 허경덕(1882, 고종19) 최 연(1882, 고종19) 이병현(1882, 고종19)
 이병하(1883, 고종20) 허 회(1883, 고종20) 이병정(1884, 고종21) 최필호(1884, 고종21)
 정태식(1884, 고종21) 이광봉(1884, 고종21) 이정규(1884, 고종21) 최필인(1884, 고종21)
 이 훈(1885, 고종22) 이장규(1885, 고종22) 최필주(1885, 고종22) 최영진(1885, 고종22)
 이병창(1885, 고종22) 이우신(1885, 고종22) 이상유(1885, 고종22) 이동규(1886, 고종23)
 이진하(1885, 고종22) 허경세(1900, 광무4) 이빈규(1900, 광무4) 이병식(1900, 광무4)
 최필기(1900, 광무4) 허경필(1900, 광무4) 배석용(1900, 광무4) 이체규(1900, 광무4)
 광태석(1900, 광무4) 허재우(1901, 광무5) 최성진(1901, 광무5) 이주규(1901, 광무5)
 이진울(1906, 광무10) 허중덕(1908, 광무12) 최찬호(1914, 광무18) 오유영(1914, 광무18)
 이상욱(1914, 광무18) 이진곤(1916, 광무20) 김창호(1916, 광무20) 정원식(1918, 광무22)
 박경수(1919, 광무23) 이종환(1920, 광무24) 박희주(1923, 광무27) 박상요(1926, 광무30)

이갑용(1943) 이진홍(1944) 최문환(1946) 이진홍(1948) 박영갑(1952)
 구학구(1954) 허용중(1957) 최정은(1959) 서병주(1961) 전학기(1964)
 이주실(1966) 제정택(1967) 허 도(1970) 최연섭(1974) 제동원(1978)
 이창수(1980) 최한두(1983) 허택도(1991) 제명수(1997) 허복만(2005)
 문도한(2009) 이재호(2012) 정창석(2015)

-성군관 유도회 총본부 경남 고성군 지부장

이진홍(李震弘 1951) 이인갑(李仁甲 1954) 이택환(李宅煥 1957)
 이만수(李萬洙 1961) 제정택(諸廷鐸 1961) 최맹석(崔孟石 1978)
 제복근(諸復根 1981) 이진석(李鎭石 1989) 제명수(諸明秀 1991)
 허종봉(許宗琫 1997) 이성두(李成斗 2000) 문도한(文道漢 2005)
 이상조(李相祚 2009) 구관옥(具判鉦 2012) 김문수(金文洙 2015)
 김석관(金石寬 2016)

제 3절 고성의 서원(書院) 및 사우(祠宇)

유교를 보급하고 학습하는 기능을 지닌 기관으로는 향교 이외에 서원(書院)이 있다. 서원은 교육 이외에 제향(祭享)의 기능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일반적인 서당(書堂)과는 구별된다. 조선에서는 주세붕(周世鵬)의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 이후로 서원이 설립되기 시작하여 조선 말기까지 수많은 서원이 건립되었다. 이들 서원에서는 학문을 연마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앞선 유현(儒賢)들의 학문을 기리며 그를 본받고자 제향의 의식을 거행하였다. 이는 유학을 내면화하여 개개인의 정신에까지 침투시켜 지식과 실천의 일치를 이루고자 한 의지의 발로였다. 이로써 유학은 유교(儒敎)로 거듭나게 되었다.

고성에서도 다수의 서원이 있었으며, 그 중 사당(祠堂)의 건물만 남아 제향을 수행하는 곳도 있었다. 다음에서 『철성지(鐵城誌)』 및 고문서에 수록된 서원 및 사우(祠宇)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1. 금봉서원(金鳳書院)

고성현 동쪽 40리 떨어진 금봉산 아래에 있던 서원이다. 행촌(杏村) 이암(李喆)과 관포(灌圃) 어득강(魚得江)을 병향하던 서원이었으나, 임진왜란으로 건물이 불에 탔다. 현재는 작자를 알 수 없는 상량문(上梁文)과 이곳을 다녀간 여러 명사(名士)들의 명단이 전한다.

2. 도산서원(道山書院)

고성현 북쪽 40리 떨어진 곳에 있던 서원으로, 현재는 고성군 구만면 화림리 127에 위치한다. 1623년 창건되어 의민공(義敏公) 소호(蘇湖) 최균(崔均)과 의숙공(義肅公) 소계(蘇溪) 최강(崔綱)을 병향하였다. 서원의 봉안문(奉安文)과 상향문(常享文)은 송이석(宋履錫)이 지었고, 상량문은 정홍경(鄭鴻慶)이 지었다. 또한 유치명(柳致明)이 중수기를 지었다.

3. 갈천서원(葛川書院)

고성현 북쪽 30리 떨어진 곳에 있던 서원으로, 현재는 경남 고성군 대가면 갈천리 1146에 위치한다. 임진왜란 때 불에 탄 건물을 1712년 현재의 자리에 중건하였다. 행촌(杏村) 이암(李喆)과 묵재(墨齋) 노필(盧肇), 관포(灌圃) 어득강(魚得江)을 병향하다가 1854년에는 도촌(桃村) 이교(李嶠)를 추가로 배향하였다. 최일대(崔一大)가 쓴 중수기가 전한다. (1975년 2월 5일 경상남도 지방문화재 제35호로 지정)

4. 유촌서원(柳村書院)

고성현 북쪽 10리 떨어진 곳에 있던 서원으로, 1709년 창건되었다. 휴옹(休翁) 심광세(沈光世)를 제향하다가, 1842년 운포(雲圃) 이달(李達)이 도산서원(道山書院)에서 이봉(移奉)되었다.

심광세(1577-1624)는 1613년 계축옥사가 일어나자 무고를 입고 고성(固城)으로 유배되었다. 1623년 인조반정으로 인하여 다시 교리에 임명되었다.

이달(1561-1618)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고성에서 의병을 일으켜 의병장 곽재우(郭再祐)·최강(崔綱) 등과 포위된 진주성 방어전에 참가하여 전공을 세웠다.

5. 위계서원(葦溪書院)

고성현 북쪽 30리 떨어진 곳에 있던 서원으로, 현재 경남 고성군 마암면 석마리 643에

위치한다. 1844년 창건되어, 매헌(梅軒) 이의현(李仁亨), 행헌(杏軒) 이의형(李義亨) 성재(惺齋) 이령(李翎) 와룡(臥龍) 이현(李顯)을 병향하였다. 뒤에 사간공(思簡公) 이미(李美)를 추가로 제향하였다. 유치명(柳致明)이 봉안문과 상향문을 지었다.

6. 도연서원(道淵書院)

고성현 북쪽 30리 떨어진 곳에 있던 서원으로, 현재 경남 고성군 마암면 도전리 543에 위치한다. 1856년 창건되어, 호은(湖隱) 허기(許麒), 천산재(天山齋) 허천수(許千壽), 이견와(利見窩) 허재(許栽)를 병향하였다. 유치명(柳致明)이 지은 봉안문과 상향문이 있고, 허천(許傳)이 지은 강당 중수 상량문이 전한다.

7. 운곡서원(雲谷書院)

고성현 북쪽 25리 떨어진 곳에 있던 서원으로, 1856년에 창건되었다. 동고(東臯) 제철손(諸哲孫), 충의공(忠毅公) 제말(諸沫), 제홍록(諸弘祿)을 병향하였다. 이정덕(李庭德)이 지은 상향문과 김창수(金昌秀)가 지은 봉안문이 있으며, 최상순(崔祥純)이 지은 상량문이 전한다.

8. 충렬사(忠烈祠)

고성현 남쪽 50리 떨어진 통제영 서문 밖에 있던 사우로, 충무공(忠武公) 이순신(李舜臣)을 제향하였다. 1663년 ‘충렬’이라는 사액을 받고 정비되었다. 송시열(宋時烈)이 지은 기문에 자세한 전말이 소개되어 있다.

9. 가산사(佳山祠)

고성현 동쪽 10리 떨어진 곳에 있던 사우로, 1822년에 창건되었다. 구룡재(九龍齋) 백봉래(白鳳來)를 제향하였다. 서기수(徐淇修)가 봉안문을 지었다.

10. 호암사(虎巖祠)

고성현 동쪽 40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우로, 신묘년에 창건되었다. 화산군(花山君) 천만리(千萬里)를 제향한다. 최상익(崔祥翼)이 상향문을 지었고, 이종기(李鍾夔)가 상량문을 지었다.

천만리(1543~?)의 본관은 중국 영양(潁陽)이며, 임진왜란 이후 명나라에서 귀화하였

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조선이 명나라에 원병을 요청하였는데, 이때 아들 상(祥)과 함께 이어송(李如松)을 따라 조선에 왔다. 평양전투를 비롯하여 광산·동래 등지에서 전공을 세웠으며, 정유재란 때 마귀(麻貴)와 함께 울산에서 전공을 세웠다. 왜란이 끝난 뒤에도 조선에 머물러 살았다. 선조는 그의 전공을 생각하여 그를 화산군에 봉하였다.

11. 신도동사(新道洞祠)

고성현 남쪽 2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우로, 1854년에 건립되었다. 조응도(趙凝道)와 박애상(朴愛祥)을 병향한다. 이규신(李圭臣)이 상량문을 지었다.

조응도(? ~1597)의 본관은 함안인데, 1592년 고성현령으로 있을 때 임진왜란을 맞았다. 그 해 10월 왜군이 진주성을 포위, 공격해오자 목사 김시민(金時敏)이 성을 지키기 위하여 계략을 세웠다. 이때 조응도는 고성 가장(假將)으로서 진주 북병장(伏兵將) 권유경(權惟敬)과 함께 500명의 병력을 이끌고 남쪽 문을 지키면서 각기 십자(十字) 깃발을 들고 남강(南江) 밖 재 위에 벌려 서서 날라리를 붙고 성안에서도 북을 울리고 날라리를 붙여 응답하니 적이 놀라고 두려워하여 공격을 멈추었다. 후에 거제 기문포해전(器門浦海戰)에서도 크게 활약하였으나 정유재란 때 전사하였다. 이후 병조참의에 증직되었다.

박애상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일으켜 현령 조응도와 함께 6년 동안 각지에서 의병과 싸워 많은 전공을 세웠으며, 정유재란(丁酉再亂)이 일어나자 다시 왜적과 싸우다 조응도(趙凝道)와 함께 순절(殉節)했다.

12. 숙청사(肅淸祠)

고성현 북쪽 20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우로, 태상(太上) 병진년에 창건되었다. 제갈량(諸葛亮)의 영정(影幀)을 봉안하였다. 조호래(趙鎬來)가 지은 봉안문이 있다.

13. 수림서원(繡林書院)

현 경남 고성군 마암면 화산리 998에 있는 서원으로, 1856년에 무열공 배현경(裴玄慶), 배정지(裴廷芝), 배인경(裴仁敬), 배맹관(裴孟寬), 배상곤(裴尙袞), 배경(裴黻) 등의 덕행과 학문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되었다. 배현경은 고려 태조 때의 무신이며 고려 건국에 큰 역할을 했다.

14. 소천정(蘇川亭)

현 경남 고성군 구만면 효락리 50에 있다. 임진왜란 때 공적을 세운 최강(崔綱)을 기리기 위해, 출생지에 1872년 최씨의 후손들이 건립하였다.